

최종보고서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 및 지원사업 평가

2011. 9. 26

목 차

제1장 평가 개요	1
1. 평가 목적	1
2. 평가 대상	2
3. 평가 기준 및 방법	3
가. 평가 기준 및 항목	3
나. 평가 및 조사 방법	5
4. 평가 절차 및 연구진 구성	6
가. 추진 절차	6
나. 평가연구진 구성	8
5. 평가보고서 구성	9
제2장 인도네시아의 개발 환경과 정책	10
1. 인도네시아의 개발 환경	10
가. 정치 · 사회 · 문화적 배경	10
나. 경제 발전의 맥락	11
다. 대외 정책과 국제 개발협력	12
2.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정책	13
가. 개발 정책의 기조	13
나. 국가장기개발계획	13
다. 국가중기개발계획	14
3. 인도네시아의 수원 정책	18
가. 인도네시아의 수원 체계	18
나. 인도네시아의 수원 정책	19
4. 국제사회의 대 인도네시아 ODA 지원현황	22
가. 지원현황과 주요특징	22
나. 원조 추이와 시사점	23

제3장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전략 및 실적	26
1.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ODA 개관	26
2. 국가지원전략(CCSP)	27
3. 사업수행절차	35
4. 지원사업	39
제4장 EDCF의 대 인도네시아 국별지원 종합평가	44
1. 국가지원전략(CCSP) 평가	44
가. 절차의 합리성	44
나. 내용의 적절성	45
다. 실천전략으로서의 활용성	56
2. 사업수행절차 평가	59
가. 적절성	59
나. 효율성	74
3. 지원사업 평가	84
가. 적절성	84
나. 효율성	89
다. 효과성	91
라. 영향력	97
마. 지속가능성	100
바. 성주류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	104
제5장 교훈 및 제언	107
1. 종합 평가	107
2. 정책제언	108
가. 새로운 국가지원전략의 모색	108
나. 사업수행절차 개선	113
다. 성과지향적 사업운영 체제 수립	116
라. 기타	118

참고 문헌 122

부록

1. 성과관리 틀(framework) 및 매트릭스(matrix) 샘플 127

2. 현지 설문조사결과 분석 요약 130

3. 현지평가워크숍 주요 결과 157

4. 현지컨설턴트 리포트 163

표 목 차

<표 1-1> OECD/DAC의 개발협력 평가 기준.....	3
<표 1-2>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	4
<표 1-3> 평가 연구진.....	8
<표 2-1> RPJMN I (2005-2009)의 개발 목표 및 중점과제.....	15
<표 2-2>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의 우선과제	16
<표 2-3> 부문별 개발전략 및 지역개발전략	16
<표 2-4> 공공부문 중기 예산 계획 (2010~2014년).....	17
<표 2-5> 공공차관 관리 목표.....	21
<표 2-6> 대 인도네시아 ODA 지원현황 (1991~2009년).....	22
<표 2-7> 대 인도네시아 유상원조 현황 (1987~2009년).....	23
<표 2-8> 주요 공여기관별 원조 전략.....	24
<표 3-1>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ODA 지원 현황.....	26
<표 3-2> 대 인도네시아 CCSP(2006-2009)의 주요 내용.....	29
<표 3-3> 한국의 ODA 정책과 EDCF 중기운용계획 주요내용.....	31
<표 3-4> 양국간 F/A 및 정책협의 현황.....	32
<표 3-5> 주요 원조공여기관의 차관 지원조건.....	34
<표 3-6> 양국간 F/A 합의 지원규모 대비 승인규모.....	34
<표 3-7> 대 인도네시아 Rolling Plan 현황.....	35
<표 3-8> 대 인도네시아 지원형태별 지원 추이 (1987~2010년).....	39
<표 3-9> 대 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 추이 (1987~2010년).....	41
<표 3-10> 대 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사업.....	43
<표 4-1> 원조 정책 및 전략의 변화와 대 인도네시아 CCSP 운용.....	48
<표 4-2> 대 인도네시아 개발원조 수행 국내 기관 및 규모.....	50
<표 4-3> 타 기관의 발굴 사업과 EDCF 사업 간의 연계 현황.....	51

<표 4-4> 인도네시아의 MDGs 달성 결과.....	53
<표 4-5> PD 이행 조사 주요 결과.....	54
<표 4-6> EDCF의 PD/AAA 이행 개요.....	54
<표 4-7> 주요 원조 공여기관의 국가지원전략.....	57
<표 4-8> 연도별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현황.....	60
<표 4-9> 주요 권고내용과 사업심사로의 반영 현황.....	65
<표 4-10> 2010년도 대 인도네시아 EDCF 자금 집행 현황.....	69
<표 4-11> 이해관계자의 단계별 협의 및 대화 참여도.....	72
<표 4-12> 정부간 협정형태 변화와 사업 추진 소요기간.....	75
<표 4-13> 사업 추진 소요기간 (지원방침결정~구매계약체결).....	76
<표 4-14> 사업 추진 소요기간 비교 (지원방침결정~구매계약체결).....	77
<표 4-15> 사업 추진 일정 대비 목표 달성 현황 (L/A체결~구매계약체결).....	79
<표 4-16> 사업 완공 일정 대비 목표 달성 현황.....	80
<표 4-17> 완공보고서 제출 일정 대비 목표 달성 현황.....	81
<표 4-18> 완공점검 일정 대비 목표 달성 현황.....	82
<표 4-19> EDCF 사업 사후평가 개요.....	83
<표 4-20> 평가대상 사업과 CCSP와의 부합성.....	85
<표 4-21> CCSP 및 EDCF 중기운용계획 상의 우선 지원분야.....	86
<표 4-22> 평가대상 사업과 CCSP 및 EDCF 중기운용계획과의 부합성.....	87
<표 4-23> 평가대상 사업과 수원국 정책의 연관성.....	88
<표 4-24> EDCF의 사업별 계획 대비 지출 비교.....	90
<표 4-25> 이동식 직업훈련사업의 추진 실적.....	93
<표 4-26> 사업실시 병원의 등급 개선 내용.....	94
<표 4-27> 사업 효과성 관련 요인.....	96
<표 4-28> 기대수명의 변화추이 (2000~2007년).....	98
<표 4-29> 유아사망률의 변화추이 (2000~2008년).....	99

그림 목 차

[그림 2-1] Jakarta Commitment의 기본구조.....	19
[그림 2-2] A4DES 조직도.....	20
[그림 3-1]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승인액 추이 (1987~2010년).....	27
[그림 3-2] 대 인도네시아 CCSP 수립 체계.....	28
[그림 3-3] EDCF 사업수행절차 개요.....	36
[그림 3-4] 대 인도네시아 지원형태별 지원현황 (1987~2010년).....	40
[그림 3-5] 대 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현황 (1987~2010년).....	41
[그림 4-1] CCSP의 우선 지원분야와 인도네시아의 우선 개발분야 간 연계성...	49
[그림 4-2] EDCF와 현지부처 간 조율 정도.....	72
[그림 4-3] 이해관계자 간 협의 및 대화 참여도.....	72
[그림 4-4] 수원자 개발정책 전략과의 부합 수준.....	87
[그림 4-5] 수원자 개발 수요와의 부합 수준.....	87
[그림 4-6] 세부적 투입요소의 적합도.....	89
[그림 4-7] 총 예산과 각 예산 항목의 적합도.....	89
[그림 4-8] 재무적 지속가능성.....	101
[그림 4-9] 사업 준비 단계에서 성주류화에 대한 고려 정도.....	104
[그림 4-10] 사업 실행 시 성주류화 관련 활동 여부.....	104
[그림 4-11] 사업 준비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 정도.....	105
[그림 4-12] 사업 실행 시 환경보호 관련 활동 여부.....	105

Box 목 차

<Box 4-1> EDCF의 ICT 분야에 대한 기여.....	95
<Box 4-2> EDCF 보건 분야 사업의 지역 보건지표 개선 효과.....	98

제1장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인도네시아는 1998년 새로운 민주정부의 출범 이후 점진적인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2000년 이후 5~6%대의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그 경제적 지위가 중저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격상되었고 2008년 유도요노 대통령의 재선 이후 중장기 국가 발전계획 하에 각종 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당면한 개발 인프라 및 투자재원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원조를 국가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의 중점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사회 개발 촉진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면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왔다. 1987년부터 2010년 말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승인액은 현재 총 545백만 달러로, EDCF 전체 승인액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EDCF 지원대상국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2005년에 대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nd Program for Indonesia: 이하 CCSP)¹⁾이 마련되고 한-인도네시아 정부 간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이하 F/A)이 체결된 이후 지원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EDCF 지원규모 증가와 유·무상 통합의 국가지원전략 수립에 대비하여 국별 평가를 통해 현재까지의 지원성과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번 국별평가는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전략 및 사업수행절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국가지원전략, 사업수행절차 및 사업 개선을 위한 제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국가지원전략'이라는 개념의 용어는 원조공여자간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으나, EDCF의 경우 처음에는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nd Progra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유·무상 통합 국가지원전략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Country Assistance Strategy(CA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수원국의 주체성 및 양자간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보다 중시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라는 용어로 정립되었음. 본 보고서에서는 CCSP(2006-2009)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2. 평가 대상

본 평가의 대상은 크게 대 인도네시아 CCSP, 사업수행절차 및 지원사업의 세 가지이다. 대 인도네시아 EDCF 지원의 거시적 방향을 수립하는 CCSP와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수행절차,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 인도네시아 지원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평가 대상의 범위는 2005년 수립된 대 인도네시아 CCSP 및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사업수행절차와 지원사업이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대 인도네시아 CCSP의 수립 절차, 내용 및 활용
 - 인도네시아 개발 환경 및 정책의 변화, 한국의 원조 정책 및 전략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
 - 대 인도네시아 CCSP의 수립 절차의 합리성, 내용의 적절성, 실천적 전략으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 향후 대 인도네시아 CCSP 수립 및 활용에 적용 가능한 제언 도출

- ② 대 인도네시아 사업수행절차 전반
 - 사업수행절차의 운용
 - 사업수행절차의 단계별 활동
 - 향후 대 인도네시아 사업수행절차에 적용 가능한 제언 도출

- ③ 15개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
 - 향후 대 인도네시아 사업추진 및 유사사업에 적용 가능한 제언 도출

3.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평가 기준 및 항목

금번 평가의 기본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 위원회(OECD/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원조 평가 원칙(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1991)' 및 'DAC Evaluation Quality Standards (2007)', 한국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평가지침'을 따르되 각 평가 대상별로 적합한 평가 기준 및 항목을 별도로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OECD/DAC에서 평가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원국 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다각적 조사·분석 및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CCSP는 절차의 합리성, 내용의 적절성, 집행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절차는 각 단계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항목은 평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였다.

<표 1-1> OECD/DAC의 개발협력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내용
적절성(Relevance)	개발 사업의 목표들(objectives)이 수혜 대상의 필요(need)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수혜국과 공여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효율성(Efficiency)	여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성과로 전환된 정도
효과성(Effectiveness)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영향력(Impact)	개발 사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의 전체적인 결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업종료후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도

15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① 적절성(Relevance) ② 효율성(Efficiency) ③ 효과성(Effectiveness) ④ 영향력(Impact) 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표 1-1 참조). 이에 더하여, CCSP는 물론 개별 사업 추진에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범교차 분야 이슈를 평가 항목으로 고려하였으며, 각 사업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 평가 항목 및 문항을 추가하였다. CCSP, 사업수행절차 및 사업의 전체 평가 대상별 주요 평가 기준 및 항목과 조사 내용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주요 조사 내용
CCSP 평가		
절차의 합리성	1-1. 수립 절차 및 방식, 관계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SP 수립절차가 명확한가? ▪ ODA 관계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의견 수렴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내용의 적절성	1-2. 지원전략의 기본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전략의 구성 체계가 적절한가?
	1-3. 상위 정책·전략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ODA 정책 및 EDCF 중기운용계획 등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
	1-4. 수원국 전략수요와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의 국가발전 비전과 개발전략, 계획 등에 잘 부합하는가?
	1-5. 원조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원조수단, 타 원조공여국과의 조화 및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1-6.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제 달성에의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Gs, PD/AAA에 부응하는가?
실천전략으로서의 활용성	1-7. 실천적인 전략으로서의 활용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서의 활용성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수행절차 평가		
사업수행 절차의 적절성	2-1. 사업수행절차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절차가 잘 운용되고 있는가?
	2-2. 단계 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단계 간 연계는 적절한가?
	2-3. 단계별 활동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단계별 활동에 적절한 인력투입 및 참여, 기간배정 등이 되고 있는가?
사업수행 절차의 효율성	2-4. 단계 간 소요기간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은 적절한가? ▪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은 개선되고 있는가?
	2-5. 추진 일정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가?
사업 평가		
DAC 5대 기준	3-1. 적절성(Relev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CCSP 및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부합하고, 적절한 계획과 방식으로 추진되었는가?
	3-2. 효율성(Ef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과정은 효율적이었는가?
	3-3. 효과성(Effec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와 수원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 기여도는?
	3-4. 영향력(Im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주민, 지역사회, 경제적 편익, 사회 복지 증진, 제도적 환경에 미친 영향은?
	3-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기술적, 경영적 지속가능성은 어떠한가?
범교차분야 이슈	3-6. 환경 및 성주류화 이슈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성주류화를 고려하였는지?

나. 평가 및 조사 방법

본 평가 과제는 EDCF의 요청에 따라 한국개발전략연구소(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 이하 KDS)가 위탁받아, 독립 기관에 의한 외부 평가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국내조사 및 인도네시아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문헌조사, 설문 및 면담조사, 현장조사, 현지 공동평가 워크숍 등의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여 균형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 문헌조사

CCSP 평가를 위해서 한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정책 문서 및 EDCF 중장기 운용계획, 대 인도네시아 CCSP, 한-인도네시아 정책협약 결과보고서와 인도네시아 중장기 개발계획 및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인도네시아 국별보고서, MDG 달성 보고서 등의 각종 개발 관련 문헌, 타 공여기관의 국별지원전략 문서들을 검토하였다. 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각종 전략 문헌을 포함하여 개별사업의 심사보고서,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보고서 등의 문서들을 통해 사업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수행절차 평가를 위해서는 CCSP 및 사업 평가 문서를 비롯하여, EDCF 관련 규정과 각종 가이드라인 등 EDCF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문서를 검토하였다.

2) 국내 면담조사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을 수행한 국내 컨설턴트와 공급자와의 면담 및 서면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변경사항, 애로사항, 사업의 지속가능과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 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를 관리하는 한국의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EDCF, 외교부, KOICA의 인도네시아 담당자와도 면담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 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현황 및 향후 전망, 연계 및 통합과 관련한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3) 현지 설문 및 면담조사, 현장조사

현지조사를 위해 국내 사전조사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현지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EDCF 관계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CCSP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현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현지조사를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이하 BAPPENAS), 개별 사업실시기관, 타 공여기관, 현지 NGO 등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각 사업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지자료 수집, 국내조사 결과와의 비교 및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의 실시현황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4) 현지 공동평가 워크숍

현지 공동평가 워크숍에서는 현지 설문 및 면담조사, 현장조사를 기초로 마련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팀의 평가발표 및 BAPPENAS 측의 EDCF에 대한 평가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상호 간에 평가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였다. 동 워크숍에는 BAPPENAS를 비롯하여 사업실시기관 및 타 공여기관, 현지 NGO 등 인도네시아 관계 부처 및 기관 뿐 아니라 EDCF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5)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평가 보고서 초안을 국내의 인도네시아 전문가 및 개발협력 전문가, 인도네시아 정부, 타공여기관 전문가, 현지 NGO에게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4. 평가 절차 및 연구진 구성

가. 추진 절차

본 평가는 크게 평가 계획 수립 및 방법론 설계 → 조사·분석(문헌조사, 국내외 설문 및 면담조사) → 결과 분석의 절차로 수행하였다.

1) 평가 계획 수립 및 방법론 설계

동 평가를 위해 평가연구진은 EDCF 평가팀과의 협의를 통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 등을 설정하였다. 평가 대상은 CCSP, 사업 수행절차 및 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 대상별로 평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평가 기준은, OECD/DAC의 5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 실시에는 있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평가지침을 활용하였다. 또한 평가 대상의 특성에 따라 CCSP는 전략 및 계획 수립 절차, 내용, 활용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사업수행절차는 사업추진과정 전반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은 OECD/DAC의 5대 평가 기준과 함께 범교차 분야 이슈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연구진은 EDCF 본부 및 현지 주재원, 그리고 EDCF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평가업무 협조관계를 갖추고, 현지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평가수행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수집 및 국내외 면담조사, 현지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EDCF 및 NGO 전문가들로부터 본 국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자문 받았다.

2) 조사·분석 단계

평가를 위한 조사·분석은 크게 문헌조사와 국내외 면담 및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병행하며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를 위해 CCSP 및 사업수행절차, 사업 평가와 관련한 국내외 각종 정책 문서 및 가이드라인, EDCF 개별사업의 심사보고서, 완공점검, 사후평가 보고서 등 인도네시아 국별 평가에 필요한 제반 문서를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국내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EDCF 전략 수립 및 사업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로부터 평가를 위한 기본정보와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한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을 수행한 국내 컨설턴트와 공급자와의 면담 및 서면조사를 통해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 등을 조사·검토하였다.

현지조사는 조사·분석 단계의 중반에 실시하였으며, 우선 현지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EDCF 관계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EDCF에 대한 현지 의견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현지

관련 기관(BAPPENAS 및 사업실시기관, 타공여기관, 현지 NGO)과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다. 또한 현지 공동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인도네시아 관계 부처 및 기관 뿐 아니라 EDCF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평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문헌조사 및 면담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3) 결과분석 단계

문헌조사, 국내외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하고,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CCSP 및 사업 수행절차, 사업 등 대 인도네시아 EDCF 지원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보고서 초안에 대해 KDS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인도네시아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이를 회람하고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나. 평가연구진 구성

평가연구진은 수시로 업무협의 및 상호 의견 교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가의 방향 및 내용을 점검하고 조정하였다. 연구진별 담당분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평가 연구진

구 분	이름 및 직책	역 할
국내 연구진	전승훈 원장 (K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총괄관리 품질관리 및 감독
	이경구 이사 (K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국가지원전략 평가
	배성일 연구위원 (K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 및 교통 분야 사업평가
	전홍민 연구위원 (K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ICT 분야 사업평가
	이주현 책임연구원 (K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절차 평가
	김형곤 연구원 (K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보고서 작성 지원
현지 연구진	Manembu Niesje Ang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국 개발사업 전반 현황조사 현지 설문 및 면담조사, 현장조사, 워크숍 자문
	Evi Noor Afifah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설문 및 면담조사, 현장조사, 워크숍 지원

5. 평가보고서 구성

본 평가보고서는 전술한 평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대 인도네시아 국별 평가의 기초 작업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개발 환경과 정책을 제2장에서 다루고, 이어서 본 연구의 평가 대상인 대 인도네시아 CCSP, 사업수행절차 및 사업을 제3장에서 살펴본다.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제4장에서는 평가 대상별로 주요 평가 항목 및 조사 내용에 따라 평가 내용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전 장의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 평가 의견을 기술하고, 향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지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제2장 인도네시아의 개발 환경과 정책

1. 인도네시아의 개발 환경

가.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4위의 인구 대국²⁾이자 ‘땅과 물의 나라(Tanah dan Air)³⁾’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최대의 도서국이다. 2억 4천만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족과 토착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도서국으로서의 특징과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여 조화로운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이른바 ‘판차실라(Pancasila)⁴⁾’라는 국가 이념을 설정하고 ‘다양성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을 추구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주권을 상실하고 식민 통치를 받았으나, 1945년 독립 이후에는 제3세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심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서 독립 이후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50여년 이상 지속되었으나, 1997년에 촉발된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괄목할만한 정치·사회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치 개혁과 정부 혁신을 통하여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를 청산하고 급속한 민주화를 진전시켰다.

2004년과 2009년에 연이어 대통령 직선을 실시하고, 지방 분권화와 지방 자치 정책 등을 추진하여 인도네시아는 현재 민주주의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는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는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2) 인도네시아 2010년 인구조사 결과 2억 3,756명의 인구를 기록함

3)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16번째로 넓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 폭넓게 산재되어 있는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임

4) 헌법에 명시된 건국 5대 이념으로, ① 유일신에 대한 믿음 ② 정의롭고 문명화된 인본주의 ③ 인도네시아의 통일 ④ 현명한 대의제적 협의체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 ⑤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사회정의를 의미함

나. 경제 발전의 맥락

1998년까지 약 30년간의 수하르토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는 권위주의적 통치 하에서 정책 운영의 한계, 부의 집중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뚜렷한 개발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인 장기 집권 과정에서 초래된 부정부패, 정부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1997년에 촉발된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1998년에 인도네시아 경제는 무려 13.1%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실업률은 20%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8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정부 혁신, 경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순조롭게 추진되었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5.4%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유도요노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6.6%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다.⁵⁾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4.5%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6.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대외 거래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 경제는 큰 규모의 상품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⁶⁾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지위가 저소득국에서 중저소득국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또한 경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개발 정책 및 투자 촉진 전략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경제는 향후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⁷⁾

5) BAPPENAS (2010),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5 of 2010 Regarding the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10-2014 Book 1, p.9 참조

6)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11), Country Report Indonesia, February 2011, p.8 에 따르면, 2010년 인도네시아의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59억 달러와 6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7)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11), Country Report Indonesia, February 2011, p.17 에 따르면, 향후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는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 대외 정책과 국제 개발협력

인도네시아는 전후 독립과 함께 매우 독자적인 대외정책 노선을 견지하였다.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을 통해 제3세계의 부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의 집권 후기에는 친사회주의 성향을 강화하면서 반서방 대외정책 노선을 견지하기도 하였다. 이후 수하르토 대통령의 신질서 체제가 수립된 1969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계속 독자적이면서도 온건한 대외 정책 노선을 견지하는 한편, ASEAN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지역안보, 정치,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지역협력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지위와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 경제적 발전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교류와 협력 관계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이를 자국의 이익 극대화와 영향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회교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OIC(The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 회원국의 하나로 활동하며 다른 회교권 국가들과의 연대를 도모하는 한편, 이스라엘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포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일본과의 경제협력협정(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등을 통해 주요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국제 개발협력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큰 규모의 개발 원조를 받아왔다. 최근 양허성 차관의 상환으로 순 원조(Net ODA)의 규모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연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원조(Gross ODA)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개발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입장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고 있다. 2009년 1월 Jakarta Commitment의 마련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제 개발협력을 국가 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DAC의 원조효과성 실무단(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WP-EFF)이 만든 남남협력팀(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TT-SSC)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2010-2014 제2차 중기개발 계획에도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국제 개발협력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력의 신장과 함께 UN의 국제평화유지군의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한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정책

가. 개발 정책의 기초

수하르토 대통령의 집권 이후 2004년 유도요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25년 단위의 국가장기개발계획(Long-term Development Plan: PJP)과 5개년 개발계획(Five-year Development Plan: Repelita)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국가장기개발계획(PJP I 1969-1993)과 제2차 국가장기개발계획(PJP II 1994-2018)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5년 단위의 중기개발계획이 추진되었다.

2004년에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새로운 국가개발기획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국가개발기획법(Law No. 25 on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반영하여 200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장기개발계획(The National Long-term Development Plan: RPJPN)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에 바탕을 둔 5년 단위의 국가중기개발계획(The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RPJMN)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1차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I 2005-2009)과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II 2010-2014)에서는 국가개발 우선과제의 설정과 함께 'Renstra'라고 불리는 전략 계획(The Strategic Plan)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연간정부업무계획(The Annual Government Work Plan: RKP)의 수립·시행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나. 국가장기개발계획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은 1945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헌법(The Preamble of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 과제⁸⁾의 실현을 위한 장기 국가개발 비전과 목표를

8) 인도네시아의 1945년 헌법은 자유롭고, 통일되고, 자주적이고, 공정하고, 번영된 독립 국가의 건설을 당면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제시하고 있다.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에서 제시된 국가개발 비전과 목표는 ‘자립적이고, 선진화되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인도네시아 (Indonesia that is self-reliant, advanced, just and prosperous)’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국가장기개발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계적인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에서는 202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단계적 국가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목표는 국가 제도 전반의 개혁을 바탕으로 개발 역량의 강화와 국가 경쟁력의 제고 등을 통해 자립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다. 국가중기개발계획

1) 제1차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I 2005-2009)

2004년 유도요노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가중기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안정된 경제를 바탕으로 수립된 제1차 국가중기개발계획은 국가 전반의 혁신을 중시하였다. 새로운 정치 체제하에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 정의의 실현을 우선 하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⁹⁾ 따라서 국가의 장기 발전 비전을 실현해가는 1단계 계획으로 ①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 건설 ②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 건설 ③ 번영된 국가 건설 등 3대 과제를 개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3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 (Priorities)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표 2-1 참조).

9) BAPPENAS (2003), Government Regulation No. 7 on the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RPJMN I 2004-2009) 참조

<표 2-1> RPJMN I (2005-2009)의 개발 목표 및 중점과제

개발 목표	중점과제
(1)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네시아 건설	① 안전 및 안보 의식 강화 ② 판차실라에 입각한 강한 인도네시아 건설 ③ 국내외적으로 평화로운 인도네시아 발전
(2) 정의롭고 민주적인 인도네시아 건설	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법과 제도 구축 ② 성 평등 추진 ③ 지방자치 및 분권화 추진 ④ 관료주의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강화 ⑤ 2009년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실시
(3) 풍요로운 인도네시아 건설	① 빈곤인구 및 실업률 감소 - 2009년까지 빈곤인구비율을 8.2%, 실업률을 5.1% 이하로 감소 - 연평균 6~7% 경제 성장(2009년 7.1%) ② 지역간 개발 격차 축소 ③ 인간개발지표(HDI) ¹⁰ 향상 ④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개선 ⑤ 개발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자료: BAPPENAS(2003), *Government Regulation No. 7 on the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RPJMN I 2004-2009)*.

2)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II 2010-2014)

가) 개요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은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2단계 국가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종합적 개발계획이다. 풍요로운 국가 건설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어 국가개발 우선과제를 선정(Book I: Strategy, General Policies and Macroeconomic Framework)하고 주요 부분 개발을 위한 부문별 개발전략(Book II: Sector Development Strategy)과 함께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전략(Book III: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표 2-2 참조).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에서는 관료조직과 정부 개혁, 교육, 보건 등 11개를 국가 우선과제(National Priorities)로 선정하고, 각 과제별 실행프로그램(Action Program)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우선과제와 함께 정치 및 안보, 경제, 국민 복지 등의 기타 3개 분야 과제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표 2-2 참조).

10) 인간개발지표(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UNDP가 전 세계 각 국가의 실질 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의 지표를 통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임

<표 2-2>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의 우선과제

1) 11개의 국가개발 우선과제(11 National Priorities)	
① 관료조직과 정부 개혁	② 교육
③ 보건	④ 빈곤감소
⑤ 식량 자급	⑥ 사회기반시설
⑦ 투자 및 기업 환경	⑧ 에너지
⑨ 환경 및 재난 관리	⑩ 저개발된 변방, 외곽 및 탈분쟁 지역 개발
⑪ 문화, 독창성, 기술혁신	
2) 기타 3개 우선과제(3 Other Priorities)	
① 정치, 법, 안보	② 경제
③ 복지	

자료: BAPPENAS (2010),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5 of 2010 Regarding the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10-2014 Book 1.*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은 Book II에서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문화 및 종교, 경제, 과학기술 등 9개 부문의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전략에는 수마트라 지역을 위시한 전국의 주요 7개 지역과 5개 도서지역에 대한 각각의 개발전략이 수립되었다(표 2-3 참조).

<표 2-3> 부문별 개발전략 및 지역개발전략

1) 부문개발전략의 9개 부문	
① 사회문화 및 종교	② 경제
③ 과학기술	④ 사회기반시설
⑤ 정치	⑥ 치안 및 국방
⑦ 법과 국가 권력구조	⑧ 지역발전 및 공간계획
⑨ 천연자원과 환경	
2) 지역개발전략의 12개 지역	
대규모 섬 지역 개발	연안 개발
① Sumatra Region	① Sumatra Seas
② Java-Bali Region	② Malaka Strait Seas
③ Kalimantan Region	③ Java Seas
④ Sulawesi Region	④ Makassar-Buton Seas
⑤ Nusa Tenggara Region	⑤ Banda-Maluku Seas
⑥ Maluku Region	
⑦ Papua Region	

자료: 상동

나) 개발 투자계획

인도네시아는 제2단계 중기개발계획 기간 중에 6.3~6.8%의 연평균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1조 3,950억~1조 4,59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약 2,680억 달러 규모로,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약 82%를, 공공부문에서 나머지 18%를 조달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투자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기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을 위한 투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 2-4 참조).

<표 2-4> 공공부문 중기 예산 계획 (2010~2014년)

(단위: 조 IDR, ()내 숫자는 %)

부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2014
사회개발	103.8 (30.5)	118.8 (29.8)	134.3 (30.4)	153 (31.8)	175.6 (32.2)	685.5 (31.1)
국방·안보	69.5 (20.4)	74.1 (18.6)	83.6 (18.9)	83.5 (17.3)	103.5 (19.0)	414.2 (18.8)
사회기간시설	85.5 (25.1)	118.3 (29.6)	129.9 (29.4)	142.2 (29.5)	153.5 (28.2)	629.4 (28.5)
정부행정	26.1 (7.7)	25.9 (6.5)	27.1 (6.1)	28.3 (5.9)	30.7 (5.6)	138.1 (6.2)
기타	55.2 (16.2)	62.1 (15.6)	66.6 (15.1)	74.4 (15.5)	81.5 (15.0)	339.8 (15.4)
합계	340.1 (100.0)	399.2 (100.0)	441.5 (100.0)	481.4 (100.0)	544.8 (100.0)	2,207.0 (100.0)

자료: BAPPENAS (2010), *The 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lan(RPJMN II 2010-2014)*, Presentation Material by Dr. Lukia Dinarsagar Tuwo

특히, 국가개발 투자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다양한 투자재원 조달처 및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이래 대외 채무의 도입 규모를 상환 규모보다 적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대외채무 규모를 줄여나가는 대신 정부채권의 발행 확대를 통하여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¹⁾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연대하여 투자를 계획하는 이른바 민관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방식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¹²⁾ 한편, 국제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³⁾

11) Ministry of Finance (2011), Government Debt Securities Management, p.3 참조

12) BAPPENAS (2010),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5 of 2010 Regarding the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10-2014 Book 1, p.86 참조

13) Global bond, Sukuk global, Samurai bond 등의 자금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 인도네시아의 수원 정책

가. 인도네시아의 수원 체계

인도네시아의 수원 정책 및 체계는 2006년 10월에 강화된 원조관리지침 (대외원조관리 대통령령, Government Regulation No.2)¹⁴⁾에 따라 대외수원 사업 총괄기관인 BAPPENAS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종합적인 정책 협의 및 사업 요청 등 사업 준비는 BAPPENAS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실행 관련 예산계획 등은 재무부가 담당한다.¹⁵⁾ BAPPENAS가 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와 사업실시기관 및 원조 공여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고 재무부가 차관계약의 체결 및 관련 재정 운영 사항을 관리하는 보완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별 원조공여기관과의 양자정책 대화채널과 Jakarta Commitment¹⁶⁾를 통한 다자 협의 채널을 동시에 가동하여 원조의 일치와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각종 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채무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선정 및 시행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2006년 원조 관리지침 공포 이후 Blue Book¹⁷⁾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원조 공여자가 지원의사를 표명하면, 해당사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Green Book에 등재하여 원조사업으로 추진한다. 공여자와 최종적으로 추진 방안이 확정된 사업은 이를 Brown Book에 등재하고 공여 기관과 예산 분담 계획 등을 협의하여 정부 예산사업으로 반영하는 등의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14) Indonesian Government (2006),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2 on Procedure for the Procurement and Forwarding of Loans/Grants 참조

15) 한국국제협력단 (2009),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 및 지원사업 종합평가, p.32 참조

16)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서술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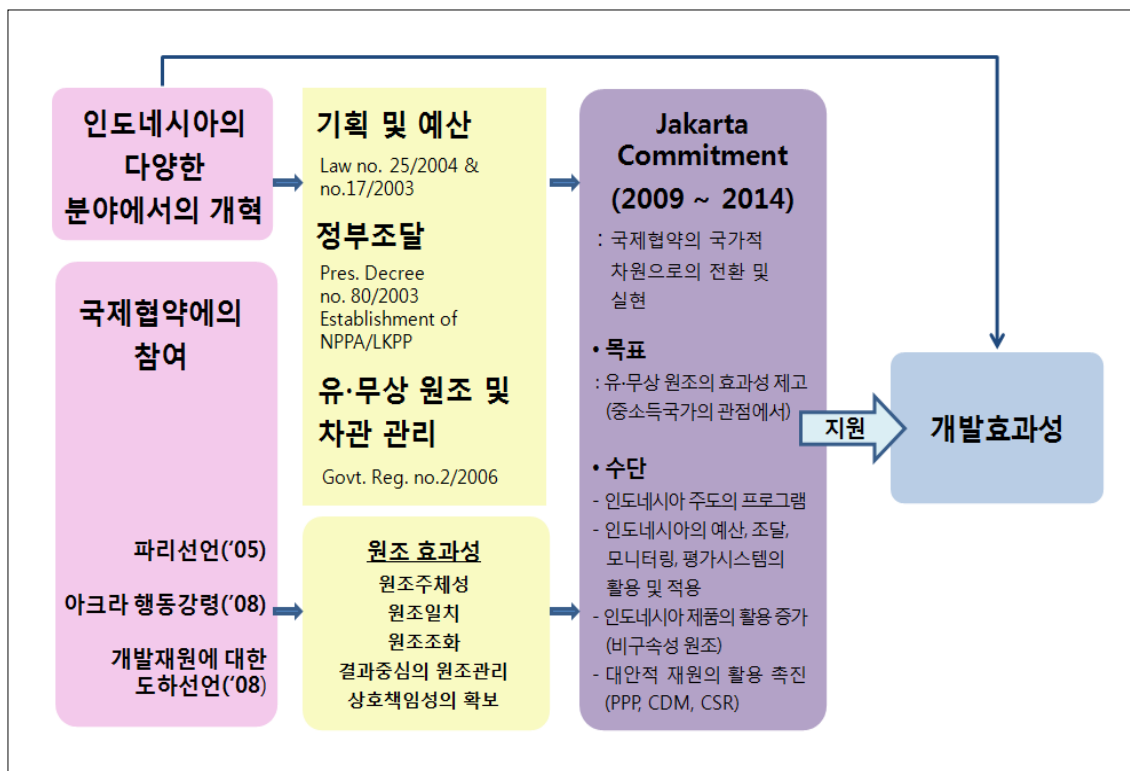
17) 2006년에 시행된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2 on Procedure for the Procurement and Forwarding of Loans/Grants'에 근거하여 마련되는 인도네시아 개발기획문서의 하나로 국가중기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개발사업 중에서 대외원조를 통하여 시행이 요구되는 사업목록 개요임. 각 정부부처, 지방정부, 공기업 등으로부터 요청된 사업을 BAPPENAS가 검토하여 그 적격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공포하고 있음

나. 인도네시아의 수원 정책

1) Jakarta Commitment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 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주요 원조 공여 기관들과의 사업 협의와 조정, 원조 일치 및 조화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9년 1월에 'Jakarta Commitment: Aid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 Indonesia's Road Map to 2014'를 원조 공여기관들의 서명 하에 시행하였다. Jakarta Commitment의 새로운 구조 하에서 추진되는 원조사업은 단순히 국내 개발재원의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적인 지식과 개발의 모범 사례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⁸⁾ [그림 2-1]에서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 Jakarta Commitment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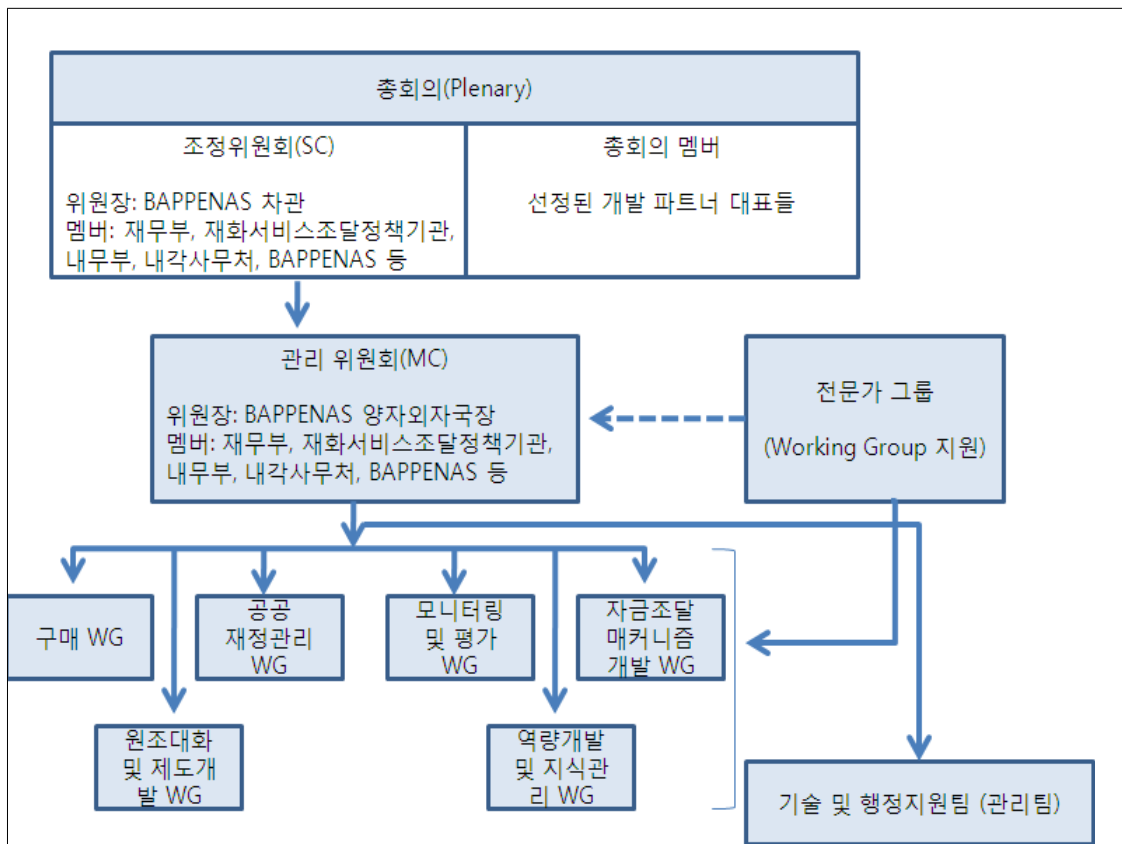
주: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자료: Indonesian Government (2009), *Jakarta Commitment: Aid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 Indonesia's Road Map to 2014*.

18) BAPPENAS (2011), Korea's EDCF Strategy for Indonesia, 4 March 2011, 현지워크숍 발표자료

인도네시아 정부는 Jakarta Commitment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이른바 A4DES(Aid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Secretariat)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2-2 참조). 여기에는 BAPPENAS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조정위원회(GOI Steering Committee: SC)와 BAPPENAS의 양자외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C)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부처의 관료, 해당분야 전문가, 주요 원조공여기관 대표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 작업반은 구매, 원조 대화 및 제도 개발, 공공재정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개발 및 지식 관리, 자금조달 메커니즘 개발 등 6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해당 분야 개발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 원조사업 협의와 조정 등을 하고, 이를 통하여 원조 일치와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2-2] A4DES 조직도



2) 대외차관관리 대통령령(Government Regulation No.7)

2011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대외차관의 도입과 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Presidential Regulation No. 7 of 2011 on Foreign Loan Plan Needs 2010-2014)¹⁹⁾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대외차관을 개발 우선분야에 적절히 활용하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를 선별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등과 협동의 원칙하에 차관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모든 차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조달 및 재정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차관²⁰⁾ 활용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 기간 중 차관사업의 추진은 ① 국가의 재정 능력 고려 ② 국익 보호 ③ 자립 달성 ④ Jakarta Commitment의 이행 ⑤ 자금 차입과 관련한 위험 관리의 강화 ⑥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확보 등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관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① 공공서비스 제공 ② 재화와 토지 사용의 확대 ③ 혁신적인 재원조달 ④ 성장, 고용창출, 빈곤해소 ⑤ 지역균형개발 ⑥ 과학기술 및 지식 이전에 기여하는 등의 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외에 특히 주목할 점은 향후 대외 차관의 GDP 대비 비중은 물론 절대적 규모도 점차 감소시킨다는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GDP 대비 공공차관의 비중을 2010년 0.56~0.58%의 수준에서 2014년 0.36~0.44%의 수준으로 점차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표 2-5 참조). 이는 ‘국가채무관리전략(2010-2014)’²¹⁾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외채무 감소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표 2-5> 공공차관 관리 목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GDP대비 공공차관 도입 비중(% ^{주)})	0.56~0.68	0.56~0.69	0.40~0.60	0.41~0.50	0.36~0.44

주: 연간 대외로부터 도입되는 공공차관 규모 기준으로, 총 잔액 기준으로 그 규모가 산출되는 대외 채무(Foreign Debt)와는 다른 개념의 수치임

자료: Indonesian Government (2011), *Presidential Regulation No. 7 of 2011 on Foreign Loan Plan Needs 2010-2014*.

19) Indonesian Government (2011), Presidential Regulation No. 7 of 2011 on Foreign Loan Plan Needs 2010-2014.

20) 정부나 법인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증여받거나 빌리는 것을 뜻함

21) Ministry of Finance (2011), National Debt Management Strategy 2010-2014 참조

4. 국제사회의 대 인도네시아 ODA 지원현황

가. 지원현황과 주요특징

국제사회는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제공해 왔으며 그 규모도 증가해 왔다. 이 중 양자원조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은행(The World Bank: 이하 W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등 다자간 개발금융기구의 지원 비중이 증가하여 지난 5년간 다자기구의 지원 비중이 총 원조액의 10%에서 20% 정도의 수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991년 이후 인도네시아에 제공된 양자간 원조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이 총 238.1억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공여국 중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호주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의 제공 추세를 보면 일본, 독일의 지원 비중은 감소한 반면, 미국, 호주, WB는 증가 추세에 있다(표 2-6 참조).

<표 2-6> 대 인도네시아 ODA 지원현황 (1991~2009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1~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비율(%)
일본	17,655.5	1,342.8	1,018.3	1,058.1	1,323.8	1,415.9	23,814.3	51.7
독일	3,127.2	200.3	225.9	254.6	237.5	159.4	4,204.8	9.1
미국	1,618.9	157.9	281.2	243.7	239	274	2,814.7	6.1
호주	1,141.2	184.7	240.2	335.1	325.2	342.1	2,568.5	5.6
한국	158.2	19.3	21.4	31.2	23	31.8	284.8	0.6
양자간	41,070.53 (최근 5년간 12,863.4)						89.2(81.0)	
WB	409.3	67.2	315.4	219.1	493.6	274.7	1,748.4	3.8
ADB	548.5	69	109.5	139.9	59.9	180.7	1,107	2.4
다자간	4,960.44 (최근 5년간 3,031.2)						10.8(19)	
지원 총액	30,136.4	2,829.5	2,971	2,890.7	3,523.4	3,680	46,031	100

주: 총지출기준

자료: OECD/DAC, StatExtracts. 2011. 4.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유상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전체 공여금액의 73.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²²⁾ 그 다음을 독일과 미국, 호주,

22) 인도네시아정부는 차관 통계에 있어서 OECD/DAC의 원조통계의 대상이 되는 양허성 차관과 그 대상이 포함

한국이 따르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WB가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DA)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해 왔으나 인도네시아가 중저소득국으로 발전하면서 이를 중단하였으며, 2005년 이후 ADB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양허성 차관 제공을 중단하였다(표 2-7 참조). 그러나 WB와 ADB는 최근에 양허성 차관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 일반 조건의 차관 제공은 증가시켰다.²³⁾

<표 2-7> 대 인도네시아 유상원조 현황 (1987~2009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87~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비율(%)
JICA	25,272.8	1,502.2	825.3	1,244	1,097.5	1,414	31,355.8	73.6
KfW	3,044	97.4	19.2			44.6	3,205.2	7.5
USAID	220.5		19.3	19.3			259.2	0.6
AusAid			150.6		6.9	83.5	240.9	0.6
EDCF	185.5	25.7	53.0		59.0	91.0	414.1	1.0
양자간	39,933.8(최근 5년간 4,744.7)							93.8(85.9)
WB	601.1	231.4	275.0	380.0	315.0		1,802.5	4.2
ADB	628.9						628.9	1.5
다자간	2,650.7(최근 5년간 2,054)							6.2(14.1)
지원 총액	33,715.9	2,829.5	2,971.0	2,890.7	3,523.4	3,680.0	42,584.5	100.0

주: 승인액 기준, EDCF 통계에 의하면 2009년까지 인도네시아로의 EDCF의 양허성 차관의 총계는 406백만 달러로 OECD/DAC의 통계와 차이가 나는바, 적용 기준 환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OECD/DAC, StatExtracts. 2011. 4.

나. 원조 추이와 시사점

인도네시아 개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표 2-8 참조).

하지 않는 차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고 차입 주체가 정부가 되는 개발차관을 **공공차관으로**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음

23) WB는 인도네시아를 유상원조를 지원하는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DA) 대상국에서 IDA와 일반차관을 지원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두 개 기관으로부터 수혜가 가능한 Blend 대상국으로 설정함. ADB 또한 인도네시아를 유상원조인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DF) 대상국에서 일반자원(Ordinary Capital Resources: OCR) 지원대상국으로 설정함

<표 2-8> 주요 공여기관별 원조 전략

공여기관	개발 목표	우선 분야
WB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정부프로그램의 수행 개선 및 관련 기관들의 역량 강화 	민간부분 활성화, 인프라개발, 공동체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서비스 개선,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재난 대비
ADB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사회적 인프라 개선과 공공·외부 민간부분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성장, 고용창출, 빈곤감소 	농업, 천연자원관리, 에너지, 교통과 통신, 법 및 공공정책
JICA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 거버넌스 개혁, 빈곤 감소, 지역발전 환경 보호, 평화와 안정 	인프라건설,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
KfW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분야: 기후변화와 환경, 민간부문 성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확대, 굿 거버넌스와 분권화 2차 지원분야: 교통, 보건, 쓰나미 재건지원 	
USAID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목표: 빈곤감소와 글로벌 위협 경감 중점 목표: 교육의 질 향상, 천연자원의 관리 개선, 민주적 거버넌스 정착, 보건 환경 개선 	교육, 환경, 민주적 거버넌스, 보건, 경제 성장, 재난피해 복구
AusAID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구조개혁 지원을 통한 향상된 경제 운용 - 교육 및 보건 등 기초 서비스의 질 및 접근성 향상 - 법적 및 사법적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제도 및 실행 강화 - 반 테러리즘과 분쟁 예방을 통한 안보 및 안정성 강화 	모자보건 향상,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 기후변화 대응

자료: 1) World Bank (2009), *Country Partnership Strategy(2009 - 2012): Investing in Indonesia's Institutions*.
 2) ADB (2006), *Indonesia Country Strategy and Program 2006-2009*.
 ADB (2009), *Indonesia Fact Sheet*.
 3) JICA (2007), *Priority Areas for JICA's Cooperation Indonesia*.
 4) KfW 홈페이지, 2011. 4
http://www.kfw-entwicklungsbank.de/EN_Home/Countries%2c_Programmes_and_Projects/Asia/Indonesia/Priority_areas_of_cooperation.jsp
 5) USAID (2009), *USAID Indonesia Strategy 2009-2014: A Partnership for Prosperity*.
 6) AusAid (2008),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Country Strategy 2008-13*.

양자원조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 구축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각 공여국의 관점에 따라 새로운 지원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최대 원조 공여국인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지역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빈곤퇴치와 지역격차 해결, 경제적 안정을 위한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AusAID)와 미국(USAID)의 경우에는 각각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 외교적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독일과 영국 등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수준 향상에 따라 원조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²⁴⁾

다자원조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원 정책 및 대외채무관리 시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 전략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WB와 ADB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적 역량 향상 및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주요 원조 공여기관들은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의 촉진 및 빈곤 감소, 인프라 개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향상 등 기존의 중점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 향상, 환경 개선 및 천연자원 관리 강화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개발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지원 추세 변화는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원조 전략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여타 주요 원조 공여기관들의 중점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제도적 역량 강화 및 개혁 과제 지원, 인프라 개발,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개선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따라서 EDCF는 이와 같은 지원분야 중에서 지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부문에서 타 공여기관들과의 조화를 도모하거나, 타 공여기관들과 차별화를 두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 및 대외원조전략에 부응하는 분야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⁵⁾

24) '출구 전략'이란 당초에 설정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조를 중단하고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Angel Manembu (2009), Evaluation of KOI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에 따르면, 영국은 2011년, 독일은 2012년을 목표로 각각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25) BAPPENAS (2011), Korea's EDCF Strategy for Indonesia, 4 March 2011, 현지워크숍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중진 원조공여국(Middle Lender)'의 지위로 그 역할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타 주요 원조 공여기관들과는 차별화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제3장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전략 및 실적

1.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ODA 개관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무상 원조 제공 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31.7백만 달러였으며, 이는 베트남, 몽골 및 앙골라에 대한 원조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또한 2009년까지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누적 규모는 유상 원조 177.1백만 달러, 무상원조 107.7백만 달러로 총 284.8백만 달러에 이른다 (표 3-1 참조).

인도네시아는 EDCF가 설립된 1987년부터 EDCF의 중요한 지원대상국이었으며, EDCF 중점지원국의 개념이 도입된 1992년 이후부터는 중점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왔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무상원조에 있어서도 과거 19개 중점협력대상국 중 하나로 중요한 지원대상국이었으며, 2010년 유·무상 원조를 통틀어 선정한 26개 중점협력국에도 포함되어 있다.²⁶⁾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중요한 지원대상국으로 위치하고 있다.

<표 3-1>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91~'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무상원조	34	11.3	20.3	16.5	10.7	14.9	107.7
유상원조	124.2	8	1.1	14.7	12.3	16.8	177.1
합 계	158.2	19.3	21.4	31.2	23	31.7	284.8

주: 총지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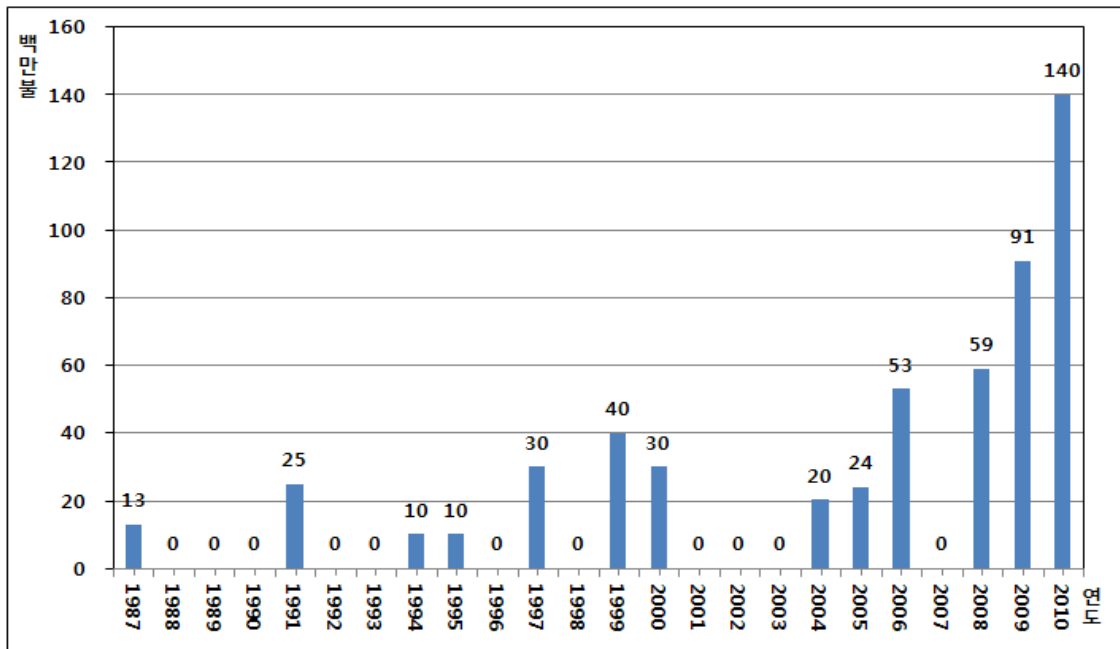
자료: OECD/DAC, StatExtracts. 2011. 4.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는 2010년 말까지 승인기준으로는 545.1백만 달러(EDCF 총 승인 금액의 8.5%), 집행 기준으로는 211.2백만 달러(EDCF 총 집행 금액의 7.8%)가 제공되었다. EDCF의 인도네시아 지원규모는 지원 초기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신규 사업 지원 증가에 힘입어 연간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말

2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p.9 및 p.39 참조

현재 EDCF 승인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EDCF 지원대상국 중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EDCF 중점지원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이 커져온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승인액 추이 (1987-2010년)



자료: EDCF 홈페이지, 2011. 4.

2. 국가지원전략(CC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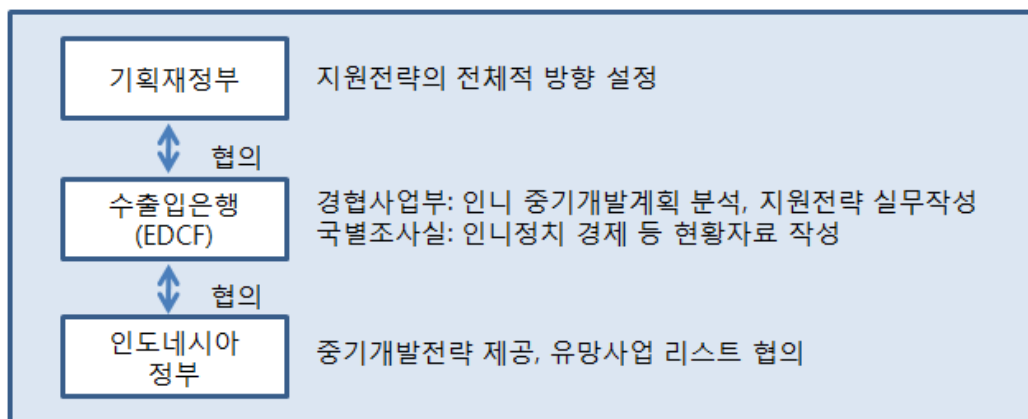
1) 국가지원전략의 수립

EDCF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전략은 2005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우선, 2006년 대 인도네시아 CCSP가 수립 및 시행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EDCF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대상국이었으나, 절대적인 지원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지원분야 또한 한정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 없이, 매년 수립되는 전체적인 EDCF 운용계획의 틀과 방향 하에서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준비되고 시행되었다.

2005년 9월에 EDCF 지원대상국 최초로 대 인도네시아 CCSP가 수립되었다. CCSP 수립 목적은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EDCF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확대하고,²⁷⁾ 중점 지원대상국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가기 위해서였다.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발원조 추진 의지와 함께 2003년의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 선언(Rome Declaration on Aid Harmonization) 및 2005년의 원조 효과에 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PD) 등 원조 효과성 제고와 관련한 국제적 요청에 부응하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2006~2009년 대 인도네시아 CCSP는 EDCF의 운용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 주도하에 수립되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원 전략의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한 관련 정책 및 사업 여건 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EDCF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및 개발 계획을 분석하여 CCSP(안)을 마련한 뒤, 인도네시아 원조사업 주관기관인 BAPPENAS와 협의하여 CCSP를 마련하였다.

[그림 3-2] 대 인도네시아 CCSP 수립 체계



대 인도네시아 CCSP는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적 발전의 맥락과 전망, 정부의 개발전략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의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7) EDCF는 2005년부터 수원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고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중점지원국에 대하여 국가별로 차별화된 3~4년간의 지원목표·전략규모 등을 담은 국별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하여, 2007년 1월에는 필리핀에 대하여 국별 프로그램을 시행함. 재정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 (2007), 대외경제협력 기금20년사, p.111 참조

EDCF는 CCSP가 수립되기 약 1년 전에 출범한 유도요노 신정부의 국가중기 개발계획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발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BHN) 충족 지원을 목표로 두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3억 달러 규모 내에서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 또한 보다 뚜렷한 사업성과를 시현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양국 정부간의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EDCF는 지원분야를 인도네시아의 개발 우선순위와 한국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최우선 지원분야로는 정보통신(ICT) 부문을, 두 번째의 우선순위 분야로 수자원 개발 및 교통 부문을 선정하여 이 부문에서의 유망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이 분야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 인도네시아 CCSP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되어 인도네시아 정부에도 제공되었으며 공동으로 활용되었다. EDCF의 대 인도네시아 CCSP(2006-2009)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3-2>와 같다.

<표 3-2> 대 인도네시아 CCSP(2006-2009)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지원목표	①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②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 충족 지원
(2) 지원전략	① 협력 제공 규모 확대 - 2006~2009년간 3억 달러 제공 ② 선택적 집중 지원 실시 ③ 정책협의를 통한 전략적 사업 추진
(3) 우선지원 부문	① 정보통신(ICT) - 특히 행정전산망, 전자 정부 구축 등 시스템통합(SI) 산업 분야 ② 수자원 개발, 교통 ③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 충족 분야 - 빈곤 퇴치, 교육 등
(4) 원조효과 제고 방안	① 유망사업 엄선 추진 ② 여타 원조 공여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③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²⁸⁾ 활용

자료: 재정경제부 (2005), 대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 2006-2009.

28)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한국의 경제개발 및 경제운용 경험, 지식에 기초하여 개발정책 및 제도와 인력개발 및 네트워킹 위주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주요 개발과제에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컨설팅 사업으로 사업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연구수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임

2) 국가지원전략의 운용

가) CCSP의 시행

CCSP가 마련된 전후의 시기에 한국 대외원조의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와 조치가 있었다. 2005년 말 한국 정부의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2006년 초에는 EDCF 중기운용계획(2006-2009)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²⁹⁾가 구성된 이후,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은 2007년 7월에 마련된 ODA 중기전략(2008-2010)으로 발전되었고, EDCF 중기운용계획(2006-2009)은 2008년에 새로운 중기운용계획(2008-2012)으로 발전되었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한국정부의 ODA 정책 및 전략은 물론 EDCF 지원전략의 추진에서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CCSP는 한국정부의 ODA 정책과 그 기본 추진방향이 일치한다. 2005년 11월에 수립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ODA의 중점지원 분야로 '경제개발경험', '빈곤퇴치',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ICT' 등의 비교우위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에 수립된 ODA 중기전략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촌개발 및 해양수산', '산업 인프라 및 에너지', '환경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CCSP에서도 중점지원분야로 상위의 정부 ODA 정책 및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의 범위 안에서 '정보통신', '수자원 개발 및 교통', '빈곤퇴치,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 인도네시아 CCSP는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립·보완된 EDCF 중기운용계획과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측과의 정책협의 등을 통하여 실행되었다.

29)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 1. 26 제정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의 15개 부처 장관과 KOICA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민간위원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기본 계획의 심의 등 총괄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수립과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음

<표 3-3> 한국의 ODA 정책과 EDCF 중기운용계획 주요내용

1. ODA 정책의 주요 내용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2005.11)	ODA 중기전략 2008-2010 (2007.7)	ODA 선진화계획 (2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위상의 제고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등 국익의 증진을 위하여 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 ◦ 2015년까지 ODA 수준을 DAC평균인 GNI의 0.25%까지 향상 ◦ 경제개발경험, 빈곤퇴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IT 등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지식기반중심의 제도 역량 배양 등 새로운 분야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 규모 확대 : 2010년 ODA/GNI 0.109% 달성 ◦ 유상지원의 70% 아시아 지역 지원 ◦ 협력잠재력 및 인프라 수요가 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대해 유상원조 사업 우선 지원 ◦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촌개발 및 해양수산, 산업인프라 및 에너지, 환경보호 등의 분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 규모 확대 : 2015년 ODA/GNI 0.25% 달성 ◦ 유·무상비율 40:60 유지 ◦ 비구속성비율 2015년 75% ◦ 아시아 최우선 지원기조 유지 ◦ 유·무상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 시행 ◦ 원조 수요가 많은 경제, 보건의료,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 건설, 산업에너지, 환경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개발 및 지원
2. EDCF 중기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2006-2009 EDCF 중기운용계획(2006.1)	2008-2011 EDCF 중기운용계획(2008)	2008-2012 EDCF 중기운용계획(200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경제사회개발지원 및 우리기업의 수출, 해외투자, 자원 확보지원 ◦ 지원규모 확대 및 아시아 지원 비중 확대 ◦ 우선지원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 (2) 경제인프라(수송, 항만, 발전, 송배전) (3) 사회인프라(병원, 상하수도, 직업훈련) ◦ 인도네시아, 베트남 최우선 중점국: 2006-2009년간 인도네시아에 4천억원 배분(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경제사회개발 지원 및 우리기업의 수출, 해외투자, 자원확보 지원 ◦ 지원규모 확대 및 아시아 지역 지원 비중 70%로 제고 ◦ 우선지원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인프라 (정보통신 제외) (2) 사회인프라 (3) 정보통신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점지원: 2007-2011년간 인도네시아에 1조 2천억원 지원(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을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 ◦ 자원 보유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기후변화 및 농업 관련 분야를 최우선 (1조 4천억원, 20%), 경제 인프라, 사회인프라, 정보통신 지속 지원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중점지원: 인도네시아 2008-2012년간 1조 2.5천억원 지원(18%)

자료: 각 해당 정책 또는 전략 문서로부터 발췌 정리

우선 2007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정책협의를 통해 EDCF 사업의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다. 5차례에 걸쳐 실시된 정책협의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개발원조 사업과 EDCF 관련 정책의 발전, 대내외적인 개발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EDCF 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이 협의되었다. 특히 향후 수행이 유망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EDCF 후보사업 목록(Rolling Plan)을 작성하여, 이들 후보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하였다.

<표 3-4> 양국간 F/A 및 정책협의 현황

기본약정(F/A) 체결	
(1) 1차 F/A(2007-2009) (2007.11)	◦ 2007-2009년간 3억 달러, 추가 협의를 거쳐 최대 3억 7천만 달러까지 EDCF 지원
(2) 2차 F/A(2010-2013) (2010.12)	◦ 2010-2013년간 6억 달러 범위 내에서 EDCF 지원
정책협의(Policy Dialogue) 실시	
(1) 1차 정책협의 (2007.7)	◦ 인도네시아 수원정책 변경 사항, EDCF 지원방식 개선 내용 등 상호 설명 ◦ 2007-2009 Rolling Plan 협의
(2) 2차 정책협의 (2008.6)	◦ 2008년도 사업 추진 협의 ◦ 2008-2009 Rolling Plan 협의
(3) 3차 정책협의 (2008.12)	◦ Jakarta Commitment 시행 방안, EDCF 지원조건, 사업 추진 신속화 방안 등 협의 ◦ 2009-2010 Rolling Plan 협의
(4) 4차 정책협의 (2009. 8)	◦ EDCF 지원방향(녹색성장 우선지원 등), 차기 F/A 체결 방안 등 협의 ◦ 2009-2011 Rolling Plan 협의
(5) 5차 정책협의 (2010. 1)	◦ 인도네시아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향후 EDCF 운영 방안 협의, 녹색성장 사업 지원 우대조건 설명 ◦ 2차 F/A(2010-2013) 체결 방안 협의
후보사업목록(Rolling Plan)	
(1) 2007-2009 (2007.7)	◦ 19개 사업 등재
(2) 2008-2009 (2008.6)	◦ 24개 사업 등재
(3) 2009-2010 (2008.12)	◦ 15개 사업 등재
(4) 2009-2011 (2009.8)	◦ 16개 사업 등재

자료: 각 해당 정책 또는 전략 문서로부터 발췌 정리

또한 CCSP가 마련된 이후에는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F/A)을 체결하여 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EDCF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CCSP가 수립·시행된 이후, 실제로 양국 정부간에는 두 차례의 F/A가 체결

되었으며, 각각의 F/A는 변화하는 관련 상위 정책과 전략의 내용, 정책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사업의 규모를 제시하였다. 2007년에 체결된 F/A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최대 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EDCF 중기운용계획에서 인도네시아 등의 중점 지원대상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함에 따라 2005년에 수립된 CCSP에서 설정한 지원 금액인 3억 달러보다 최대 지원 가능 규모가 증액된 것이다. 2010년 12월에 체결된 F/A에서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2013년까지 4년 동안 6억 달러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표 3-4 참조).

나) EDCF 지원조건

EDCF 지원조건은 매년 WB의 소득그룹별 국가분류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WB가 분류하는 소득그룹Ⅲ의 국가 중 중저소득국가군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현행 EDCF 지원조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반 사업에 대하여 구축성 사업의 경우에 연이자율 0.2%,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상환기간 40년의 조건으로, 비구축성 사업의 경우에는 연이자율 2.0%, 거치기간 7년을 포함한 상환기간 25년의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최우선 지원사업, 긴급구호 사업, 한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사업에 대한 금리보다도 연 0.05%를 추가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지원조건은 여타 원조공여기관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WB와 ADB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LIBOR에 연 0.2~1.05%의 가산 금리를 추가하고 소정의 선취수수료(Front end fee)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일본(JICA) 차관의 경우에 연이자율 최고 1.4%, 상환기간 최장 30년이며, 독일(KfW) 차관의 경우에는 Euribor를 기준 금리로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이다. EDCF 지원조건은 ADB, WB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조건에 비해서는 매우 유리하며, 일본의 지원조건과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EDCF의 평균적인 지원조건을 연 0.15%의 이자율, 10년 거치 35년 상환, 차관 취급수수료 0.1%로 인지하고 있으며, 양허성이 75.58%인 경쟁력 있는 차관으로 보고 있다.³⁰⁾

<표 3-5> 주요 원조공여기관의 차관 지원조건

구분	WB	ADB	일본(JICA)	독일(KfW)
연 이자율	LIBOR+1.05%이하	LIBOR+0.2%이하	1.4%이하	Euribor
상환기간	최장 30년	최장 30년	최장 30년	최장 20년
기준통화	USD, EUR, JPY, 인도네시아루피아	USD, EUR, JPY, 인도네시아루피아	JPY	EUR, USD, 기타
기타비용	선취수수료 (Front end fee)	약정수수료 (Commitment fee)	약정수수료 (Commitment fee)	약정, 관리수수료 Commitment, Management Fee)
조건 유연성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함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함	유연성이 낮음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함

자료: Ministry of Finance (2011), *National Debt Management Strategy 2010-2014*, p. 37.

다) CCSP 지원약정 이행

CCSP가 수립·시행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F/A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업 승인 한도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1차 F/A(2007-2009)에서는 3억 달러, 2차 F/A(2010-2013)에서는 6억 달러 규모로 양국 간의 지원 가능 한도가 설정되었다.³¹⁾ 이와 같은 기본 틀 내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이루어진 승인 규모는 아래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건에 대해 2억 9천만 달러였다.

<표 3-6> 양국간 F/A 합의 지원규모 대비 승인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차 F/A 2007-2009 (A)	2차 F/A		합계 2007-2010 (A+B)
		2010-2013	2010 (B) ^{주)}	
지원 한도 설정	300	600	150	450
지원 승인	150(4건)	140(2건)	140(2건)	290(6건)

주: 2010-2013년간 600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승인) 가능 규모를 4분한 금액임

30) BAPPENAS (2011), Korea's EDCF Strategy for Indonesia, 4 March 2011, 현지위크숍 발표자료.

31) 제1차 F/A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해 기간 중 최대 3억 7천만 달러 규모 까지 지원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CCSP 수립 이후 정책협의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Rolling Plan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검토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등은 제외되고, 새로운 유망 후보사업이 추가되었다. 가장 최근에 협의된 Rolling Plan 2009-2011에는 16개의 검토 후보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2007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6개의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4개 사업이 차관 계약이 체결되어 구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7> 대 인도네시아 Rolling Plan 현황

Rolling Plan (작성시기)	2007-2009 (2007)	2008-2009 (2008.6)	2009-2010 (2008.12)	2009-2011 (2009.8)
사업 목록 건수	19	24	15	16
승인 건수	0	2	0	3
제외 건수	2	8	1	-
차기 이월 건수	17	14	14	-

자료: 각 Rolling Plan의 내용 정리

3. 사업수행절차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지원절차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및 경협기금업무취급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EDCF 정책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EDCF의 인도네시아 지원 초창기에는 개별 사업 단위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방침이 결정된 이후 정부간 기본협정(Agreement: A/G)과 시행약정(Arrangement: A/R)을 체결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동절차는 개선되고 있다. 우선, 1995년에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A/G는 과거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국내 조약절차를 따르되, A/R은 외교통상부 장관 재가로 체결하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또한 지원사례가 있는 국가에 추가적으로 차관을 제공할 경우, 사업별 A/G 체결 없이 A/R만 체결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³²⁾

다음으로 2006년에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의 A/R이 생략되고 3년간 지원한도, 조건 등을 규정한 정부간 기본약정인 F/A를 체결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중장기적 전략과 규모를 담은 CCSP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정부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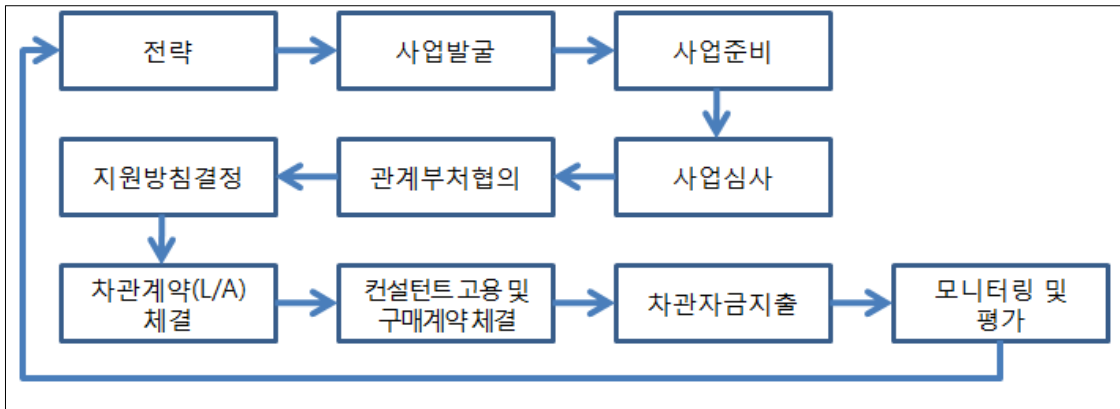
32) 재정경제부 · 한국수출입은행 (2007), 대외경제협력기금20년사 참조.

정책협의(Policy Dialogue)와 EDCF Rolling Plan 수립을 통해 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³³⁾

이 외에도, EDCF의 각종 지침이 개정되거나 새로 수립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수행에도 적용되고 있다. 2006년 환경영향 심사기준이 도입되고, 사업자 선정의 경쟁입찰원칙이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성과평가 지표가 도입되고 이주문제 점검기준이 마련되었으며, 2010년에는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 등이 제정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의 사업은 [그림 3-3]과 같이 크게 전략 → 사업발굴 → 사업준비 → 사업심사 → 관계부처협의 → 지원방침결정 →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체결 →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 체결 → 차관자금지출 → 모니터링 및 평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 3-3] EDCF 사업수행절차 개요



현재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가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단계별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DCF는 4년간의 인도네시아 지원목표, 전략, 우선 지원 분야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CCSP를 수립·활용하고 있다. 또한 3년간 지원한도와 조건을 규정한 F/A를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전략을 토대로 사업발굴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이 추진된다.

33) 재정경제부 (2006), 2006-2009 EDCF 중기운용계획.

② 사업발굴

인도네시아에서 개발 우선순위가 높고, EDCF 지원대상으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되어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부처 등이 사업발굴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간 정책협의를 통해 사업이 발굴되기도 한다. 현재는 과거 개별 사업별로 발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향후 2~3년간 지원후보 사업 리스트인 Rolling Plan을 작성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한편, Rolling Plan에 등재된 사업 외에도 사업 발굴이 추진되기도 하며, Rolling Plan에 등재된 사업만이 심사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사업준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타당성 조사는 인도네시아 사업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EDCF 차관지원비로 무상 지원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기술적 타당성,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환경적 타당성 등이 검토된다.

④ 사업심사

사업이 구체화되어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사업심사요청서(Pre-request)를 받으면 사업심사 단계가 진행된다. 심사 단계에서는 지원 추진여부 및 지원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EDCF 지원 타당성 및 사업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이 인도네시아 산업발전 또는 경제안정,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재무적·경제적·기술적·환경적 타당성, 상업성 여부 등이 검토되고, 지원규모 및 조건, 구매 적격국, 구매방법, 자금 지출 방법 등이 검토된다.

⑤ 관계부처협의

이후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공식 차관요청서(Formal Request)를 받고,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간의 지원금액 및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정부지원 방침이 결정된다. 다만 총리령에서 정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⑥ 차관계약 체결

EDCF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이 체결되며, 차관금액, 용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조건, 사업실시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는 본문과 구매기준, 컨설턴트 고용기준 등의 붙임 내용으로 구성된다. L/A 체결 전 L/A 초안에 대해 차주인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협의가 이루어진다.

⑦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 체결

컨설턴트는 사업실시기관이 EDCF 사업을 준비 또는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고용되고 있다. 컨설턴트는 상세설계, 비용추정 및 입찰 서류 등의 업무와 사업수행감독 등의 감리 업무를 담당한다. 컨설턴트는 보통 한국의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Short-list 방식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구매계약은 현재 경쟁입찰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경쟁입찰이란 공개적인 입찰공고를 통하여 희망자 모두에게 입찰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는 구매방식이다. 입찰서류에 대한 EDCF 동의 및 입찰 공고, 적격심사, 입찰평가 결과 및 선정에 대한 EDCF 동의,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계약에 대한 EDCF 동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⑧ 차관자금 지출

컨설턴트 계약 또는 구매 계약 체결과 함께 사업이 실시되며, 차관자금은 컨설턴트 계약 또는 구매계약 체결 이후, L/A에 규정된 지출방식에 따라 지출된다. 지출 방식에는 신용장방식, 직접지급방식, 사후지급방식 등이 있다.

⑨ 모니터링 및 평가

모니터링을 위해 사업실시기관이 정기적으로 사업진행보고서(Progress Report)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EDCF가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업실시기관은 완공 이후, 차관공여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완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EDCF는 사업완공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년 내에 완공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로 작성 및 보고한다. 사후

평가는 완공점검보고서 제출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보고서로 작성 및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4. 지원사업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은 1987년 EDCF의 설립 이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에는 정보통신, 교통, 에너지 등의 7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차관과 기자재차관의 2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1) 지원형태별 지원내역

1987부터 2010년까지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 승인액을 지원형태별로 살펴 보면, 지원 초기에는 개발사업차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자재차관이 증가하여 2010년말 누적 기준으로는 기자재차관 승인액이 전체의 20.7%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원사업은 개발사업차관이 전체 18건 중 14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표 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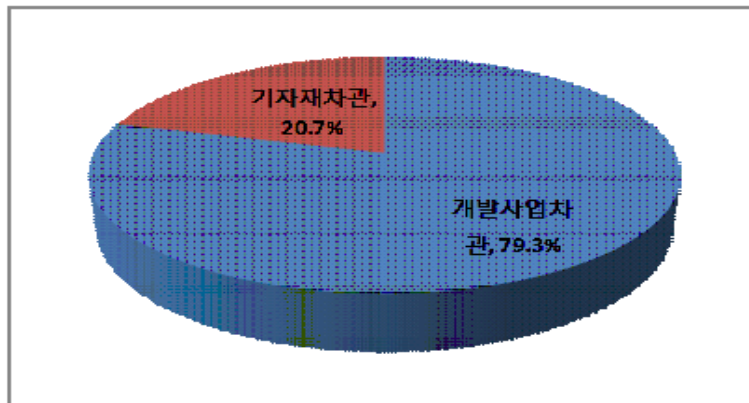
<표 3-8> 대 인도네시아 지원형태별 지원 추이 (1987~2010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총계
1987	13.0	0	13.0
1991	25.0	0	25.0
1994	10.0	0	10.0
1995	10.0	0	10.0
1997	0	30.0	30.0
1999	40.0	0	40.0
2000	0	30.0	30.0
2004	20.2	0	20.2
2005	0	24.0	24.0
2006	53.0	0	53.0
2008	30.0	28.9	58.9
2009	91.0	0	91.0
2010	140.0	0	140.0
총계	432.2	112.9	545.1

지원형태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사업차관 14건, 432.2백만 달러(79.3%)와 기자재차관 4건, 112.9백만 달러(20.7%)이다(그림 3-4 참조). 특히, 기자재 차관은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1997년)',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2000년)', '종합병원 개선사업(2005년)' 및 '칸도우병원 개선사업(2008년)'과 같은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4] 대 인도네시아 지원형태별 지원현황 (1987~2010년)



2) 분야별 지원내역

1987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액의 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원초기에는 교육과 교통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5년간 보건, 수자원, ICT 및 공공행정 분야에서 신규 지원이 증가되었다(표 3-9 참조). 특히 보건 분야 사업은 1997년 이후 병원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전체 지원액 중 가장 많은 26.2%를 차지하였으며, 수자원 분야는 2010년에 '카리안담 건설사업'을 통한 단 한차례의 대규모 사업 승인으로 두 번째 높은 비중(18.3%)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초기부터 지원이 계속되어 온 교통 분야가 전체 지원액 중 17.8%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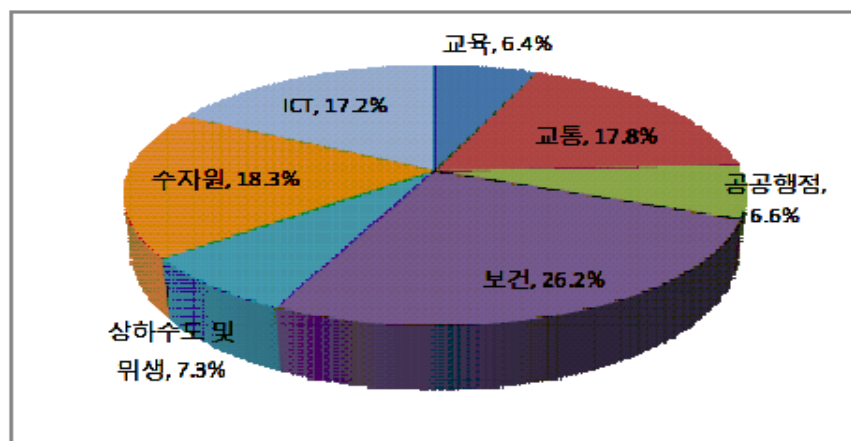
<표 3-9> 대 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 추이 (1987~2010년)

(단위: 천 달러)

연도	교육	교통	공공 행정	보건	상하수도 및 위생	수자원	ICT	총계
1987	0	13.0	0	0	0	0	0	13.0
1991	25.0	0	0	0	0	0	0	25.0
1994	10.0	0	0	0	0	0	0	10.0
1995	0	10.0	0	0	0	0	0	10.0
1997	0	0	0	30.0	0	0	0	30.0
1999	0	0	0	0	40.0	0	0	40.0
2000	0	0	0	30.0	0	0	0	30.0
2004	0	0	20.2	0	0	0	0	20.2
2005	0	0	0	24.0	0	0	0	24.0
2006	0	16.0	16	0	0	0	21.0	53.0
2008	0	0	0	58.9	0	0	0	58.9
2009	0	58.0	0	0	0	0	33.0	91.0
2010	0	0	0	0	0	100.0	40.0	140.0
총계	35.0	97.0	36.2	142.9	40.0	100.0	94.0	545.1

ICT 분야는 최근 2006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전체 지원액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및 위생 분야는 1999년에 단 한차례 사업승인을 통하여 전체 지원액 중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외에 나머지 교육과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지원액 중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대 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현황 (1987~2010년)



3) 지원 세부내역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승인액은 총 7개 분야 18건, 545.1백만 달러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교육 2건(35백만 달러), 교통 4건(97백만 달러), 공공행정 2건(36.2백만 달러), 보건 5건(142.9백만 달러), 상하수도·위생 1건(40백만 달러), 수자원 1건(1억 달러) 및 ICT 3건(94백만 달러)로 분류된다. 또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총 18개 사업³⁴⁾ 중 10개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8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표 3-10 참조).

다음으로, 개별 사업의 예산 추이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의 경우에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30백만 달러 정도의 개별사업이 추진되었다. 교통 분야의 경우에는 1987년부터 개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7년 이전에는 10백만 달러 수준에서 최근에는 60백만 달러 수준의 개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ICT와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에는 최근 2005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여 40백만 달러 수준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수자원 분야에서는 2010년에 처음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결정되었다.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 지원 초기에 비해 전체적인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자원, 교통 및 ICT 분야의 개별 사업 예산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10 참조).

34)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및 '카리안담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2010년에 승인된 사업이며,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1999년)'의 경우는 사후평가 대상으로서 본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음

<표 3-10> 대 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	승인연도/예산	진행상황	사업실시기관
교통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1987/13백만달러	원리금 회수중	공공사업부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1995/10백만달러	원리금 회수중	공공사업부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2006/16백만달러	구매계약 체결	공공사업부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2009/58백만달러	차관계약 체결	공공사업부
교육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1991/25백만달러	원리금 회수중	노동부
	실업교육개선사업	1994/10백만달러	원리금 회수중	교육부
보건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1997/30백만달러	원리금 회수중	보건부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2000/30백만달러	원리금 회수중	보건부
	종합병원 개선사업	2005/24백만달러	구매계약 체결	보건부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2008/29백만달러	차관계약 체결	보건부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2008/30백만달러	차관계약 체결	보건부
상하수도 /위생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1999/40백만달러	원리금 회수중	보건부
수자원	카리안담 건설사업	2010/1억달러	정부지원방침 결정	공공사업부
공공 행정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2004/20백만달러	종결	경찰청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2006/16백만달러	완공점검 실시	바탐산업개발청
ICT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2006/21백만달러	종결	정보통신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09/33백만달러	차관계약 체결	법무인권부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2010/40백만달러	정부지원방침 결정	경찰청

제4장 EDCF의 대 인도네시아 국별지원 종합평가

1. 국가지원전략(CCSP) 평가

EDCF의 대 인도네시아 CCSP에 대한 평가는 CCSP 수립 체계 및 절차의 합리성, 지원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절성, 실천적인 지원전략으로서의 유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평가 내용의 성격상 정량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 문헌조사, 국내외 주요 관련기관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면담 조사, 현지 공동평가회 개최 등을 통한 정성적인 조사·검토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유상원조 관련 주요기관 및 이해관계자³⁵⁾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성적인 평가 내용을 보완하였다.

가. 절차의 합리성

CCSP는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 주도 하에 EDCF 본부와 인도네시아 BAPPENAS가 함께 작성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전략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EDCF의 경제사업부와 국별조사실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전략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인도네시아 BAPPENAS는 국가개발전략 자료, 유망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CCSP의 수립 당시 국가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명문화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기획재정부와 EDCF 본부, BAPPENAS 간에는 역할분담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CCSP 수립 과정에서 무상원조를 추진하는 외교통상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의견 교환 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05년 CCSP 수립 당시만 하더라도 유·무상 원조의 연계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CCSP 수립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5) EDCF의 CCSP에 대한 설문조사는 BAPPENAS의 Directorate for Utilization of Development Funding과 Directorate of Bilateral Foreign Funding, 재무부의 Directorate of Funds, 개발NGO단체의 하나인 INFID(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한편, 현재 2006~2009년까지의 CCSP는 그 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나, 차기 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기존 CCSP의 연장선상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³⁶⁾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유·무상 통합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되면서 2011년 내에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후속 전략의 수립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향후 통합 지원전략 수립이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CCSP 수립 체계나 절차는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국가지원전략 수립 체계와 절차는 통합 국가협력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립하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되어 정형화되는 경우 그 합리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나. 내용의 적절성

1) 지원전략의 기본 체제

CCSP에는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의 맥락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 전략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목표, 지원전략, 우선 지원 분야, 원조효과 제고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CCSP는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 충족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원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6~2009년의 기간 중 3억 달러의 지원을 약정하여 정보통신, 수자원, 교통 등의 분야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및 타 공여기관과의 정례적인 협의 등도 고려하였다.

한편, CCSP는 EDCF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양국 정부간 연례적인 정책협의를 실시하여 유망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사업 추진 및 평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다자 및 양자 원조공여기관과의 원조 조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내의 타 원조공여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KSP 사업이나 KOICA 기술협력사업과의 연계를 강조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36) EDCF는 '대 인도네시아 CCSP 2006-2009'가 종료됨에 따라 2010년 1월 기존 CCSP의 연장선상에서 '대 인도네시아 EDCF 지원전략'을 내부 자료로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CCSP의 내용은 그 구성이나 목표, 실시 전략 등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의 제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타 원조공여기관의 역할과 기여, 과거 한국의 개발 원조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EDCF 사업 수행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필요사항 및 EDCF 지원방향을 제시한 점도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상위 정책·전략과의 연계성

가) ODA 기본 정책에의 부합성

개별 국가에 대한 유상원조 사업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책은 한국의 ODA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1월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의 마련을 통하여 한국의 ODA 기본 정책이 마련되고, 원조추진시스템 개선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정부 차원의 ODA 정책 및 전략은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2007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수립한 '2008-2010년 ODA 중기전략'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 특히 인도네시아 등 경험 잠재력 및 인프라 수요가 큰 국가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상원조의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에 약 70%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전략은 중점 지원분야로서 인적자원 개발(교육·훈련), 보건·의료, 공공 행정, ICT, 농촌 개발 및 해양 수산, 산업 인프라 및 에너지, 환경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CCSP의 전략적 지원분야는 모두 이들 분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CCSP는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앞서 마련되었지만, 정부의 최상위 대외원조정책 방향과 기초를 같이하고 있으며, 상위 전략의 중점 지원분야에도 적절히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EDCF 중기운용계획에의 부응성

유상원조 중기 전략은 'EDCF 중기운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 최초의 EDCF 중기운용계획인 '2006~2009년 EDCF 중기운용계획'은 유상원조 규모의 확대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자

정부 등 ICT 분야를 최우선 지원분야로 선정하고 수송, 항만, 발전, 송배전 등의 경제 인프라를 제2순위의 지원분야로, 병원, 상하수도, 직업훈련 등의 사회 인프라를 제3순위의 지원분야로 선정하였다. 2006~2009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최우선 지원대상국의 하나로 총 재원의 21%에 해당하는 4,000억원의 지원이 계획되었다.

이어서 마련된 '2008~2010년 EDCF 중기운용계획'은 ODA 규모 확대와 원조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EDCF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2006~2009년간 1조 9,400억원 규모이던 EDCF 예산을 2008~2011년간 5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3개 최우선 지원국에 대한 비중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중점 지원 분야를 다소 조정하여 개도국 경제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 교통 등 경제 인프라 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다음 순위를 사회 인프라 분야, 마지막 순위를 ICT 분야로 제시하였다.

한편, 2008년 2월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EDCF 중기운용계획의 방향이 수정되었다. 'EDCF 중기운용계획 2008~2012'는 EDCF 규모를 2008~2012년간 총 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EDCF가 자원 확보 및 식량 안보 등 국가전략목표의 달성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및 농업 관련 분야를 최우선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에너지, 광물, 농업 자원 보유국 등을 중점지원국에 추가하게 되었으며, 중점 지원분야로는 기후변화 및 농업 분야를 최우선 분야로 선정하고, 경제 인프라, 사회 인프라, 정보통신의 순으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EDCF 운용 전략의 변화는 <표 4-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 인도네시아 CCSP의 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약정 가능 규모의 확대와 함께 중점 지원분야의 범위도 확대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2007년 11월에 체결된 1차 F/A(2007-2009)를 통해 당초 3억 달러 규모의 약정 한도가 최대 3억 7천만 달러까지 증액 가능하게 되었고, 2010년 체결된 2차 F/A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총 6억 달러 범위 내에서 EDCF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표 4-1> 원조 정책 및 전략의 변화와 대 인도네시아 CCSP 운용

구분	2005~2007	2008~2009	2008~2015
1) ODA 및 EDCF 주요 정책			
해당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2005.11) 2006-2009 EDCF 중기운용계획 (2006.1) 2006-2009 대 인도네시아 CCSP (200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2010년 ODA 중기전략 (2007.7) 2008-2011년 EDCF 중기운용계획 (20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2012 EDCF 중기운용계획 (2008.8) 2010 녹색성장 파트너십 전략 ODA 선진화 계획 (2010.10) 2011-2015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0.11)
2) CCSP 운용에 있어 F/A 및 정책협의 등을 통해 반영된 사항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2009년 3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를 통해 3억 7천만 달러까지 약정가능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2013년 6억 달러
우선 지원 분야	(1) ICT (2) 경제인프라(수자원, 교통) (3)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분야(BHN): 빈곤퇴치 등	(1) 경제인프라 (2) 사회인프라(병원, 하수 처리, 직업훈련 등) (3) ICT	(1) 기후변화 및 농업 관련 분야 (2) 경제인프라 (3) 사회인프라 (4) ICT

자료: 각 정책 자료로부터 발췌 정리

한편, 정책협의를 통해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의 우선 지원 분야가 ICT, 수자원 및 교통 인프라에서 경제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 분야로 확대 되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농업 등 녹색성장 분야가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 CCSP는 EDCF 운용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에 부합함은 물론 그 내용의 변화·발전에 적절히 부응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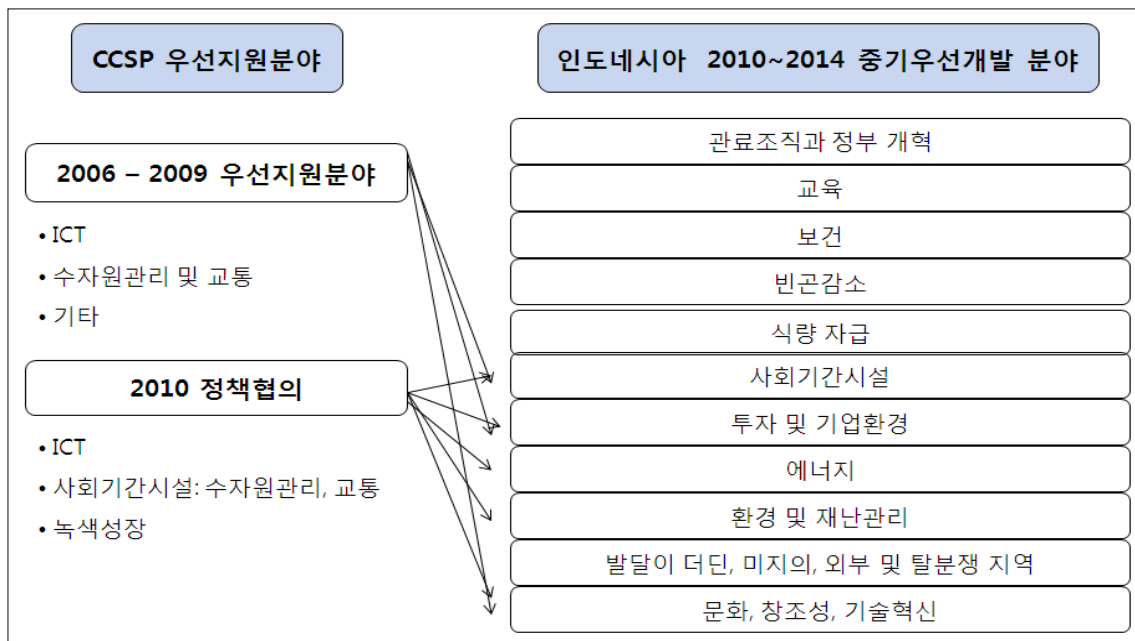
3) 인도네시아 개발 전략 및 수요와의 부합성

인도네시아는 중진국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중기개발 계획이 모두 다양한 국가 개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특히 2010년에 착수된 제2차 중기개발계획은 다양한 개발 과제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투자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개발 우선과제(National Priorities)³⁷⁾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발 과제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37)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에서 국가개발 우선과제로 교육, 보건 등 11개 부문과 경제, 복지 등 3개 분야를 설정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 및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CSP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선 지원 분야 및 사업은 인도네시아 개발 전략의 우선 개발 분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DCF가 인도네시아의 개발 수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한 분야는 'IT'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통 인프라', '수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의 순이었다. [그림 4-1]은 BAPPENAS가 CCSP 우선 지원분야와 인도네시아 개발 전략의 우선 개발 분야 간의 연계성을 비교하여 제시한 자료이다.

[그림 4-1] CCSP의 우선 지원분야와 인도네시아의 우선 개발분야 간의 연계성



자료: BAPPENAS (2011), *Korea's EDCF Strategy for Indonesia*, 4 March 2011, 현지워크숍 발표자료

CCSP 수립 및 정책협의 등을 통해서 설정된 중점 지원 분야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선 개발 분야의 연계성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CCSP에서 제시하고 있는 IT, 수자원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과 2010년 정책협의를 통하여 협의된 녹색성장 분야는 직접적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투자 및 기업환경 개선, 에너지 개발, 환경 및 재난 관리, 낙후 지역 개발, 문화·창조성·기술혁신 등 인도네시아의 우선 개발 분야 지원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간접적으로는 IT,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수자원 개발과 녹색성장의 촉진 등을 통해서 빈곤 감소와 식량 자급을 도모하는 데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타 원조 기관과의 원조 조화

가) 국내 타 원조 기관과의 연계여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개발원조는 EDCF 외에도 현재 국내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주요 기관 및 규모는 <표 4-2>와 같다. 타 기관의 원조는 무상원조이며, 주로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및 기자재 지원의 형태로 지원된다. KOICA가 시행하는 개발조사, 봉사단 파견, 초청연수 외에도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협력사업, 행정안전부의 동자바주 의원 및 공무원 대상 지방 거버넌스 연수, 여성가족부의 여성공무원 대상 IT 교육 등이 있다.

<표 4-2> 대 인도네시아 개발원조 수행 국내 기관 및 규모

(약정액 기준, 백만 달러)

기관명	2008년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0.46	0.90
국토해양부	-	0.01
기획재정부	0.03	0.19
농림수산식품부	0.11	0.16
여성가족부	0.01	0.04
지식경제부	2.99	0.03
KOICA	16.29	14.34
행정안전부	0.26	0.30

자료: EDCF, ODA통계조회, 2011. 5

EDCF는 CCSP 수립하거나 이후 양국 정부간 정책협의를 실시할 때 KSP 연계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타 원조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EDCF와 정부부처·기관의 개발원조사업 연계를 지원하는 연계지원 종합정보 시스템을 웹사이트(www.edcfkorea.go.kr) 상에 구축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단계에서 정부부처·기관의 원조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연계·조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계지원 종합정보 시스템 조회 결과, 동 시스템에서 공유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개발원조 사업은

14개 기관 26개 사업³⁸⁾이며 주로 타 정부부처·기관이 사업 타당성 조사(F/S)를 실시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EDCF를 제공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아래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카리안담 건설사업’,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은 관계기관이 실시한 F/S 결과를 바탕으로 EDCF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연계지원 종합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계지원 수요조사 대상 범위를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3> 타 기관의 발굴 사업과 EDCF 사업 간의 연계 현황

연계기관	사업명	연계내용
KOICA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F/S 작성 지원
KOICA	카리안담 건설사업	F/S 작성 지원
특허청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F/S 작성 지원, 운영노하우 전수

한편, EDCF는 1997년 KOICA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정보 교류 및 사업 연계 방안의 모색을 위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26개 통합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원조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각 기관 해당 지역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수시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업 현장에서의 양 기관 협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원조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0년 10월 ‘ODA 시행 관련 재외공관의 역할강화 방안’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유·무상 원조 간의 연계·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통합 국가지원전략 수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존의 CCSP에서는 유·무상 원조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향후 통합 국가지원전략이 수립 되면 이러한 점은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38) 2011년 5월 기준

나) 개발 파트너와의 조화

EDCF는 Jakarta Commitment 이전의 원조조화 채널이었던 원조공여국회의(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 CGI)에 참여하였으며, 비정례적으로 JICA 등 타 공여기관과 교류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EDCF는 다자간 원조조화 메커니즘인 Jakarta Commitment에는 서명하였으나 A4DES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례적인 활동에는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EDCF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주재원 1명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참여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조 조화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 조화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원조 조화의 노력은 정보 공유에서부터 원조활동 조율, 공동 출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 또는 특정 공여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사업 중 EDCF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서는 타 공여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유도하면서 특정 개발 과제의 추진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5)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제 달성에의 기여

가) 새천년개발목표(MDGs)

CCSP는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EDCF 지원은 이러한 원조 목표의 실현을 통해 M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CSP에 명시된 분야로서 MDGs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분야로는 IT를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IT분야 EDCF 사업은 'MDGs 8'의 'Target 8. F: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CCSP의 우선지원분야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추진된 사업들의 경우 'MDG 4: 어린이 및 유아 사망률 감소', 'MDG 5: 임산부 건강개선', 'MDG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등의 MDGs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 계획 및 예산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MDGs를 염두에 두면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장기개발계획 및 두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중기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BAPPENAS가 2010년 발간한 인도네시아의 MDGs 달성 결과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 달성 여부는 크게 세 가지 '이미 달성한 목표, 상당 진전 및 2015년까지 달성이 예상되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목표'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요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인도네시아의 MDGs 달성 결과

분류	MDGs	주요 내용
이미 달성	MDG 1	1인당 하루 1달러 미만 인구비율 감소
	MDG 3	모든 수준 및 형태의 교육에서 여성평등 거의 확보 - 여성 등록률과 문자해독률 향상
	MDG 6	인구 당 결핵 발병률 감소
상당한 진전 및 2015년까지 달성 예상	MDG 1	5세 이하 체중미달 아동 수 감소
	MDG 2	초등교육 순등록률 및 문자해독률 향상
	MDG 3	중고등 교육에서 여성 순 등록률 향상
	MDG 4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 감소
	MDG 8	공개적이고 규칙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차별이 없는 무역 및 금융시스템으로 관리, 외국 빚 감소
달성을 위해 노력 필요	MDG 1	국가빈곤선 기준 빈곤 감소
	MDG 5	산모사망률 감소
	MDG 6	HIV/AIDS 감염률 감소
	MDG 7	탄소배출 감소, 식용수 접근률 향상, 위생시설 접근률 향상

자료: BAPPENAS (2010), *Report on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onesia 2010*.

나) 원조효과 제고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PD/AAA)

2007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원조공여자 공동으로 대 인도네시아 원조에 있어서의 파리선언(PD) 약속사항의 이행 실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 결과(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약속사항 2(원조 일치) 및 3(원조 조화)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이행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PD 지표 3, 4, 5 및 6의 경우 여타 원조 공여자의 성과와 유사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으며, 지표 7, 9 및 10에 있어서는 성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량화된 지표가 제시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5 참조).

<표 4-5> PD 이행 조사 주요 결과

약속사항	지표	2008년 조사결과(2007년 실적)	
		공여자전체	한국
원조 일치	3. 정부예산에 포함된 원조 비중	70%	98%
	4. 협조된 기술협력 비중	60%	100%
	5a. 공공재정관리(PFM)시스템 활용 비중	71%	60%
	5b. 정부조달제도 활용 비중	56%	60%
	6. 중복적인 사업실시조직(PIU) 수	86	0
	7. 정부예산에 계상된 원조 집행	25%	0%
원조 조화	9. PBA방식의 협력사업 비중	51%	0%
	10a. 합동 조사활동(donor mission)	13%	0%
	10b. 합동 분석작업(analytical work)	45%	0%

자료: OECD (2008),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 Country Chapters(Indonesia).

상기의 조사결과는 유상과 무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금번의 평가에 있어서는 유상사업과 관련되는 주요 약속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설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여러 개발 약속사항의 이행 여부 측면에서, 대 인도네시아 EDCF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EDCF는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파리선언(PD) 및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통하여 제시된 개발 지표 중 대부분의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4-6 참조). 다만, 일부 개발 지표의 이행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표 4-6> EDCF의 PD/AAA 이행 개요

구분	약속사항	EDCF의 이행
PD	(1) 원조 주체성(Ownership)	- 인도네시아의 주도적 개발 추진을 적극 지원
	(2) 원조 일치(Alignment) - 공공재정, 조달시스템 등	- 모든 사업을 인도네시아 공공 재정 운용 시스템에 반영하여 추진 중 - 인도네시아의 공공 재정 및 조달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중복적인 사업실시조직(PIU 등)은 만들지 않고 있음
	(3) 원조 조화(Harmonization)	- A4DES 활동 등 다자간 원조조화 활동 및 PBA 방식의 협력사업 참여에 소극적임
	(4) 결과중심의 원조 관리 (Managing for Results)	- 독자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조사 분석 등 활동에는 보다 적극적 참여 필요
	(5) 상호책임성 확보 (Mutual Accountability)	- CCSP 수립, 정책협의 실시 등을 통해 상호평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별사업에 대한 상호평가는 아직 미 실시
AAA	(1) 원조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 제고	- F/A, Rolling Plan 등 유용한 제도를 활용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2) 국가 시스템 (Country System) 활용	- 인도네시아 국가조달시스템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필요
(3) 원조 부대조건 (Conditionality) 해소	- 부대조건 없음
(4) 구매조달 제한 해소 (Untying Aid)	- EDCF는 구속성과 비구속성, 두 개의 옵션을 제시 - 의무적인 과제는 아니나 단계적으로 비구속성화 바람직
(5) 원조 실시의 분절(Aid Fragmentation) 방지	- 유상과 무상의 이원화된 지원 체제임 - 유·무상의 통합된 사업 수행시스템의 구축이 바람직함

자료: BAPPENAS의 설문답변 및 면담 조사 주요 결과

첫째, ‘원조조화’와 관련하여 EDCF는 현지 인력 부족 문제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타 원조공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BAPPENAS 주관의 A4DES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DCF는 Jakarta Commitment의 수립에 주요 원조공여기관의 하나로 참여하였으므로, 원조 효과성 제고 뿐 아니라 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작업반(WG)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구매조달 제한 해소’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EDCF 사업 추진시 구속성 원조와 비구속성 원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 현재까지 모두 구속성 원조로 추진하였다. PD/AAA에서 제시하는 구매조달 제한 해소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및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원국의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OECD-DAC 원조공여국들의 전체 원조 중에서 구매조달 제한이 해소된 원조의 비중은 2006년 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⁹⁾ EDCF의 경우 원조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원조 실시의 분절 방지’와 관련, 원조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되고 있어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원조는 타 원조공여국에 비하여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원화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이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39) OECD(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Making Aid More Effective by 2010(Indonesia), p 22-11

으로 평가된다. 원조의 분절 방지를 위해서는 유·무상 원조를 긴밀하게 조화·연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전략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본다면 대 인도네시아 CCSP는 원조 목표와 방향, 실시 전략 등의 기본적인 구조를 잘 갖추고 있으며 원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의 제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위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 인도네시아 개발 전략 및 수요와의 부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원조 수단과의 연계 및 원조 조화에 관한 방안도 적절히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통합 국가지원전략의 수립에 있어 유·무상 원조의 조화를 위한 역할 분담과 연계 방안이 제시되는 경우 지원전략의 적절성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실천전략으로서의 활용성

EDCF의 대 인도네시아 CCSP에는 세부 사업 목표, 사업실시 수단, 평가 지표 설정 등의 세부 추진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CCSP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지침 문서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한국이 중진 원조공여국(Middle Lender)⁴⁰⁾의 하나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⁴¹⁾ 현재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승인액이 양국이 합의한 약정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BAPPENAS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이유는 EDCF가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에 비해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⁴²⁾ 이는 처음으로 마련된 CCSP가 보다 구체적인 전략 시행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기본적으로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 역량이 향상되면서 양허성 차관 도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0) 평가워크숍 및 현지면담조사 결과, BAPPENAS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공여자를 제1그룹과 제2그룹, 기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음. 제1그룹에는 일본(JICA)과 UNDP, 호주(AusAID), 제2의 그룹에는 캐나다(CIDA)와 미국(USAID), 독일(GTZ), 기타 그룹에 나머지 공여기관이 속함. 한국은 중국과 함께 기타 그룹에서 제2그룹의 원조공여자, 즉 Middle Lender의 지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1) BAPPENAS (2010),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5 of 2010 Regarding the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10-2014 참조

42) 상동

다음으로, 타 공여기관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전략을 살펴보면, 원조 실시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틀, 즉 세부적인 사업 분야 및 과제, 기대되는 성과, 추진방식, 성과평가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은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결과 틀(Results Framework)' 또는 '결과 매트릭스(Results Matrix)', '사업성과 틀(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등의 형태로 국가지원전략에 포함되어 있다(표 4-7 참조).⁴³⁾

<표 4-7> 주요 원조 공여기관의 국가지원전략

기관	국가지원전략	실행전략으로서의 활용 사례
WB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2009-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지원분야별 지원수단 제시(Core Engagements: Alignment of Instr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지원 과제(core engagements)별 구체적 지원수단 (Lending, Trust Funds and Grants, AAA¹⁾ 등) 제시 ◦ 국가지원전략 결과 매트릭스(CPS Results Matrix) 작성·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핵심지원 과제별로 장기목표, 과제, 제약점, 개발 결과 등을 하나의 틀로 구체적으로 제시
ADB	Country Strategy and Program(CSP) 2006-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원전략 결과 틀(CPS Results Framework) 작성·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지원과제(Pillars)별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목표와 제약점에 대응하는 ADB의 CSP²⁾ 결과, 모니터링 지표 제시 ◦ 국가사업운영계획(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기간 중 지원부문별 잠정 지원규모 (Indicative Assistance Pipeline)를 Lending Products와 Non-lending Products and Services로 구분하여 제시 - 계획기간 중의 Lending과 Technical Assistance Program의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분야, 과제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JICA	Country Assistance Program(CAP)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사업분야(Priority Program, Sub Program)의 구체적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지원분야(Priority Areas)를 단·중·장기 체계로 세분화 - 설정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과제, 우선사업, 세부 사업 등의 체계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AusAID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Country Strategy(AIPCS) 2008-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사업 추진의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및 '사업 성과 틀(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작성·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중기 집중지원 분야별 접근전략, 주요 지원기관, 기대성과 등의 내용 구체화 - 집중 지원분야별, 파트너십, 반부패 등의 개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측정 항목 제시

주: 1) Analytical and Advisory Activities

2) Country Strategy and Program

자료: 각 자료로부터 발췌 정리

43) 부록 1. 성과관리 틀(framework) 및 매트릭스(matrix) 샘플 참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대 인도네시아 CCSP는 사업 실행계획, 성과평가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측면에서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향후 유·무상 원조 통합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가지원전략의 실천적인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가지원전략은 원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켜 그 용도를 넓혀나갈 수 있다. 타 원조공여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호주(AusAID)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지원전략(Partnership Country Strategy)을 영어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어로도 작성하여 이를 AusAID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영국(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으로 '국가계획(Country Plan: CP)'를 마련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 '소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y)'을 포함시켰으며, 국가지원전략 수립 이후에는 국가지원전략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별도의 자료(Communication Document)를 발간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 인도네시아 CCSP는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어 국내 관계기관 및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배포·활용되고 있다. CCSP는 국내외 원조관계기관은 물론 EDCF 사업 이해관계자들에게 EDCF 지원의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해 알림으로써 대 인도네시아 EDCF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타 원조공여기관의 예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폭넓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지원전략이 실시 지침으로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널리 활용되고, 나아가 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하여 최초로 마련된 CCSP는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은 적절하나 실시 지침의 구체적 방안의 제시 측면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 방안, 성과평가지표 등을 제시하는 등 국가지원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합 국가협력전략 수립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업수행절차 평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업수행절차는 전략 및 계획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 활동들의 체계화된 절차를 의미한다. 이 절차는 각 구성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순환(cycle)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에서의 활동성과가 연쇄적으로 다음 단계들에 영향을 미쳐 전체 성과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수행절차는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본 절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업수행절차 전반에 대해 평가하였다. 세부 평가 대상은 크게 일련의 절차와 주요 단계별 활동이며, 평가 기준은 '적절성'과 '효율성'이다. 첫째, '적절성'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절차 운용'과 '단계 간 연계성', '단계별 활동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효율성'에 관해서는 '단계 간 소요기간'과 '추진 일정의 준수'를 검토하였다.

가. 적절성

1) 사업수행절차 운용

현재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업수행절차가 실제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요 단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사업수행절차는 원활한 EDCF 지원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틀이며, 양국은 이를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를 예상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전략 수립 단계부터 사업 발굴 단계까지의 사업수행절차를 검토한 결과, 인도네시아 CCSP가 수립되고, F/A가 3년마다 체결되었으며, 0.5~1년 단위로 Rolling Plan 수립 및 정책협약이 상호 맞물리며 수행되었다(표 4-8 참조). 이것으로 보아 전략 수립 단계부터 사업 발굴 단계까지의 사업수행절차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 4-8> 연도별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현황

연도	대 인도네시아 CCSP	F/A	Rolling Plan	정책협약
'05	CCSP(2006-2009) (9월)	-	-	-
'06	-	-	-	-
'07	-	1차 F/A (2007-2009) (11월)	1차 Rolling Plan (2007-2009) (7월)	1차 정책협약 (7월)
'08	-	-	2차 Rolling Plan (2008-2009) (6월) 3차 Rolling Plan (2009-2010) (12월)	2차 정책협약 (6월) 3차 정책협약 (12월)
'09	-	-	4차 Rolling Plan (2009-2011) (8월)	4차 정책협약 (8월)
'10	-	2차 F/A (2010-2013) (12월)	-	5차 정책협약 (1월)

그러나 F/A의 경우, 1차 F/A(2007-2009)는 2007년 11월에, 2차 F/A(2010-2013)는 2010년 12월에 체결되었다. 1차 F/A(2007-2009)는 F/A의 첫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서명 체결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2차 F/A(2010-2013)는 양측 간의 문안협의 및 서명식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모두 연말에 체결되었다.

F/A 및 Rolling Plan의 수립 자체가 원조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원조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F/A 체결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F/A가 해당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적어도 연초, 예를 들어 2010년부터의 약정이라면 2009년이나 적어도 2010년 초반에 체결된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전에 이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EDCF와 인도네시아 정부 모두 F/A 협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Rolling Plan 수립과 정책협약은 6개월~1년 단위로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Rolling Plan은 2009년 8월 이후 최근 1년 반 동안은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Rolling Plan 작성의 근거가 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Blue Book이 2009년 이후 새로이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2월에 2011-2014년 Blue Book이 새로이 발간된 만큼 다시 Rolling Plan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이후 추진되는 사업수행절차에 대해서도 주요단계라고 판단되는 '심사 → 지원방침 결정 → L/A 체결 →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 체결 → 중간점검 → 완공점검 → 사후평가' 절차를 살펴보았으며,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완료된 9개의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중간점검이 실시되었고, 종료한 지 2년 이상 지난 7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후평가가 실시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이는 과거 중간점검 및 사후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밝혀졌다. 중간점검은 현재까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필요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사후평가가 평가 업무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으나⁴⁴⁾ 필요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⁴⁵⁾ 이후 2천만 달러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⁴⁶⁾ 현재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⁴⁷⁾

또한 컨설턴트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과 컨설턴트 고용계약 체결 및 구매계약이 거의 동시에 진행된 사업도 있다. 컨설턴트는 설계(상세설계, 비용추정 및 입찰서류 준비) 및 감리(사업수행 감독, 가동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구매계약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감리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은 모두 컨설턴트 고용을 전제하고 있어 그 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도 모든 사업의 추진시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수행절차는 CCSP 수립 및 F/A 체결 시기의 조정 등 다소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4) 경험기금업무취급규정, 1998; 1999; 2000

45) 경험기금업무취급규정, 2002

46) 제5-17, 18조, 경험기금업무취급규정, 2005; 2006

47) 제5-18조, 경험기금업무취급규정, 2009; 2010

2) 주요 단계 간 연계성

대 인도네시아 사업수행절차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각 단계 간에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EDCF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고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용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주요 단계를 대상으로 그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CCSP와 F/A, Rolling Plan, 정책협의 간의 연계성 검토 결과, 이들 단계 간의 연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CSP에 제시된 '3억 달러로 원조 규모 확대', 'ICT, 수자원 관리 및 교통 분야 우선지원'과 '정책협의 정례화' 등의 주요 내용은 F/A 및 Rolling Plan, 정책협의 등 다음 단계로 잘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다.

첫째, 3억 달러로의 원조 규모 확대는 F/A 및 Rolling Plan에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다. 제1차 F/A(2007-2009)에서는 2007~2009년간 3억 달러 범위에서 EDCF를 지원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고, 제2차 F/A(2010-2013)에서는 6억 달러 규모로 지원 가능 한도가 확대되었다. 또한 Rolling Plan을 통해 유망 후보 사업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Rolling Plan은 4차례에 걸쳐 15~24개 사업이 등재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협의된 2009-2011 Rolling Plan에는 16개의 후보 사업이 등재되었다.

둘째, 우선 지원 분야는 Rolling Plan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8월에 작성된 2009-2010 Rolling Plan을 기준으로 보면, 총 16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수자원 관리 및 교통 분야, 7개 사업이 ICT 분야, 1개 사업이 교육 분야 사업이다.

셋째,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정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타 원조공여기관과의 정책대화 정례화는 원조공여협의체(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 CGI)가 없어지면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A4DES라는 원조공여기관 협의체가 새로 생겼으나 EDCF의 경우 현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 참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 발굴 이후 추진되는 절차에 대해서 '심사와 사업실시 간'과 '모니터링 및 평가와 CCSP 간', '모니터링 및 평가와 심사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심사는 사업 타당성 및 사업 준비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예상 위험 판단 및 이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이 검토되며, 이 내용을 사업 수행시 고려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뒷 절의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과 '추진 일정의 준수'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본 절에서는 환경영향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 여부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환경영향 심사 결과가 사업 실시까지 반영된 사업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었다.

환경영향 심사 결과가 사업 실시에 반영된 사업의 예로는 '과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이 있다. 심사 단계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사항들이 심사되었고, 사업 실시 중 사업실시기관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EDCF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자금 집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EDCF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합의되었다.

환경영향 심사 결과가 사업 실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예로는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있다. 심사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보완 조치 권고 사항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사업 실시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 완공점검보고서에 '자연환경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시공 후 문제로 지적되었던 노견부 토지 유실 문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조치사항의 반영 내용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한편, '모니터링 및 평가와 CCSP 간'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와 심사 간'의 연계성은 모니터링 및 평가의 결과가 새로운 EDCF 사업 추진에 적절히 환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중, 그 결과에 차기 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권고 내용을 담고 있는 완공점검과 사후평가 단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한 사업은 완공점검과 사후평가가 실시된 8개 사업⁴⁸⁾이다. 평가를 위해 이들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의 주요 권고 내용을, 전략과 사업일반,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중복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복수로 넣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완공점검과 CCSP 간의 연계성'과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와 심사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2개의 사후평가는 모두 CCSP 수립 이후 실시됨). 주요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공점검과 CCSP 간의 연계성'은 CCSP가 수립된 2005년 9월 전에 실시된 4개 사업⁴⁹⁾의 완공점검 결과 도출된 권고사항이 CCSP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완공점검 결과에서 전략 수립시 반영될 수 있는 사항 네 가지 ① 수원국 환경(사업실시지역 여건)에 대한 연구 강화 ② 중장기 지원 전략 수립 ③ 지원분야 선정시 소득수준, 개발단계 및 시장규모 검토 ④ 유·무상 연계지원을 통한 유상원조 사업의 운용관리 지원을 검토한 결과, CCSP에 반영된 내용은 ①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 ② 지원분야 선정 시 소득수준, 개발단계 및 시장규모 검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와 심사 간의 연계성'을 평가하기 위해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 결과 도출된 권고 사항이 이후 추진된 사업의 심사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에 해당하는 권고사항과 '분야'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을 분류하고, 권고사항 내용과 해당 사업의 심사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검토 결과는 <표 4-9>과 같으며,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의 권고내용이 이후 사업의 심사에 반영되기도, 반영되지 않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반영 여부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단계 간 연계성은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반영 여부 및 반영 정도가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단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보인다.

48) ① 완공점검: '과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실업교육개선사업',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② 사후평가: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과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완공점검 보고서는 입수하지 못함. 그러나 권고 내용 파악은 2차 사업에 해당하는 '과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의 심사보고서로 유추함. '실업교육개선사업'과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완공점검 보고서에는 특별한 권고 사항 기재가 없음
 49) '과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실업교육개선사업',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및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표 4-9> 주요 권고내용과 사업심사로의 반영 현황

분류	시기	주요 권고내용	해당 사업 ^{주)}	반영여부	비고
개별사업	'9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국 환경(사업실시지역 여건)에 대한 연구 강화 일시적 사업운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 인도네시아가 정부예산 우선적 배정하도록 관심 및 대처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	연구부족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	연구부족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X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X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예산 확보 부족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	
	'0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점검 강화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X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X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X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X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X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X	
	'0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와의 관계 강화 심사시 사업실시기관의 유지관리 의지 점검 및 계획 제출 요청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	관계강화방안 없음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유지관리방안 부족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	관계강화방안 없음
	'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컨설턴트 고용 필요 사전품질검사제도 도입 고려 성과측정지표 설정 의무화 사업 실시기구의 설치 의무화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	품질보증방안 부족	
분야 교통	'9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기에 대한 고려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X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	구체적 방안 없음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	
	'0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단계 에서 부지매입 및 이주에 대해 사업실시기관이 계획 제출 수원국 기준 부합 및 도로 내구성과 기능성 보장하는 건설 기준 적용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	

주) '종합병원 개선사업',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카리안담 건설사업'은 사업심사보고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제외함

3) 주요 단계별 활동의 적절성 검토

본 절에서는 전략에서부터 평가까지 이르는 절차 중, 그 단계의 활동 내용이 크게 사업의 성과 및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CCSP는 이미 CCSP평가에서 평가되었으므로 제외하며, '정책협의 및 Rolling Plan', '사업심사',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 '차관자금 집행', '중간점검, 사업완공보고,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 단계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및 EDCF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았다.

가) 정책협의 및 Rolling Plan 단계

정책협이는 비교적 정례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그 형식 및 구성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재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은 정책협의 기간이다. 2007년 7월 이후 한·인도네시아 정책협이는 현재까지 총 5번 실시되었으며 정책협이에 평균 약 1일 내외가 소요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정책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EDCF) 및 현지 대사관(참가 불규칙)이 참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BAPPENAS, 재무부 및 사업실시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대상자는 적절하나, 정책협의 참석자 수는 20~40여명에 달한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참석자와 충분한 협의 및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책협의에서 가진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의 협의 및 교감의 정도는 추후 사업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정책협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는 한편, 참석자 수의 조정을 권고한다. 필요에 따라 정책협의 대상자를 소수로 나누고 여러 번에 걸쳐 정책협의를 한 후, 마지막으로 전체가 모여 정책협의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한편, 2007부터 현재까지 Rolling Plan에 등재된 사업 중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승인 즉 지원방침이 결정된 사업은 29개 사업 중 6개 사업⁵⁰⁾이다. 또한 Rolling Plan에 등재된 사업의 목표년도가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첫 목표년도에 비해 상당 기간 경과 후 사업이 승인되고 있다. EDCF Rolling Plan 진행상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그 원인은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진행의사 불투명, 지방정부와 BAPPENAS 간 사업진행여부 합의지연, F/S 수정, EDCF의

50) '과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카리안담 건설사업',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칸도 우병원 개선사업' 및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사업범위 조정 요청 후 인도네시아 측 검토 등과 같이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Rolling Plan 등재부터 실제 승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상당히 가변적인 점과 진행 과정상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Rolling Plan 등재에 필요한 기준 및 요건을 정하고 이에 충족하는 사업을 등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등재 이후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도 EDCF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호 협의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업심사 단계

사업심사는 지원추진여부 및 지원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차관 지원 타당성 및 사업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본 내용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사업준비 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며, 동 단계에서의 정확한 점검과 예상위험 판단 및 조치 방안 마련은 사업 수행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심사는 대부분의 EDCF 사업에서 통일된 양식에 따라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타당성 검토 데이터도 잘 선별된 것으로 보이나, 몇몇 사업의 경우,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데이터가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상위험 판단 및 조치 방안 마련의 내용은 책임소재 및 방법 등이 모호하게 기재된 부분도 있다.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심사는 보통 현지심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지심사는 EDCF 본부 직원 1~3인과 기술전문가 1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4~10일 정도 수행되었다. 심사단은 EDCF에 대한 지식을 갖춘 EDCF 본부 직원과 해당 사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외부 기술전문가로 구성되어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심사 시 주요 방문기관은 BAPPENAS와 사업실시기관이며 현장방문도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현지 NGO, 수혜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절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다)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 계약 단계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는 구속성과 비구속성 모두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모두 구속성 원조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구속성 원조 하에서는 컨설턴트 및 구매 모두 한국 업체만이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컨설턴트 고용입찰은 한국 업체 간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었다. 컨설턴트 고용입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사업실시기관이 후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EDCF로 후보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EDCF 본부가 해외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감리협회, 컨설턴트 협회 등의 유관 협회에 도움을 요청, 컨설턴트 후보업체를 추천받아 현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후보업체 추천 시 그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위험요인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구매계약은 한국 업체와의 직접계약 또는 한국 업체간 경쟁입찰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사업이 경쟁입찰로 추진되었으나, 컨설턴트 고용계약 및 구매 계약이 체결된 12개 사업 중 4개 사업⁵¹⁾은 직접계약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들의 착수 이후, 'EDCF 중기운용계획 2006-2009'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쟁입찰 원칙이 확립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에도 현재 동 원칙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한편, 최종 선정된 컨설턴트와 공급 업체를 살펴보면,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일부 업체가 다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동일업체가 수차례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업체가 지닌 기술 및 가격 경쟁력에 기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EDCF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조치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입찰 과정에서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투명성은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⁵²⁾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의 조달·구매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투명하다고 응답한 기관이 8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이 20%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절차는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실시기관의 관련자 면담조사에서도 EDCF의 조달·구매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는 않았다.⁵³⁾

51)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동자바 병원 개선사업'

52) 경험기금업무취급세칙 제3-1조

53)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업실시기관도 있었으나 그 이유를 '필요 기자재가 한국 기자재만으로 조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으로 답변하여, 구속성 원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구속성 원조 형식 하에서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에 대한 특정 업체의 수주율이 높다는 점은, 한국 내에 대등한 경쟁업체가 없어 향후 유사 분야 사업 추진 시 동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또한 같은 시기에 한 업체가 여러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할 경우,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과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의 사례와 같이 업체부도로 인한 여파가 2개 사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정업체의 독보적인 수주가 자칫 품질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품질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종합병원 개선사업'에서는 입찰평가결과에 대해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NGO에서 이의가 접수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후, 동 건에 대한 해명 및 해결은 되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실시기관에서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EDCF는 사업실시기관이 제시한 조달공고 내용 및 선정 기준, 절차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체결 승인시 계약업체가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차관자금 지출 단계

다음으로 EDCF 자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연초에 전망된 2010년도 EDCF 자금 지출 규모는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종합병원 개선사업',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및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의 총 4개 사업에 9,810백만원이다. 그러나 2010년에 실제 지출된 EDCF 자금 지출 규모는 10,536백만원으로서 연초에 전망되었던 금액의 107.4%를 기록함에 따라 실적이 전망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표 4-10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살펴본 최근까지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지원 실적은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0> 2010년도 대 인도네시아 EDCF 자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차관 규모	2010년 지출		
		전망(A)	실적(B)	%(B/A)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19,438	890	785	88.2
종합병원 개선사업	27,539	4,050	4,669	115.3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19,362	2,220	3,006	135.4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19,094	2,650	2,076	78.3
합 계(4개 사업)	100,180	9,810	10,536	107.4

자료: EDCF

한편, 현지 면담조사 결과, 인도네시아의 일부 정부기관에서도 전체 원조 공여자의 자금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이에 따르면, EDCF 자금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를 중점 지원국으로서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정작 수원국 측에서 한국에 대한 실적을 낮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마)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이전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에서는, 사업 진행 중 사업 실시기관이 EDCF에 보고하는 사업진행보고, EDCF가 수행하는 중간점검, 완공 후 사업실시기관이 EDCF에 보고하는 사업완공보고, EDCF가 수행하는 완공 점검 및 사후평가가 대상이 된다. 이 중 검토결과가 유용성을 가지는 몇 가지 단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간점검은 완공점검보고서 또는 사후평가보고서가 있는 9개 사업⁵⁵⁾을 검토한 결과,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및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의 3개 사업에서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과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은 공급자의 부도와 관련하여 현지와 의논 차 현지 방문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간점검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니터링 강화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컨설턴트 고용 없이 공급자가 컨설턴트 기능까지 수행하는 사업은 감리자가 없으므로 투명성 강화차원에서도 더욱 중간점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감독의 주체는 사업실시기관이며, 따라서 EDCF는 물론 사업실시기관도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점검은 사업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지연을 방지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4) BAPPENAS (2010), Project Implementation Performance Reports of Foreign Loans 참조. BAPPENAS가 원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분기별 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 EDCF를 통하여 시행된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의 자금집행 실적이 2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BAPPENAS는 EDCF 원조사업의 자금 집행 결과를 인도네시아 측의 해당 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자금신청자료(withdrawal application)를 제출받아 작성하고 있음. BAPPENAS 측과 EDCF 측이 자금 집행 실적 조사 방법의 차이로 각각이 작성하는 통계 수치 간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바, 인도네시아 측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로 WB 및 ADB, JICA의 경우 지역 사무소가 매달 집행현황 자료를 BAPPENAS에 제공하고 있음

55) '과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실업교육개선사업',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및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사업완공보고는 차관계약 내용에서 사업실시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사업완공보고를 위하여 사업완공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 PCR)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PCR은 별도의 양식이 있고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 사업에서 그 내용이 잘 작성되어 있으나,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내용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한, 모든 사업들의 사업진행보고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업으로 인한 혜택(benefit) 부분을 정성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는 사업실시 초기에 정량적인 목표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수립 시 정량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여건 파악 및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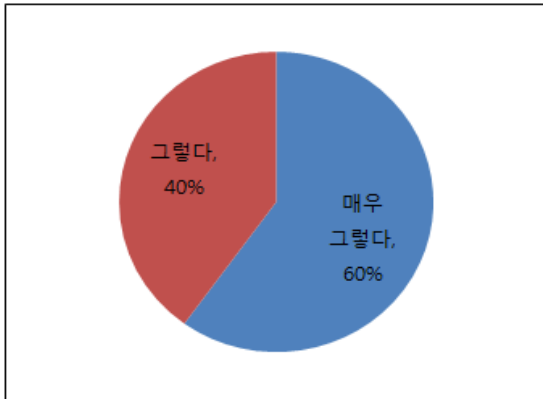
사후평가는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과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EDCF 본부 2인과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어 실시되었으며, 1주일 정도 현지 출장을 포함하고 있다. 사후평가도 별도의 양식 및 평가기준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히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EDCF 사업을 대상으로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가 다수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아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 결과에 대한 빠른 공개가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EDCF 간의 평가결과 공유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 기타: 이해관계자 참여도 및 EDCF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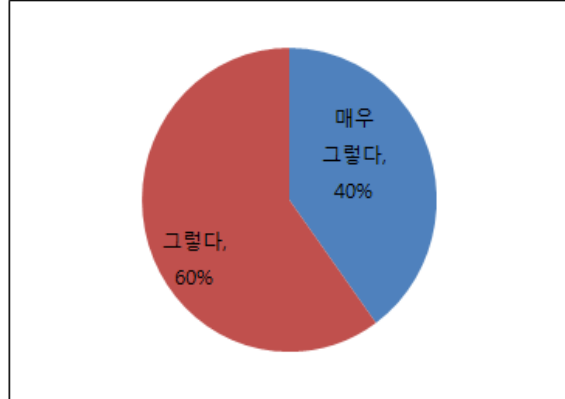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EDCF 추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EDCF와 인도네시아 해당부처 간의 협의는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대화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2 및 4-3 참조).

[그림 4-2] EDCF와 현지부처 간 조율 정도



주: 사업발굴 및 형성단계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그림 4-3] 이해관계자 간 협의 및 대화 참여도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그러나 협의 및 대화 과정에 충분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각 단계별로 지방정부의 참가 정도는 높으나 지역 커뮤니티(지역 주민)와 NGO의 참가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특히, F/S단계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지역 주민)의 참가가 없었으며, 이는 실제 수혜자의 의견수렴이 부족함을 시사한다(표 4-11 참조).

<표 4-11> 이해관계자의 단계별 협의 및 대화 참여도

구분	지방정부	지역 커뮤니티	NGO	타공여기관	학계전문가	민간기업
1 사업발굴	83%	17%	17%	17%	67%	0%
2 F/S	67%	0%	17%	17%	67%	33%
3 사업준비- 실시계획	100%	33%	17%	17%	67%	33%
4 사업실시	100%	17%	17%	17%	33%	67%
5 평가	67%	17%	33%	33%	33%	67%

주: 100%는 설문답변기관 모두 표시를 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EDCF 절차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이해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구매 가이드라인 등 EDCF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별 방문면담조사에서는 EDCF 가이드라인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가이드라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관에

따라 이해도가 다른 것은 정보 제공의 정도 및 이해력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 공여국과 비교하여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니나 EDCF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EDCF의 자금 집행 실적과 관련하여서도 이해 제고 및 상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차관자금 집행에 있어서 BAPPENAS와 EDCF가 각각 EDCF 자금 집행 통계 수치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들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또는 타 원조 공여자 주관의 각종 정기적인 회의 참석을 통해 정보나 인적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EDCF 자금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인도네시아 정부와 충분히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단계별 활동은 적절한 인력이 투입 및 참여하고 통일된 양식 등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단계별로 그 성격에 따라 활동 기간 및 방식 등에 있어 다소 조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EDCF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절차의 운용 및 주요 단계 간 연계성, 주요 단계별 활동의 적절성을 통해 사업수행절차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다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략 수립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까지의 단계가 순차적·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다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F/A가 해당연도 연말에 체결되어 원조 예측성을 다소 저해한 점과,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컨설턴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컨설턴트 고용이 구매 절차와 동시에 진행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계성의 경우, 'CCSP와 F/A 간', 'CCSP와 Rolling Plan 간', 'CCSP와 정책협의 간'의 연계성은 높으나, '심사와 사업실시 간', 그리고 '완공점검과 CCSP 단계 간',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와 심사 단계 간'의 연계성은 보통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권고 사항이 다른 단계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하는 점은, 단계 간 내용 반영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및 구속력 있는,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권고사항이 단순히 기재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EDCF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계별 활동이 더욱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동계획의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나. 효율성

1)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의 정도

EDCF의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업실시기간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실시 이전까지의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지원 추진에 있어, 정부 간 협정 절차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 간 절차 개선이 실제 사업수행절차의 효율성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절차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EDCF 지원 초기에는 정부간 교환각서(Exchange of Note: E/N) 및 A/G, A/R 체결을 통해 추진하였으나,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부터는 E/N을 생략하고 A/G 및 A/R 체결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에 승인된 ‘칸도우병원 개선사업’부터는 A/R이 생략되고 F/A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선 정책이 실제로 사업 추진기간 단축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F/A 도입 이후 지원방침결정부터 L/A 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이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칸도우병원 개선사업’과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의 추진 소요기간은, 과거 소요기간과 대비하여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F/A 도입은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정부간 협정형태 변화와 사업 추진 소요기간

(단위: 일)

#	정부간 협정	사업명	소요기간 ^{주)} (지원방침결정~L/A체결)
1	정부간 교환각서(E/N) 정부간 기본협정(A/G) 시행약정(A/R)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645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224
		실업교육개선사업	543
2	정부간 기본협정(A/G) 시행약정(A/R)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1,827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215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277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119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409
		종합병원 개선사업	580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814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281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221
3	정부간 기본협정(A/G) 정부간 기본약정(F/A)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106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106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63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376

주) 1달을 30일로 가정

다만 이러한 정부 간 협정 형태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별로 그 소요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요기간이 짧게는 106일(약 3개월)에서 길게는 1,827일(약 5년)까지 다양하며,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 사업은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이다. 동 사업의 경우 경제 위기로 인한 환율상승과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범위 및 사업비 관련 양국 간 협의과정이 길어진 바 있다. 이 외에도 교통 분야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의 사업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지원방침결정부터 구매 계약 체결까지의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을 <표 4-13>과 같이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지원방침결정부터 L/A 체결까지는 평균 437일(약 14개월), L/A 체결부터 컨설턴트 고용까지는 평균 405일(약 13개월), L/A 체결부터 구매계약 체결까지는 평균 449일(약 15개월), 지원방침결정부터 구매계약까지는 평균 962일(약 3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턴트 고용과 구매계약의 경우 1997년 6월 신설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11조(기금지원절차)⁵⁶⁾에서 컨설턴트 고용과 구매 절차를 L/A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1997년 승인된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비해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한편, L/A체결 → 컨설턴트 고용 → 구매계약 단계 간의 소요기간도 사업별로 그 소요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13> 사업 추진 소요기간 (지원방침결정~구매계약체결)

(단위: 일, 1달 30일로 일괄산정)

사업명	소요기간			
	지원방침결정 ~L/A체결	L/A체결~ 컨설턴트고용	L/A체결~ 구매계약체결	지원방침결정 ~구매계약체결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¹⁾	645	525	517	1,162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543	846	846	1,070
실업교육개선사업	183	-	797	1,340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1,827	399	444	2,271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215	-	86	301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277	-	69	346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119	-	46	165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409	-	382	791
종합병원 개선사업 ²⁾	580	-	1,179	1,759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814	641	731	1,545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281	21	148	429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221	1	152	373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³⁾	106	-	-	-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³⁾	106	-	-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³⁾	263	-	-	-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³⁾	376	-	-	-
평균	437	405	449	962

주: 1) 구매계약이 컨설턴트 고용보다 앞서 수행됨
 2) 컨설턴트 고용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매계약이 먼저 수행됨
 3) 구매계약 및 컨설턴트 고용 예정임

전체 EDCF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단계 간 평균 소요기간을 제시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1997~2006년 평균 자료⁵⁷⁾와 2001~2005년 평균 자료⁵⁸⁾가 있다.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추진의 평균 소요기간을 <표 4-14>과 같이 재구성

56) ③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간 협정과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동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신설 1997.6.13>

57) 엄성용 (2008),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국제교육개발협력, p.13 참조.

58) 재정경제부 (2006), 2006-2009 EDCF 중기운용계획, p.7 참조.

하여 전체 EDCF 사업의 평균 소요기간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의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은 전체 EDCF 사업 대비 1997~2006년 동안에는 짧았으나, 2001~2005년 동안에는 오히려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방침결정부터 구매계약 체결 단계까지에 있어, 전체 EDCF 사업의 평균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대폭 단축된 데 비해,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의 동 단계 간 평균 소요기간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14> 사업 추진 소요기간 비교 (지원방침결정~구매계약체결)

승인 시기	전체 EDCF 평균 소요기간		인도네시아 EDCF 평균 소요기간	
	지원방침결정 ~ L/A체결	L/A체결 ~ 구매계약체결	지원방침결정 ~ L/A체결	L/A체결 ~ 구매계약체결
'97~'06	15개월	14개월	12개월	11개월
'01~'05	9.4개월	6.4개월	12개월	17개월

이상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을 살펴본 결과, F/A 도입 이후 지원방침결정 → L/A 체결 단계의 평균 소요기간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L/A 체결 →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 단계의 평균 소요기간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에는 부합하나, 전체 EDCF 사업 추진의 평균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단축이 필요하다.

한편, 지원방침결정부터 구매계약 체결까지의 단계 간 소요기간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어, 소요기간이 일관성 있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속한 EDCF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실시기관에서 사전에 토지매입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 여건을 보다 신속히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EDCF와 사업실시기관 상호간 위험 요소 대비 및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추진 일정의 준수

본 절에서는 EDCF 사업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한 날짜와 실제 추진한 날짜를 비교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차이의 정도에 대해 평가하였다. 검토 대상으로는 사전에 계획일이 설정되어 있는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 및 '사업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를 중심으로 보았다.

가)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 체결일 산정에 있어, 97년도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정확한 계획일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1997년 6월 신설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11조(기금지원절차)⁵⁹⁾에 의거,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 체결 계획일을 L/A 발효부터 18개월로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14개 사업 중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은 계획된 시간 내에 컨설턴트 고용계약 및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개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대비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이 지연되었다(표 4-15의 빗금 표시 행 참조).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업실시기관은 컨설턴트 고용 당시 지원한 후보 컨설턴트들의 역량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최종 컨설턴트 선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EDCF 주재원과의 면담조사 및 사업실시기관이 제출하는 사업완공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 PCR), EDCF가 작성하는 완공점검보고서 및 사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실시기관이 컨설턴트 및 공급자를 결정함에 있어 내부 행정 절차 및 협상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연 사유들을 볼 때, 사업실시기관은 내부 행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EDCF의 컨설턴트 정보 제공 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EDCF 본부에서는 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컨설턴트 고용에 필요한 업체정보를 송부하고 업체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EDCF는 사업실시기관에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시 컨설턴트 후보 업체의 제출 서류 추가, 컨설턴트 고용을 지원할 인력 투입 및 비용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9) ③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간 협정과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동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신설 1997.6.13>

<표 4-15> 사업 추진 일정 대비 목표 달성 현황 (L/A체결~구매계약체결)

#	사업명	승인	L/A 체결		컨설턴트 고용		구매계약 체결	
			계획	실제 (체결/발효)	계획	실제	계획	실제
1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87.12.4	-	89.9.19/ 91.1.19	92.7.18	91.3.4	92.7.18	91.2.26
2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91.9.16	-	92.4.30/ 92.8.18	94.2.17	94.9.6	94.2.17	94.9.6
3	실업교육 개선사업	94.2.8	-	95.8.11/ 95.11.10	X	X	97.5.9	97.10.28
4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94.12.12	-	01.1.9/ 01.4.19	02.10.18	02.2.18	02.10.18	02.4.3
5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97.9.26	-	98.5.1/ 98.8.17	X	X	00.2.16	98.7.27
6	병원폐수 처리 시설 확충사업	99.12.8	-	00.9.15/ 01.1.4	X	X	02.7.3	00.11.24
7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 사업	00.7.4	01.4.3	00.11.3/ 01.1.4	X	X	01.7.3	00.12.19
8	국가범죄정보 센터 개발사업	04.6.3	-	05.7.22/ 05.10.26	X	x	07.4.21	06.8.14
9	종합병원 개선사업	05.12.26	-	07.8.6/ 07.10.26	09.4.5	예정	09.5.5	10.11.15
10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2차)	06.7.12	-	08.10.16/ 09.2.13	10.8.12	10.7.27 (수은 동의)	10.8.12	10.10.27
11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06.9.28	-	07.7.9/ 07.8.23	09.2.23	07.7.30	09.2.23	07.12.7
12	국가정보통신 교육원 건립사업	06.11.28	-	07.7.9/ 07.8.23	09.2.23	07.7.10	09.2.23	07.12.11
13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08.11.20	-	09.3.6/ 09.5.27	10.11.26	예정	10.11.26	예정
14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08.11.20	-	09.3.6/ 09.5.27	10.11.26	예정	10.11.26	예정
15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09.11.26	-	10.8.19/ 10.10.11	12.4.10	예정	12.4.10	예정
16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09.12.17	-	11.1.3/ 11.4.14	12.7.2	예정	12.7.2	예정

주: -: 심사/평가보고서 기재사항 없음 또는 아직 미정임. X: 실시하지 않음 또는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실시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가 실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 중 일정이 연장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 보고서 검토 결과, 완공된 7개 사업 전체⁶⁰⁾가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대비 실제 사업기간의 차이는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사후평가 대상으로 제외

<표 4-16> 사업 완공 일정 대비 목표 달성 현황

#	사업명	사업완공		
		계획	실제	차이
1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컨설팅 서비스 26개월	컨설팅 서비스 31개월	5개월
		시공 37개월	시공 43개월	6개월
2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사업준비 36개월	사업준비 45개월	9개월
		구매/실시 23개월	구매/실시 29개월	6개월
3	실업교육개선사업	97.8	99.8	24개월
4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컨설팅 서비스 29개월	컨설팅 서비스 40개월	11개월
		시공 29개월	시공 37개월	8개월
5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설치완료 00.7	설치완료 99.3	-17개월
		유지보수완료 01.3	유지보수완료 02.3	1년
6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05.1.3	06.8.22	19개월
7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03.6.3	04.6.30	1년
8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09.3.6	09.6.30	4개월

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다양하나 크게 분류하면 '사업 중 위험 요소 발생, 사업범위 변경, EDCF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구매계약체결 지연 및 변경' 등이었다. 발생한 위험 요소는 '예상하지 못한 폭우, 공급자 부도, 통관문제 발생, 분리독립 시위 및 경제위기' 등이었고, 사업범위 변경은 주로 '부지 변경,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등에 기인했다. EDCF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은 주로 'EDCF 규정 미숙지 및 사업실시기관의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담당자의 사업 이해 부족'에 기인하였다.

이와 같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실시기관이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 및 EDCF가 실시하는 심사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확히 사업을 설계하고 관계 당사자 간 사업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합의 및 확정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후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및 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주요 관계 당사자인 EDCF, 사업실시기관 및 공급자 간에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업의 주요 관계 당사자 간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진 예도 있다. 2개 EDCF 사업을 수행 중이던 공급자의 부도 사태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였으나 EDCF, 사업실시기관 및 공급자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기에 잘 대처한 바 있다.

다)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EDCF의 모니터링 및 평가 주체는 사업실시기관과 EDCF이다. 사업실시기관은 EDCF에 사업실시 중 정기적으로 사업진행보고서(Progress Report)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완공 후에는 사업완공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 PCR)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EDCF는 필요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완공보고서 접수 이후 완공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진행보고서는 개별 사업별로도 그 숫자가 방대하여 파악이 어려운 바, 사업완공보고, 완공점검 및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지원사업 평가의 계획대비 실제 진행 상태를 점검하였다.

사업완공보고서는 사업완공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있다. 이는 사업실시기관의 차관 준수 의무사항 중 하나이다. 완공 또는 사후평가보고서가 있는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9개 사업 모두 완공보고서는 제출되었으나 7개 사업에 대한 완공보고서가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되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표 4-17> 완공보고서 제출 일정 대비 목표 달성 현황

#	사업명	완공 보고서	완공일	완공보고서		
				계획 (제출일)	실제 (접수일)	차이
1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	- (최종자금지출일 94.3.14 이전추정)	- (94.9.13 이전)	95.4.28	최소 6개월 지연
2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	- (최종자금지출일 98.7.9 이전추정)	- (98.1.8 이전)	99.6.1	최소 5개월 지연
3	실업교육개선사업	○	99.8	00.2	01.4.11	14개월 지연
4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	05.6	05.12	06.10.19	10개월 지연
5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	99.3(설치완료) 02.3(유지보수완료)	99.9	03.7.3	46개월 지연
6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	06.8.22	07.2.21	08.3.25	13개월 지연
7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	04.6.30	04.12.29	04.9.30	기간 내 수행
8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	- (최종자금지출일 07.7.27 이전추정)	- (08.1.26전)	10.10.11	최소 33개월 지연
9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	09.6.30	09.12.29	09.12.11	기간 내 수행

주: 제출일과 접수일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완공점검은 사업완공 후 1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있었으나,⁶¹⁾ 1996년 규정이 바뀐 이후 PCR 접수 후 6개월 내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⁶²⁾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완공점검 계획일을 1997년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된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을 기점으로, 이전 사업은 PCR 접수 후 1년 내, 이후 사업은 PCR 접수 후 6개월 내로 적용하여 계획일을 추산하였다. 사업완공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 완공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8개 사업을 검토하였다. 실제 실시된 날짜와 비교하여 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보다 빠르게 완공점검이 수행되었다. 지연된 사업은 2개로 각각 3개월과 6개월 정도 지연되어 완공점검이 수행되었다 (표 4-18 참조). 그러나 PCR 자체가 대부분 지연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공점검도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렇듯 전 단계는 다음 단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4-18> 완공점검 일정 대비 목표 달성 현황

#	사업명	완공점검	PCR접수	완공점검		차이
				계획	실제	
1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	95.4.28	96.4.27	95.10.31	기간 내 수행
2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	99.6.1	00.5.31	99.12.22	기간 내 수행
3	실업교육개선사업	○	01.4.11	02.4.10	01.6.26	기간 내 수행
4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	06.10.19	07.10.18	07.1.26	기간 내 수행
5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	03.7.3	04.1.2	03.10.27	기간 내 수행
6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	08.3.25	08.9.25	08.4.28	기간 내 수행
7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	04.9.30	05.3.29	05.6.3	3개월 지연
8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	09.12.11	10.6.10	10.12.10 (완공점검표)	6개월 지연

사후평가는 대상이 총 7개 사업이며,⁶³⁾ 이들 중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과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의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사후평가가 실시되었다 (표 4-19 참조).⁶⁴⁾ 이들 2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사업완공 후에 약 5~6년이

61) 1990.3.23 평가관련 규정 제정

62) 1996.6.28 평가관련 규정 개정

63)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실업교육 개선사업’,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64)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사후평가 진행 중

지나서 실시되었다. 이는 과거 사후평가가 평가 업무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⁶⁵⁾ 사후평가 규정은 추후 수정되어 필요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었고,⁶⁶⁾ 이후 2천만 달러 이상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으며,⁶⁷⁾ 현재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⁶⁸⁾ 향후에는 적시에 사후평가가 수행되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표 4-19> EDCF 사업 사후평가 개요

#	사업명	완공시기	사후평가 실시일	차이	세부사항
1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02. 3월	06. 10월	약 6년	현지출장 06.12.11~18 EDCF 본부2인 + 외부전문가 1인
2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04. 6월	09. 11월	약 5년	현지출장 09.11.8~13 EDCF 본부 2인 + 외부전문가 1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는 정기적이고 계획대로 실시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평가 단계는 원조의 성과 및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교훈점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향후 원조의 추진에 있어 질을 제고하고 상호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계획된 시기에 평가를 수행하여 피드백 장치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절차의 효율성은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의 정도’와 ‘추진 일정의 준수’ 측면에서 양호한 부분도 있으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 평균이 전체 EDCF 평균 기간과 비교하여 다소 더 걸렸으며, 계획된 일정보다 더 지연되어 수행된 사업도 있었다.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유동성있게 기간연장 등을 통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나, 가능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절차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5) 경험기금업무취급규정, 1998; 1999; 2000

66) 경험기금업무취급규정, 2002

67) 경험기금업무취급규정, 2005; 2006

68) 경험기금업무취급규정, 2009; 2010

3. 지원사업 평가

본 절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 평가는 198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승인이 이루어진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OECD/DAC의 5대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 평가방법으로는 완공점검, 사후평가 등 기존 평가 문헌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현지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 면담조사 결과가 다각적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본 평가는 국별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가급적 각각의 EDCF 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보다는 지원사업의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교훈점 및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적절성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의 적절성은 사업의 목표가 EDCF의 정책에 부합하고, 수원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EDCF의 대 인도네시아 CCSP와 인도네시아 개발수요 및 전략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1) 대 인도네시아 CCSP와의 연계성 및 적절성

우선,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과 CCSP 사이의 전반적인 연계성을 살펴보면, 평가대상 사업이 모두 CCSP와의 연계성 및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5년에 대 인도네시아 CCSP 수립 시, 2005년 이전에 이미 인도네시아에 중점적으로 지원된 사업 분야들을 CCSP에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평가대상 사업 모두 CCSP의 2대 목표인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를 충족시키는 분야에의 기여'를 지향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표 4-20> 평가대상 사업과 CCSP와의 부합성

사업명	사업 목적	CCSP 중점 지원 목표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 사업	정보통신 인력의 육성 및 교육 등을 통한 정보통신 산업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현행 특허행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전국적인 범죄정보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범죄 정보 제공 체계구축 및 이를 통한 범죄예방 도모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통관, 출입국, 항만관리, 인사예산관리 및 대민정보 서비스 제공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파당시 교통난 완화, 화물 수송능력 제고 및 시 외곽지역 개발 촉진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중심도로의 교통량 완화, 도시 중심 도로망의 간선도로 확보 및 도시의 미래개발 지원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2차)	마나도 우회도로 1차 사업의 연장구간을 건설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을 살림으로써 마나도시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물류체계를 개선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기존 2차로인 파당시 우회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교통체증 완화, 지역경제 발전 도모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이동식 직업훈련실시를 통한 농촌지역의 기술개발 및 경제발전에 기여	BHN 충족
실업교육개선사업	인도네시아 저개발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으로 인적자원 개발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칼리만탄 지역 병원에 최신 의료기기 공급을 통한 병원시설 개선 및 지역주민 복지 향상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동자바 지역 병원에 최신 의료기기를 공급함으로써 병원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종합병원 개선사업	수도 및 지방소재 4개 종합병원에 첨단 의료장비 확충 및 선진 의료기법 도입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수준 질적 제고와 주민복지 향상 도모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마나도의 대학 부속병원이자 종합병원인 칸도우 병원에 의료기자재 공급을 통해 마나도 지역의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개선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아담말릭 병원의 시설 및 의료 기자재 확충을 통해 진찰 및 치료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북부 수마트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환경 개선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 사업	병원폐수 등 수질오염 방지 및 질병발생 억제 및 병원폐수 처리시설 및 수질관리능력 제고	

다음으로,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과 CCSP의 우선 지원분야간 연계성을 살펴보면, CCSP가 수립되기 이전에 승인된 사업들은 CCSP 상의 최우선 지원분야인 정보통신 분야 사업 1개와 우선 지원분야인 교통 분야 사업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청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를 충족시키는 분야인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6~2007년도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지원된 EDCF 사업 분야는 정보통신(2건) 및 경제인프라(1건)로서 모두 'EDCF 중기운용계획(2006-2009)'에서 우선시한 분야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8~2009년 사이에 지원된 EDCF 사업 분야는 경제인프라(1건), 사회인프라(2건) 및 정보통신(1건)으로 'EDCF 중기운용계획(2008-2011)' 및 'EDCF 중기운용계획(2008-2012)' 상의 우선 지원분야에 적절히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참조).

<표 4-21> CCSP 및 EDCF 중기운용계획 상의 우선 지원분야

EDCF 운용 계획	우선 지원분야
CCSP(2006-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선 지원분야 : 정보통신 분야 ▪ 우선 지원분야 : 수자원 개발 및 교통 ▪ 이 외에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 충족 지원분야
EDCF 중기계획(2006-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지원분야 : 정보통신 (IT 서비스 등) ▪ 2순위 지원분야 : 경제인프라 (수송, 항만, 발전, 송배전) ▪ 3순위 지원분야 : 사회인프라 (병원, 상하수도, 직업훈련)
EDCF 중기운용계획(2008-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지원분야 : 경제인프라 (정보통신 제외) ▪ 2순위 지원분야 : 사회인프라 ▪ 3순위 지원분야 : 정보통신
EDCF 중기운용계획(2008-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선 지원분야 : 기후변화 및 농업 관련 분야 ▪ 이 외에 경제인프라, 사회인프라, 정보통신 분야는 계속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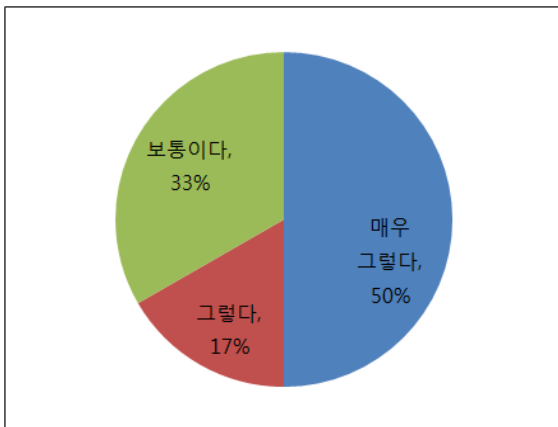
<표 4-22> 평가대상 사업과 CCSP 및 EDCF 중기운용계획과의 부합성

분야	사업명	승인연도	CCSP	연계분야
교통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1987	CCSP (2006-2009)	교통
교육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1991		BHN
교육	실업교육개선사업	1994		BHN
교통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1995		교통
보건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1997		BHN
보건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2000		BHN
공공행정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2004		정보통신
보건	종합병원 개선사업	2005		BHN
교통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2006	EDCF 중기운용계획 (2006-2009)	경제인프라
공공행정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2006		정보통신
ICT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2006		정보통신
보건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2008	EDCF 중기운용계획 (2008-2012)	사회인프라
보건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2008		사회인프라
교통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2009		경제인프라
ICT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09		정보통신

2) 인도네시아 개발수요 및 전략과의 부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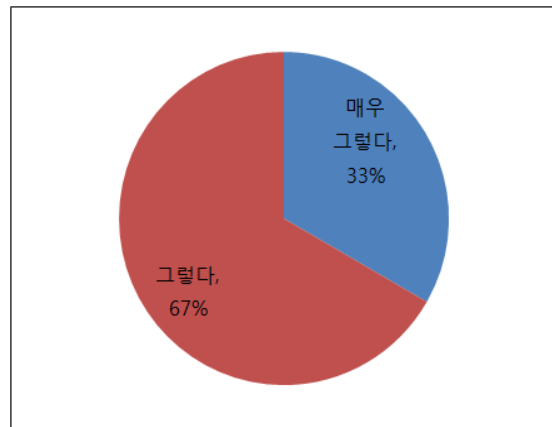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EDCF 사업은 수원국인 인도네시아의 주요 개발정책 방향 및 개발수요와의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4-4 및 그림 4-5 참조).

[그림 4-4] 수원자 개발정책 전략과의 부합 수준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그림 4-5] 수원자 개발 수요와의 부합 수준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25년 단위의 국가장기개발계획(PJP), 5개년 경제개발계획(Repelita), 장기개발 계획(RPJPN), 중기개발계획(RPJMN) 등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인도네시아 핵심 개발정책으로서 각각의 계획마다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 대상 사업의 수원국 정책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아래의 <표 4-23>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핵심 개발정책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요소가 각각의 평가대상 EDCF 사업과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최근의 보건, 공공 행정 및 ICT 분야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기개발계획(RPJMN)을 통한 주요한 개발과제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4-23> 평가대상 사업과 수원국 정책의 연관성

분야	사업명	승인 연도	관련 수원국 정책	연계분야
교통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	1987	▪ PJP I (1969-1993) ▪ Repelita IV (1984-1988)	산업발전을 위한 균형된 경제구조 건설
교육	이동식 직업훈련 사업	1991	▪ PJP I (1969-1993) ▪ Repelita V (1989-1993)	고용기회 촉진 및 형평성 있는 소득 분배
교육	실업교육 개선사업	1994	▪ PJP I (1969-1993) ▪ Repelita V (1989-1993)	고용기회 촉진 및 형평성 있는 소득 분배
교통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	1995	▪ PJP I (1969-1993) ▪ Repelita VI (1994-1998)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운송 서비스 효율성 증대
보건	칼리만탄 병원 개선	1997	▪ PJP II (1994-2018) ▪ Repelita VI (1994-1998) ▪ 전국 지방병원 개선계획 (1996)	인적자원의 질 향상
보건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	2000	▪ PJP II (1994-2018) ▪ 전국 지방병원 개선계획 (1996)	인적자원의 질 향상
공공 행정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	2004	▪ RPJMN I-(3)-5 (2005-2009)	개발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보건	종합병원 개선사업	2005	▪ RPJMN I-(3)-2 (2005-2009)	지역간 개발 격차 축소
교통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2006	▪ RPJMN I-(3)-2 (2005-2009)	지역간 개발 격차 축소
공공 행정	바탐 전자정부 구축	2006	▪ RPJMN I-(2)-3, (3)-2 (2005-2009)	지방자치/분권화 추진 및 지역간 개발 격차 축소
ICT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2006	▪ RPJMN I-(3)-3 (2005-2009)	인간개발지표(HDI) 향상
보건	칸도우병원 개선사업	2008	▪ RPJMN I-(3)-2 (2005-2009)	지역간 개발 격차 축소
보건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2008	▪ RPJMN I-(3)-2 (2005-2009)	지역간 개발 격차 축소
교통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	2009	▪ RPJMN I-(3)-2 (2005-2009)	지역간 개발 격차 축소
ICT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2009	▪ RPJMN I-(3)-5 (2005-2009)	개발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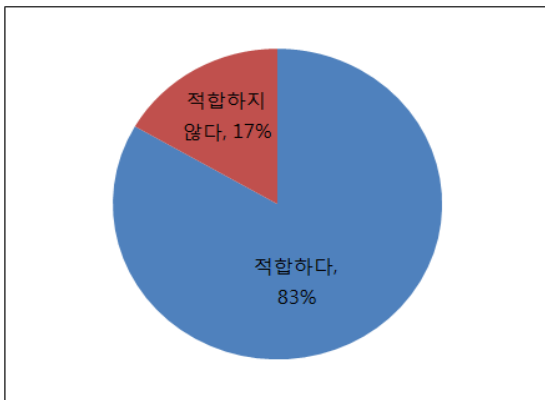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평가 대상의 EDCF 사업이 모두 CCSP와의 연계성 및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평가 대상 사업은 수원국인 인도네시아의 주요 개발정책 방향 및 개발수요와의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효율성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의 효율성은 '사업요소의 투입-산출 효과'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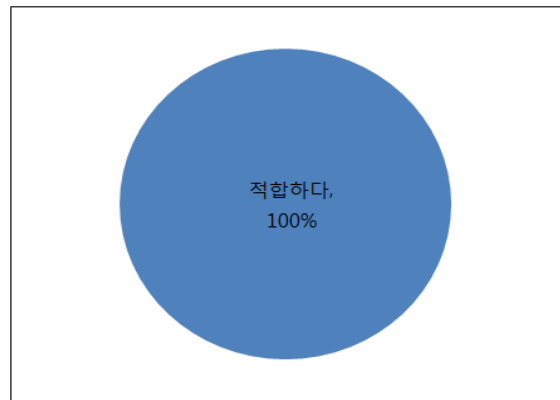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세부 사업구성, 투입요소, 예산 및 투입기간 등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그림 4-6 및 그림 4-7 참조).

[그림 4-6] 세부적 투입요소의 적합도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그림 4-7] 총 예산과 각 예산 항목의 적합도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그러나 각 사업에 대한 완공점검 보고서 검토 결과, 현재 완공된 9개 사업 중 완공점검이 예정된 2개 사업을 제외하고 7개 사업이 당초 계획된 시한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모든 사업비가 계획된 EDCF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에서 계획된 사업내용이 사업실시 중에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4 참조). 이에 대한 주된 변경 사유로는 물가상승 또는 환율변동, 수원국 측의 요청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었다. 그러나 '칼리만탄 병원 개선

사업'의 경우, 사후평가 보고서⁶⁹⁾에 따르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에서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실시과정에서 공급기자재 선정을 위한 외부 컨설턴트의 고용 등 사업실시과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본 사업과 같은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에 있어서 고가 기자재 공급 등이 핵심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수요파악을 통해 예상 공급량을 확정하고 사업 실시단계에서 분리구매 등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수량을 공급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표 4-24> EDCF의 사업별 계획 대비 지출 비교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명	추정사업비 (A)	실제사업비 (B)	차액 (A-B)	사업내용 변경
교통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9,839	9,774	65	사업범위 일부 변경, 공기연장 및 물가상승 등으로 비용 초과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13,318	13,203	115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원 마련 실패로 사업 범위 축소
교육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18,181	16,994	1,187	없음
	실업교육 개선사업	8,100	7,992	108	환율과 물가상승으로 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수량 조정
보건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27,534	27,340	194	고가의료장비의 수량 축소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34,369	32,901	1,468	인도네시아측의 요청으로 의료 장비 수량 조정
공공 행정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14,747	14,124	623	시스템 설계 변경 및 기존 시스템 유지에 따른 H/W 및 네트워크 기자재 일부 변경

주: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과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은 완공점검 예정으로 본 분석에서 제외

결과적으로, 현재 완공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된 완공시한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요소의 투입-산출 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효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69) 한국수출입은행 (2007), 사후평가보고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병원 개선을 위한 EDCF 지원사업, p.15~16 참조.

다. 효과성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의 효과성은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려 하였으며, 이를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 여부', '사업성과 및 기여 분야', '사업효과성 기여요인 및 개선사항'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1)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 여부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의 목표 수립 및 달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평가 보고서,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의 세부항목에 따르면, 사업 내 시설의 건설 및 장비의 공급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사업실시기관 담당자는 해당 사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체 지원사업 중 최근에 완공된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은 사업 목적 설정이 적절하고 목표달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전체 3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을 EDCF에서 지원하였다. 본 사업 이전에 범죄정보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정보센터 전산 및 정보화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주로 수작업에 의해 범죄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이고, 통합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 분야 관련 면담에서는 EDCF에서 지원한 '이동식 직업훈련사업'의 경우에 개혁 및 지방자치 시기인 2005년 이후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한국에서 공급한 대부분의 교육 장비는 현재 손상되었거나 사라진 상태로 나타나 단기적 목적만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해소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2001년에 완공된 '실업교육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DCF에서는 본 사업을 통하여 컴퓨터, 어학실습기 등의 교육용 기자재를 25개 실업계 고교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자 면담에 따르면, 최신 실습 기자재 공급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에게 요구되는 문서작성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및 어학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사업의 진행 당시, 실업학교 당 전체 학생 수는 300~400명으로 3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매년 학교 당 졸업생 수는 90~120명 정도였으나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실업학교의 질적 향상은

교사의 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사업이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사후평가 보고서 및 면담결과에 따르면, '실업교육개선사업'에 소요된 기자재는 대부분 국산 기자재를 공급하였으며 공급된 장비의 질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자, 책상 등 실습실용 가구류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공급하였으며, 한국에서 생산이 중단된 수동 타자기는 부득이 제3국산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제3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한 수동 타자기의 경우에 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수동 타자기의 자판이 불량인 경우가 많아 쉽게 망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고장난 수동타자기의 경우에는 공급된 후 1년간의 보장된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새 타자기로 교체해 주었다. 이와 같은 측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EDCF 지원의 장비 공급에서 질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제3국산의 장비인 경우에는 한국산과 동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성과 및 기여분야

평가보고서,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 기여하였는데, 특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된 기여분야로 '기술 및 관리역량 배양' 및 '경제적 편익 창출 및 소득증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⁷⁰⁾ 이에 반해, '정책 및 제도개선' 및 '사회적 복지 증대'에 대한 기여는 상대적으로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및 역량구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아니라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보고서,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한 중점분야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통 분야

우선 교통 분야의 경우 1995년과 2006년에 각각 완료된 '과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운행비용 및 승객의 차량이동시간 절감, 도시 도로

70)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에 대한 수원기관 설문결과 참조

지출비용 및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개발이익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주요 기여내용으로 들 수 있다.

나) 교육 분야

교육 분야의 경우 농촌지역 교육훈련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습능력 향상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HRD) 및 고용창출 등을 주요 기여내용으로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 26개주 139개 지역에 대한 '이동식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낙후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완료된 사업이다(표 4-25 참조). 또한 2001년에는 인도네시아 저개발지역에 위치한 25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실업교육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최신 실습 기자재 공급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에게 요구되는 문서작성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어학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이동식 직업훈련사업의 추진 실적

구분	내용
훈련지역	26개주 139개 지역
훈련기간	80시간(1개월 훈련)
훈련대상	만 15세 이상의 인도네시아인 남녀
훈련목표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 실시로 기능을 향상하여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훈련내용 구성	- 일반교육(8시간-일반생활, 직업적성, 동기유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전문교육(실기 60%, 이론 40% 정도로 구성)
훈련실시 직종 (16개)	① 곡물가공 ② 과일가공 ③ 기호식품가공 ④ 수산식품가공 ⑤ 담수 양어 ⑥ 양계 ⑦ 봉재 ⑧ 자수 ⑨ 등공예 ⑩ 죽세공 ⑪ 목공예 ⑫ 목공 ⑬ 목재가구 제작 ⑭ 등가구 제작 ⑮ 기초 전기수리 ⑯ 라디오 및 오디오 수리

다) 보건 분야

보건 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의료시설 낙후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질병발생률 감소 등을 주요 기여내용으로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국지방병원개선계획(Improvement of District Hospitals)'의 일환으로 추진된 '칼리만탄병원 개선사업'과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칼리만탄 지역의 18개 병원과 동자바 지역의 26개 병원에 의료장비, 병원시설 개보수, 교육훈련 등이 제공되었다. 특히, 2가지 보건사업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의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업실시 병원의 등급⁷¹⁾ 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6 참조).

<표 4-26> 사업실시 병원의 등급 개선 내용

칼리만탄 지역 병원 (총 18개 병원)			
병원 등급	심사시	현재	비고
B등급	3개	3개	D⇒C 9개
C등급	6개	15개	
D등급	9개	-	
동자바 지역 병원 (총 26개 병원)			
병원 등급	심사시	현재	비고
A등급	1개	2개	B⇒A 1개 C⇒B 12개 D⇒C 1개
B등급	2개	13개	
C등급	22개	11개	
D등급	1개	-	

라) 공공행정 및 통신 분야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원된 사업들을 통하여 수원국의 ICT 분야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완공된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한국 최초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에 지원한 정보통신 분야 사업으로서 그 사업범위는 바탐시 지방정부의 통관, 출입국, 항만 관리, 인사·예산관리 및 대민정보서비스를 총망라하는 ICT 시스템 구축과 ICT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바탐산업개발청에 따르면, 향후 EDCF에서는 본 사업을 모델로 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의 500개 전체 지방정부에 대한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현재 마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Box 4-1 참조).

71) 병원등급은 의료인력, 진료과목수, 의료장비수, 병상수 등을 토대로 분류
(병상수 예시 : A급 500병상 이상, B급 200병상 이상, C급 100병상 이상, D급 20병상 이상)

<Box 4-1> EDCF의 ICT 분야에 대한 기여

2006년에 승인된 EDCF 지원의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2009년 말에 완공되었다. 본 사업은 완공을 통해 정보 센터 등 바탐시의 전자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기개발계획 중 주요 목표인 'e-Government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산업, 무역 및 관광 분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향상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SEAN 10개국이 합의한 '아세안 물류통합시스템(ASEAN Single Window)'과의 연계성을 통해 무역 관련 서류의 접수, 통관수속 등의 일괄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 및 이에 따른 산업발전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경제특구인 바탐 지역의 지리적 이점 및 양호한 산업기반시설의 기반 하에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국가물류통합시스템이 확충됨으로써 무역, 물류 중심지로서 바탐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바탐정보센터(Batam Information Center)'를 시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정부 단위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바탐정보센터(Batam Information Center)'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사업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한다면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체 EDCF 사업 중 최근에 완공된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의 경우, EDCF 지원의 1단계 사업 이후 이와 연계하여 2단계와 3단계 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에 대한 EDCF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 전역 5,000개 포인트 중 169개 포인트를 연결하였으며, 이는 전체 자카르타 지역뿐 아니라 일부 지역 경찰서(POLDA)의 포인트를 연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계획된 2단계 및 3단계 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 전역 5,000포인트를 모두 연결하고, 정부 내 서로 다른 부서 간에도 시스템을 연결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내 범죄정보의 등록, 관리 및 공유를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보센터 구축이라는 사업의 목적 뿐 아니라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까지도 효과적으로 달성된 사례이다.

3) 사업효과성 기여요인 및 개선사항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면담 및 설문결과, 전반적으로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아래의 <표 4-27>는 인도네시아 설문 결과 중 사업 효과 측면에서 EDCF의 빠른 행정절차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과 사업 완공 후의 빠른 평가 실시 필요 등의 부정적 요인을 나타낸다.

<표 4-27> 사업 효과성 관련 요인

구분	내용
긍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CF 측과 인도네시아 측의 양쪽 책임 하에 사업 수행 ▪ EDCF 측의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 ▪ EDCF 측의 빠른 행정절차 ▪ 공급자의 완벽한 기술적 조언
부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완공 후에 즉각적인 평가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주재원이 사업실시기관을 위한 상담 업무를 현재보다 더욱 심도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피드백에 대한 빠른 반응을 위해서 주재원과 EDCF 본부와의 협력이 보다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사업을 수행한 한국 컨설팅 및 공급자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발견되었다.

- ①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원활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
- ② 공용어가 인도네시아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공식 회의에서도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움
- ③ 외국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 ④ 인도네시아와의 문화적 차이로서 인도네시아 특유의 느린 문화, 종교(이슬람교로서 일당 5회 기도 시간준수) 등으로 인하여 업무적 차질이 발생
- ⑤ 현지 관세청의 통관문제가 어려움 (예시로서 서류 및 부품박스의 발송시 미통관이나 분실사례가 매우 많음)
- ⑥ 인도네시아의 빈번한 홍수, 지진 등의 기후적 문제, 치안 불안 등
- ⑦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 초과 시 EDCF를 통한 예산 변경이 쉽지 않음

결과적으로, 대 인도네시아 EDCF 지원사업은 사업목적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고 인도네시아 개발에 대한 중점 분야별 기여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 여부', 사업성과 및 기여분야 그리고 '사업효과성 기여요인 및 개선사항'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EDCF 사업은 전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라. 영향력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의 영향력은 사업의 실시에 따라 초래되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정책 및 제도개선', '지역사회 개발', '사회결속 및 윤리·문화적 행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1)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력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 대 인도네시아 EDCF 지원사업은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최근에 완공된 공공행정 분야의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은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의 경우에 최근 발생한 발리 폭탄테러(2002년), 메리어트 호텔 테러사건(2003년) 등으로 국내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정보의 공유체계 마련이라는 제도개선의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현재 경찰청을 비롯하여 경찰정보국, 검찰청, 국방부 및 관세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범죄정보의 공유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사회 안전의 제고, 범죄억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사회 개발 영향력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은 수원국의 지역사회 개발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원사업 중 ICT 분야만 수도권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통, 교육, 보건 및 공공행정 분야는 인도네시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사업을 실시하였다.

분야별 사업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 분야의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및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경우에 도심의

주요도로를 통과하는 시외버스 및 트럭을 우회시켜 도시 내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화물수송 능력을 제고함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행정 분야의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2009년 말에 완공된 이후,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바탐정보센터(Batam Information Center)'를 시찰하고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 교육을 '바탐정보센터(Batam Information Center)'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및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과 같은 보건 분야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의 병원 인프라 개선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위생 서비스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본 지역의 병원 개선사업들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질병발생률 감소를 통해 노동력 증대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해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Box 4-2 참조).

<Box 4-2> EDCF 보건 분야 사업의 지역 보건지표 개선 효과

보건 분야에서는 EDCF 지원의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및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역 보건지표가 사업 승인 당시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각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 전후의 기대수명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그리고 동부 자바 지역에서는 2006년부터 기대수명이 인도네시아 전체 평균을 추월하여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8 참조).

<표 4-28> 기대수명의 변화추이 (2000~2007년)

(단위: 세)

연도	동부 자바	동부 칼리만탄	남부칼리만탄	인도네시아
2000	65.2	67.1	60.2	66.0
2002	66.0	69.4	61.3	-
2005	68.5	70.3	62.1	69.0
2006	68.6	70.4	62.4	68.0
2007	69.3	70.8	66.7	68.0

자료: 1) BPS(Badan Pusat Statistik) 홈페이지, <http://dds.bps.go.id/eng/> (2011년 3월)
2)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05~2009 각년도

더불어, 각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출생 천 명당 유아사망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동부 자바 지역과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서 사업지원 전후 기간인 2002년과 2005년 사이에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부 칼리만탄 지역과 동부 자바 지역은 2005년과 2007년부터 각각 유아사망률이 인도네시아 전체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9 참조).

<표 4-29> 유아사망률의 변화추이 (2000~2008년)

(단위: 출생 천명당 사망자수)

연도	동부 자바	동부 칼리만탄	남부칼리만탄	인도네시아
2000	37.0	30.0	53.0	36
2002	43.0	42.0	45.0	-
2005	29.0	23.0	41.0	28
2006	26.3	21.5	36.0	26
2007	24.8	19.8	33.9	25
2008	22.2	17.9	31.8	-

자료: 1) BPS(Badan Pusat Statistik) 홈페이지, <http://dds.bps.go.id/eng/> (2011년 3월)

2)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05~2009 각 년도

물론 이와 같은 보건 지표의 변화에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고급 의료장비의 공급 및 후송체계 개선을 통한 공급 측면의 의료 서비스 향상은 낙후된 지역의 보건지표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EDCF의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 및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지원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질병발생률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력 증대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결속, 윤리·문화적 행태에 대한 영향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결속 및 윤리·문화적 행태와 관련해서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인도네시아인으로서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통합보다는 지역 간 또는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결속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에 4개의 섬(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및 칼리만탄)에 전체 국민의 97%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 과밀 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저소득국이지만 인도네시아 정부⁷²⁾가 설정하고 있는 빈곤선 기준⁷³⁾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빈곤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4.2%로서 그 숫자가 32.5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⁴⁾ 비록 통계 수치 상 새천년개발목표(MDG)의 1차적인 빈곤감소 목표가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빈곤문제가 인도네시아의 주요개발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와 같은 빈곤의 주요 원인은 높은 실업률과 지역적 경제수준의 편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을 비추어 보았을 때, 빈부 격차 해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 공공행정 및 ICT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통한 노동력 증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정보통신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실업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거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결속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사회결속 및 윤리·문화적 행태’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영향력은 전반적인 평가 결과로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속가능성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수익 및 사회적 편익의 지속적 창출 가능성’, ‘재무적 지속가능성’, ‘기술·경영적 지속가능성’ 및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지속적 지원 여부’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1) 경제적 수익 및 사회적 편익의 지속적 창출 가능성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 평가대상 사업 대부분에서 경제적 수익 혹은 사회적 편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이 경제적 수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의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업 완공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2) BPS(Badan Pusat Statistik; Central Statistics Agency)

73) 하루 1.55달러 미만의 소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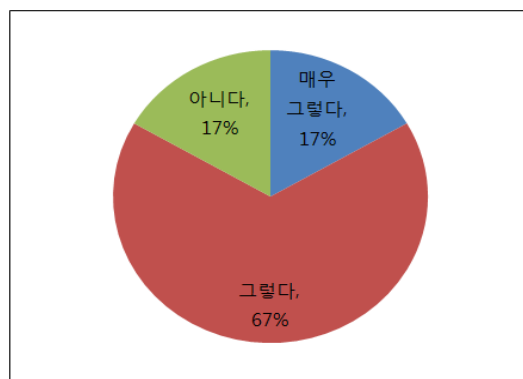
74) BAPPENAS (2010), A Roadmap to Accelerate Achievement of the MDGs in Indonesia, p.27 참조

정보통신 분야의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과 '국가정보통신교육원 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완공되었다. 본 사업들의 경우에는 주로 공무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ICT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동시에 지속적인 사회적 편익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자격증 제도 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재무적 지속가능성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 전원이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평가하였지만 사후평가보고서 및 면담 조사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다(그림 4-8 참조). 전체 평가대상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는 수원국 자체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적시에 사업실시기관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림 4-8] 재무적 지속가능성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실시기관의 담당자 면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EDCF 사업⁷⁵⁾에 대해 사후관리의 부재에 따른 사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EDCF 사업의 과업기간은 완공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의 종료시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완료

75)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과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수원국의 책임이다. 즉, 사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지방정부의 자체예산 조달 방안 강구 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원국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단기간 동안만 운영되고 현재는 모든 장비나 시설이 사라진 교육 분야 사업들의 경우를 비추어 보았을 때, 사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EDCF 차원의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장비의 차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008년에 완공되어 2009년부터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의 경우에, 1단계 사업으로서 전체 자카르타 지역과 일부 지역 경찰서(POLDA)의 포인트를 연결하였으며, 기자재는 수도 지역과 지방의 장비를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장비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고장이나 마모에 따른 여분의 부품을 원활하게 구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 지역에 레이저 프린터를 제공하였다면 지방에서는 프린터의 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단순하고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프린터를 제공하여도 사업의 효과성을 약간 저해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실행에 있어서 유상과 무상원조 사업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사업실행은 유상원조를 통해 지원하고, 사업 완공 후에 사후관리는 무상원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적용·실시되는 EDCF 자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별도로 수정 강화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기술·경영적 지속가능성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의 기술·경영적 지속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부응하여 한국 측 공급자의 전반적인 역량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행정 및 ICT 분야 사업과 관련한 면담조사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의 기술이 매우 만족스러우며, 공급된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도 모두 영어문서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현지 사업실시기관 담당자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장 최근에 완공된 ICT 분야의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의 경우에 본 사업에 포함된 한국의 KAIST 연수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만족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4.5점을 줄 정도로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수 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전원이 '국가정보통신교육원'의 교사 또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어 향후 본 사업의 기술·경영적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완공 이후에도 공급자 측에서 '국가정보통신교육원' 내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설치된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술이전을 위해 담당자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어 기술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지속적 지원 여부

설문 및 현지 면담조사 결과, EDCF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및 제도적 지원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의 국가개발정책 방향 및 유상원조 수요와의 긴밀한 연계성 하에서 추진되었으며, 특히, 2009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향후 수년간 기존 정책기조 및 정책 우선순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현 EDCF의 중기운용계획 및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들에 대한 정책적 및 제도적 지원가능성은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최근에 완공된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과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약속 하에 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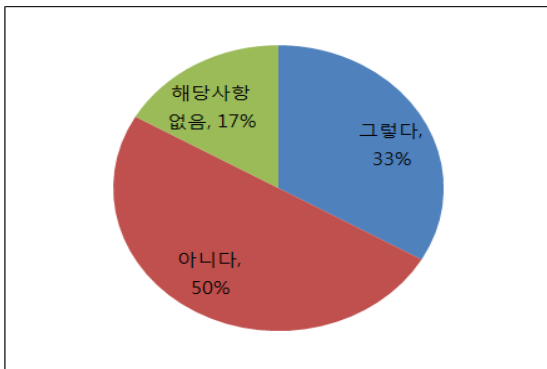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중 '경제적 수익 및 사회적 편익의 지속적 창출 가능성' 그리고 '기술·경영적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지속적 지원 여부'의 세 가지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재무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 모든 사업이 완공시점 이후에는 수원국 자체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적시에 사업실시기관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성주류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

1) 성주류화에 대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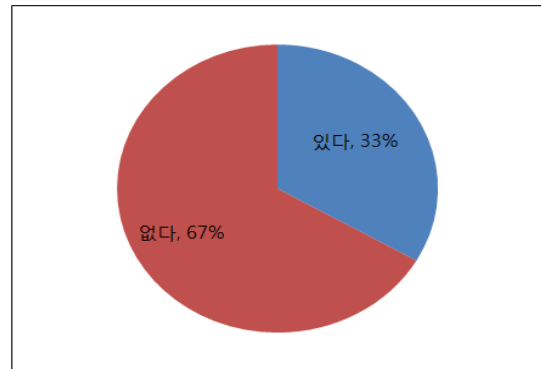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및 연간개발계획에 따르면, 성 평등 및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가 중요한 개발과제임에도 불구하고, EDCF 사업 추진 시 해당 이슈에 대한 고려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 준비 및 수행 단계에서 여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대부분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이 성주류화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업 준비 단계에서 성주류화에 대한 고려 수준에 대하여 많은 응답자(67%)가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다(그림 4-9 참조). 성주류화를 위한 EDCF의 노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도 보건 분야는 성주류화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공공행정 및 ICT 분야에서는 EDCF의 사업 준비, 수행 및 평가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업 수행 시 성주류화를 위한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4-10 참조).

[그림 4-9] 사업 준비 단계에서 성주류화에 대한 고려 정도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0] 사업 실행 시 성주류화 관련 활동 여부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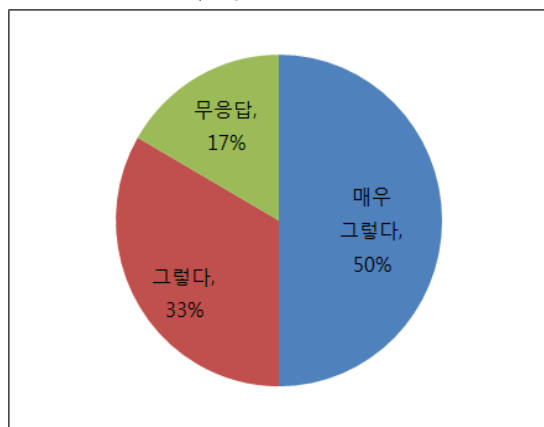
그러나 교통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사업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최신 교육기자재 사용을 통하여 여성에게 폭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였고 보건 분야에서는 최신 의료기자재에 의한 향상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여성 건강증진을 제고하였다. 특히, 공공행정 및 ICT 분야의 경우에는 분야 특성상 여성의 취업선호도가 높아 이를 통한 사회진출 기회를 향상시켰다.

2) 환경에 대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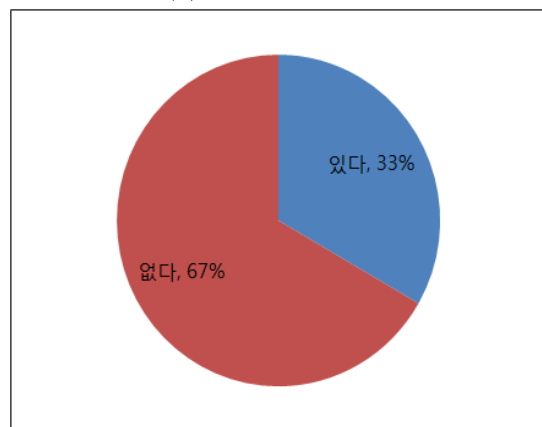
성주류화에 비해 환경에 대한 고려는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참조). 이것은 평가대상 사업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 가이드라인의 마련 이전에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EDCF에서는 2006년 11월에 '환경영향 심사기준'을 수립하고, 2007년 8월 'EDCF 사업의 타당성조사 지침' 내에 환경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EDCF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A그룹, B그룹 및 C그룹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별도 '환경영향평가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EIAR)'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⁷⁶⁾

결과적으로 모든 9개 평가대상 사업이 해당 '환경영향 심사기준'의 마련 이전에 사업이 형성됨으로 인해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업 실행 시 환경보호에 대한 활동 여부에 대하여 과반수의 응답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답변을 하였다(그림 4-12 참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향후 EDCF에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적합한 환경 기본원칙(ground rule)을 설정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공급 의료장비의 질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정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림 4-11] 사업 준비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 정도 [그림 4-12] 사업 실행 시 환경보호 관련 활동 여부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자료: 인도네시아 설문조사 결과

76) 한국수출입은행 (2006), 『환경영향 심사기준』; 한국수출입은행 (2007), 『EDCF 사업 타당성조사 지침』 참조

결과적으로, 범교차(Cross-cutting)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EDCF 사업 추진 시 성주류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EDCF 사업이 성 주류화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며 또한 환경가이드라인의 마련 이전에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주류화와 관련하여, 교통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사업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 폭 넓은 교육기회 제공, 여성 건강증진 등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교훈 및 제언

1. 종합 평가

EDCF가 설립되어 체계적으로 개발원조가 실시된 이후 인도네시아는 현재 까지 가장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주요 대상국가 중 하나이다. 본 국별 평가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 인도네시아 CCSP, 사업수행절차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 하였다.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인도네시아 CCSP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방향과 틀을 설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었다. EDCF의 대 인도네시아 CCSP는 2000년대 중반부터 원조 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수립·시행되었다. CCSP는 수립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립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CCSP를 수립 하였으며 그 결과가 수원국 정부를 포함하여 대내외적으로 폭넓게 공유·활용되고 있다. 대 인도네시아 CCSP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의 거시적 맥락의 분석을 포함하여 개발 전략, 관련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기여 등에 대한 평가, 과거 한국의 개발경험 등을 토대로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 인도네시아 CCSP는 비슷한 시기에 수립·시행된 정부의 중기 ODA 전략의 정책 방향은 물론 EDCF 중기운용 계획의 내용과 합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협력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CCSP를 바탕으로 F/A 체결, Rolling Plan의 작성, 정책협의를 실시가 이루어졌다.

둘째, EDCF 사업수행절차는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다소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수행절차는 전략수립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까지의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 기준 및 가이드 라인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체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다소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성 측면에서 '주요 단계 간 연계성'과 '주요 단계별 활동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주요 단계 간 일부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주요 단계별 활동 수행에 있어서도 충분한 협의 및 조사, 관리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주요 단계 간 소요기간의 정도'와 '추진 일정의 준수'를 살펴본 결과, 일부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점이 발견되는 등 소요기간 단축 및 추진 일정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EDCF 지원사업의 경우, 198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승인된 15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의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선, 효율성 평가에서 현재 완공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수원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완공 이후 사업실시기관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 사업들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완공 이후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CCSP, 사업수행절차 및 개별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향후 개선해야 할 미시적인 사항들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CSP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방향과 틀을 설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었고, 사업수행절차는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주요단계 간 연계 및 추진 일정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제시하는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2. 정책 제언

가. 새로운 국가지원전략의 모색

1) 개발원조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지원 방향 설정

최근의 인도네시아 개발원조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EDCF 지원에 있어서도 이에 상응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DCF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경제 도약을 추진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 확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득국가로 발전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무상원조 지원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EDCF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 개발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인간의 기본욕구(BHN) 충족에 대한 수요가 컸다면, 현재는 정부 역량의 강화 및 지역 균형개발, 경제 규모 확대와 산업 구조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변화에 맞추어 지원 분야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단기적으로 EDCF의 최우선 협력국가로서 인도네시아에 전략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출구 전략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는 향후 5~10년 이내에 중고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EDCF의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유·무상 통합 국가지원전략 수립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은 유상과 무상원조 사업 각각의 채널과 지원 전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국가지원 전략 체제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원조사업의 중요성과 전략적 추진 필요성에 충분히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유상과 무상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전략적인 원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적인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2015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상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유·무상 통합 국가지원전략 수립 과제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새롭게 수립되는 통합 국가지원전략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개발 환경, 국가 개발 정책 및 계획, 타 원조공여기관의 지원 전략, 기존의 대 인도네시아 원조에 대한 평가 결과, 한국의 ODA 정책과 전략, EDCF 운용 전략 및 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한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협력전략의 기본 방향 및 중점 지원 분야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재원 배분에 근거하여 국가지원전략 시행기간 중의 지원 가능한 총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주요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유상과 무상 사업 간의 효율적 연계 및 조화, 타 원조공여기관과의 원조 분업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수행 방안,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유·무상 지원 사업 모두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MDGs 및 PD/AAA 등의 과제 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MDGs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세부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무상원조 사업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 또는 상호 보완하여 이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원화된 원조 사업 수행 체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원조의 분절화 방지를 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PD/AAA 과제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원조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EDCF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유·무상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 및 조화 강화

원조 분절화 방지 및 효과성 제고의 차원에서 주요 원조 수단간의 연계 및 조화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개발협력학회(2010)의 최근 보고서는 이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⁷⁷⁾ 우선,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유·무상 원조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사업 수행 연계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타 원조공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구축한다면 원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77) 본 절에서는 국제개발협력학회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인용함. 자세한 내용은 국제개발협력학회 (2010), 연계를 통한 유무상원조의 균형적 발전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p.95~p.98 참조

유상원조 사업의 전략적 추진 및 효과 제고 차원에서 우선은 유상원조가 중점적으로 담당할 대상과 분야를 무상원조와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가 저소득국의 지위를 벗어나서 중저소득국의 단계로 진입한 만큼 무상원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상원조 사업의 비중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건, 교육 등 사회 분야와 여성, 인권, 환경, 거버넌스, 역량개발 등의 범교차(cross-cutting) 분야를 포함하는 국제 공공재적 성격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무상원조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에 유상원조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 철도·도로·교량·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 전기·에너지·수자원·관개·ICT 등의 경제 인프라 분야에 보다 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

유상과 무상원조 사업 간의 정책적 연계 및 역할의 분담과 함께 각각 가지고 있는 원조의 수단과 방식을 효율적으로 연계·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미 유·무상 원조의 연계를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이 제시되었다.⁷⁸⁾ 유·무상 사업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발휘하는 선후 또는 공동의 연계·조화 노력을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Speed up’ 연계 형태이다.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수원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유상원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카리안담 건설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무상원조를 통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EDCF 차관을 제공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연계는 KOICA의 개발조사 사업,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은 물론 EDCF의 F/S 무상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cale up’ 방식의 연계이다. 소규모 기술협력 또는 역량강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유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방식 또는 전략적으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유·무상 원조기관이 각각의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유상원조를 통해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무상원조를 통해 ‘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 지원사업’이 추진된 경우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유·무상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ICT분야에서 가시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이 주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78)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p. 89 참조

이와 같은 형태의 유·무상 연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Spread out' 형태의 연계 방식을 들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수행한 무상원조 사업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유상원조를 통하여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다. 무상원조로 실시한 '인니 3개 도시 배전체계개선 타당성조사 및 자동화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도시간의 송배전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유상원조로 실시하는 것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겠다.

넷째, 'Support through' 형태의 연계이다. 원조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공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유상원조 사업 완공 이후 무상원조를 통해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유상원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신속한 진행, 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의 해결 등을 위해서는 EDCF가 운영하고 있는 차관지원비 무상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와 같은 유·무상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ODA 네트워크 회의', 'EDCF-KOICA 정례협의' 등의 상위 정책 및 총체적인 사업 운영 차원의 협력 채널 활용도 중요하지만, 개별 국가에 대한 구체적 사업 수행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통합 국가지원전략 수립 과정에서 유·무상 연계 및 조화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이후, 각 기관 본부 및 현지 담당자 간의 유기적인 협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4) 타 원조공여기관과의 원조 조화 및 분업 강화

한국의 유상 및 다자협력 분야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따르면, 26개 중점협력국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한국은 향후 유상원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중진 원조공여국(Middle Lender)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 하, EDCF는 원조공여자 등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은 물론 이들과의 보다 조화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A4DES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4DES 관리위원회 산하 6개의 작업반(WG) 중에서 EDCF와 관련성이

높은 '구매', '모니터링 및 평가' 등 2개의 작업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 원조사업 추진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은 녹색성장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는 만큼 각 원조공여기관간의 역할 분담시 동 분야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에 있어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기후변화대응 국가프로그램(The National Target Programm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NPT-RCC)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시행중인 '기후변화 프로그램 차관(Support Progra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SP-RCC)' 사업에 EDCF가 참여하는 사례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분야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 차관의 제공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업수행절차 개선

1) 단계별 추진 계획의 수정 및 보완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수행절차의 단계별 활동에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각 단계별 개선 방안에 대해 주요 절차 순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조 금액을 개발계획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F/A는 해당 기간 시작 전에 또는 해당 기간의 초기에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Rolling Plan에 등재된 사업의 실제 승인시기는 사업 등재시의 목표 승인시기와 관계없이 상당히 가변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Rolling Plan 등재를 위한 정확한 기준 및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사업을 등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협의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측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현재 1일 내외에서 보다 여유있게 협의 기간을 설정하고, 참석자 규모도 소규모로 조정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정책협의를 대상자를 소규모로 나누고 여러 번에 걸쳐 정책협의를 한 후, 마지막으로 전체가 모여 정책협의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심사 단계의 보완도 필요하다. 사업실시 도중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이 다수 있었다. 심사 단계에서 정확한 조사, 특히 지방 사업의 경우 현지 여건에 대한 조사가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심사기간 연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출장자의 조사만으로는 현지 정보 수집 및 여건에 대한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사업 실시기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편, 현지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 단계에서는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업실시기관에서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EDCF는 사업실시기관이 제시한 조달공고 내용 및 선정 기준, 절차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는 보다 정량적인 평가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심사시 성과기준(baseline)에 대한 조사 및 조사방법, 성과 목표 수치를 설정 및 기재하여, 향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 단계별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모든 단계에 걸쳐 인도네시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단계 간 연계 및 환류 강화

‘심사와 사업실시 단계 간의 연계’와 ‘평가와 CCSP 및 심사 단계 간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요 단계 간 연계 및 환류를 위한 장치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평가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 중 교훈과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업의 종류, 분야, 국가 등으로 분류하여 축적하고, 사업 기획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내부 직원 및 컨설턴트, 공급자가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심사 및 평가 결과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내부 직원 및 컨설턴트, 공급자를 대상으로 교훈점 및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교육 워크숍을 갖는다면, 이를 통해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심사 결과가 사업 실시에 반영되고 평가 결과가 CCSP 수립 및 심사에 반영되도록, 각 문서 작성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항목을 마련하고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기재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면 주요 단계 간 연계 및 환류가 보다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심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적 공유 및 활용, 인식제고를 통하여 단계 간 연계 및 환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3) 사전 준비 및 협의 강화

‘지원방침 결정부터 L/A 체결까지’, ‘L/A 체결부터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 계약까지’의 소요기간은, F/A 도입 및 L/A발효 이후 18개월 안에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EDCF 지침 도입 이후 많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사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해 인도네시아 개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실시기관은 EDCF의 컨설턴트 정보 제공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하고, EDCF도 사업실시기관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시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업실시기관이 신속히 입찰 결과를 검토하여 컨설턴트를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 후보업체의 제출서류를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사업실시기관의 컨설턴트 고용 절차를 지원할 현지 컨설턴트 인력 투입 및 비용 지원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기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에 대한 준비를 L/A 체결 준비와 함께 착수하여, L/A 체결 이후 바로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사전 준비가 가능한 부분으로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준비 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한 가지로 사업실시기관의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있었다. 사업 발굴부터 관여한 사업실시기관의 담당자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한 계속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또는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와 사전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을 지연 또는 연장시키는 사유들 대부분은 사전준비 및 협의가 강화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소요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지원필요사항에 대한 요청과 지원, 상호간 협조, 조기구매 제도와 같은 구체적 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하다.

4)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평가 방식의 다양화

대 인도네시아 EDCF 추진 단계별로 계획한 목표시기 대비 실제 이루어진

시기 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 대비 실제 진행현황 및 목표 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점검하는 데 필요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중간점검(mid-review)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 권고된다. 특히 컨설턴트 고용 없이 공급자가 컨설턴트 기능까지 수행하는 사업은 감리자가 없으므로 반드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중간점검은 사업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간점검은 현재 EDCF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기마다 사업을 점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업실시기관과 함께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양 입장에서 점검이 가능함은 물론, EDCF와 사업실시기관, 공급자 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에 있어, 독립된 제3의 기관 활용, BAPPENAS 또는 사업실시기관과의 공동평가, 타 공여기관과의 공동평가 등 평가 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평가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된 유의미한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는 전략 및 사업 계획 수립과 관리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EDCF 지원 성과를 제고할 것이다.

다. 성과지향적 사업운영 체제 수립

1) 프로그램형 접근법(PBA)의 도입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프로그램형 접근법(Programme-based Approach: PBA)의 추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PBA란 ‘국가빈곤감소전략, 특정분야별 프로그램, 주제별 프로그램 또는 특정 기관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원국 주도의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조율된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방법’⁷⁹⁾으로,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와 원조일치, 공여국간 원조조화 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79) OECD (2006)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ume 2,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참조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PBA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대규모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PBA의 하위개념으로 SWAp(Sector-Wide Approach: SWAp)이라는 분야별 접근법이 있다. SWAp은 PBA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특징⁸⁰⁾을 모두 내포하고 있지만, PBA가 수원국의 포괄적인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SWAp은 특정 분야에 관한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EDCF는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므로, 대 인도네시아 지원에 있어서도 SWAp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 인도네시아 지원에서 SWAp을 활용하였을 경우에 실현될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분야별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수원국인 인도네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사업간 연계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조화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개발전략 중기예산안(MTEF)에 기초하여 사업이 계획됨으로서 원조의 중장기적 예측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

최근에 완공된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과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은 사업 실시에 있어 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에서는 최초로 전자정부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3단계로 구성된 전체 사업이 Blue Book에 3개의 사업으로서 각각 등재되었으며, 전체 3단계 사업들 중 1단계 사업을 EDCF의 지원으로 최근 완공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에 따라 나머지 단계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EDCF의 지원을 통해 완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80) PBA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① 수원국 정부 또는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가? ② 단일의 포괄적 프로그램 및 예산들을 사용하는가? ③ 보고와 예산책정, 재정관리, 조달 중 적어도 2개의 절차를 위해 공여국간 공식적인 조정 또는 조화 절차가 있는가? ④ 프로그램 설계와 시행, 재정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중 적어도 2개의 부문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수원국 체제를 활용하는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EDCF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초기 단계에서 최종 단계의 제도적 역량 강화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본 사업은 보다 전략적으로 실행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현행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해서 사업 효과가 축소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기반 구축을 통한 향후 사업의 확대까지 고려한다면 본 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초적인 조사 및 사전 검토, 협의 작업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추진될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본 사업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이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원방식의 다양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과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해외로부터의 차관 도입을 억제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PPP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투자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정부채권의 발행과 민간 국제자본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채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PPP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하는 등의 지원 방식 다양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타

1)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을 수행한 한국 컨설턴트 및 공급자와의 면담 결과, 인도네시아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사업 수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발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원활한 사업 진행의 애로점, 두 번째로는 외국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세 번째로는 영어로의 의사소통 제한, 네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와의 종교·문화적 차이,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치안 불안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특유의 사회적 환경에 따른 사업 진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EDCF의 상세 지원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언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컨설팅 업체 또는 공급자가 현지 통역 가능한 인원을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력풀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으며,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EDCF 주재원의 행정처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인도네시아의 문화 및 기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여 사업실시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기자재 품질 검증 절차 강화

현재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에 소요되는 기자재는 대부분 국산 기자재이며, 이렇게 국산 기자재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장비의 질이 매우 양호하나, 한국에서 생산이 중단되어 제3국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자재의 품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원국에서는 EDCF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원조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자재 공급시 엄격한 품질 검증 절차가 필요하며, 제3국산 장비인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재무적 지속가능성 제고

대 인도네시아 EDCF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의 지속적 창출 가능성, 재무적 지속가능성, 기술·경영적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지속적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 중 재무적 지속가능성은 향상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완료 이후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수원국의 책임이나 EDCF 차원에서 사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 미리 고려된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재무적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자재의 차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도 지역과 지방의 장비를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예산 상황을 고려하고 고장이나 마모에 따른 여분의 부품을 원활하게 구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업실행에 있어서 유·무상 원조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다. 유상원조를 통해 완료된 사업을 무상원조를 통하여 사후관리 및 지원하는 'Support through'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⁸¹⁾ 특히, 완공 후 일정 시점이 경과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단계에서 사후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사후 조치를 건의하는 사후관리 전문기술단의 파견과 같은 사업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이미 추진된 사업에 대한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업 현장의 관리 인력 확충

본 연구의 현지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사업 현장에서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 인력의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도네시아 주재원은 1명에 불과하며, 현지 업무 보조원의 경우에도 단순 사무원으로서 EDCF 예산 구조상 전문성 있는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력구조 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6개의 EDCF 사업에 대한 관리 및 A4DES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 조화 활동의 참여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Rolling Plan에 제시되어 검토 중인 사업이 17개로서 향후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화된다면 사업관리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주재원 인력의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분야별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실시 및 사후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현지 직원을 전문적인 조사원 또는 사업관리 전문가로서 활용한다면, 향후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⁸²⁾

5) 수원국에 대한 홍보 강화

EDCF 홍보 및 이해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웹사이트를 보완하는 방안이 있다. EDCF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81) 국제개발협력학회 (2010), 연계를 통한 유무상원조의 균형적 발전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p.97 참조

82) EDCF의 내부 계획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에 EDCF 본부의 인력을 현지로 파견하여 사무소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현지 직원을 전문적인 조사원 또는 사업관리 전문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파악됨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기본 정보는 인도네시아어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EDCF 웹사이트에는,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에 대한 정보가 따로 게재되어 있지는 않다.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EDCF 기본 정보를 한눈에 열람 가능하게 하여 인도네시아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WB⁸³⁾와 JICA⁸⁴⁾의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간략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정기적으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각 사업실시기관의 담당자를 초청하여 EDCF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연 1회 정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컨설턴트 및 공급자를 대상으로 EDCF 사업 수행에 있어 주의할 점, 인도네시아 문화 및 현지 여건 등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설명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다민족·다문화 국가이고 지방에서의 사업 추진에 있어 해당 지역 문화 및 언어 이해,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83)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EASTASIAPACIFICEXT/INDONESIAINBAHASAEXTN/0,,menuPK:447455-pagePK:141159-piPK:51064798-theSitePK:447244,00.html> 참조

84) <http://www.jica.go.jp/indonesia/indonesian/index.html> 참조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5.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
- _____ . 2007.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 2008-2010』 .
- _____ . 2010a.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
- _____ . 2010b.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 국제개발협력학회. 2010. 『연계를 통한 유무상원조의 균형적 발전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2008a. 『2008-2011 EDCF 중기운용계획』 .
- _____ . 2008b. 『2008-2012 EDCF 중기운용계획』 .
- _____ . 2010. 『2010 EDCF 운용계획』 .
- _____ . 2011. 『2011 EDCF 시행계획』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공적개발원조(ODA) 개선방안』 . 국무조정실.
- 엄성용. 2008.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국제교육개발협력』 . 2008년 1차 국제교육개발협력포럼발표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8년 4월 29일.
- 이현주. 2010. 『한국 ODA의 프로그램형 접근법(PBA) 도입방안』 . 한국국제협력단.
- 재정경제부. 2005. 『대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 2006-2009 (국·영문)』 .
- _____ . 2006. 『2006-2009 EDCF 중기운용계획』 .
- _____ . 2007. 『2007 EDCF 운용계획 및 주요제도 개선방안』 .
- 재정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 2007. 『대외경제협력기금 20년사』 .
- 정유아. 2009.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국가지원전략(CAS) 활용 현황과 과제”. 『국제개발협력』 2009년 제2호.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8a.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
- _____. 2008b.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 _____. 2009.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 및 지원사업 종합평가』 .
- _____. 2010. 『한국 ODA의 프로그램형 접근법(PBA) 도입방안』 .
- 한국수출입은행. 1987. 『심사보고서: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
- _____. 1991a. 『심사보고서: 인도네시아 이동식직업훈련사업』 .
- _____. 1991b. 『예비심사보고서: 인도네시아 실업교육개선사업』 .
- _____. 1995. 『심사보고서: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회도로 사업, Sibolga 화력 발전소 설계사업 및 Isal-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 .
- _____. 1997. 『심사보고서: 인도네시아 동남부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사업』 .
- _____. 1999. 『EDCF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인도네시아 이동식직업훈련사업』 .
- _____. 2000. 『심사보고서: 인도네시아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
- _____. 2001. 『EDCF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인도네시아 실업교육개선사업』 .
- _____. 2003a. 『심사보고서: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
- _____. 2003b. 『EDCF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인도네시아 동남부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사업』 .
- _____. 2004. 『EDCF 지원사업 완공평가 보고서: 인도네시아 동자바 지방 병원 개선사업』 .
- _____. 2006a. 『심사보고서: 인도네시아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
- _____. 2006b. 『환경영향 심사기준』 .
- _____. 2007a. 『사후평가보고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병원 개선을 위한 EDCF 지원사업』 .
- _____. 2007b. 『EDCF 사업 타당성조사 지침』 .

- _____. 2007c. 『EDCF 지원사업 완공평가보고서: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
- _____. 2009. 『인도네시아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사후평가 보고서(안)』 .
- _____. 2010. 『인니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완공점검표』 .
- _____. 2011. 『2010 Annual Report』 .
- _____. 1998, 1999, 2000, 2002, 2005, 2006, 2009, 2010. 『경협기금업무 취급규정』 .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000. 『출장결과 보고서: 인도네시아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중간점검』 . 한국수출입은행.

<국외 문헌>

- ADB. 2001. *Country Operational Strategy: Indonesia*.
- _____. 2006. *Indonesia Country Strategy and Program 2006-2009*.
- _____. 2009. *Indonesia Fact Sheet*.
- Angel Manembu. 2009. *Evaluation of KOI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 AusAid. 2008.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Country Strategy 2008-13*.
- Bank of Indonesia. 2010. *Indonesia Finance and Economic Statistic*, as of 3rd Quarter of 2010.
- BAPPENAS. 2003. *Government Regulation No. 7 on the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RPJMN I 2004-2009)*.
- _____. 2010a. *A Roadmap to Accelerate Achievement of the MDGs in Indonesia*.
- _____. 2010b. *Project Implementation Performance Reports of Foreign Loans, Quarterly edition III*.
- _____. 2010c.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5 of 2010 Regarding the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10-2014*.

- _____. 2010d. *The 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lan(RPJMN II 2010-2014)*. Presentation Material by Dr. Lukia Dinarsagar Tuwo.
- _____. 2010e. Report on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onesia 2010
- _____. 2011. *Korea's EDCF Strategy for Indonesia, 4 March 2011*.
-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11. *Country Report Indonesia*.
- Indonesian Government. 2006.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2 on Procedure for the Procurement and Forwarding of Loans/Grants*.
- _____. 2007. *Law No. 17/2007 on the National Long-Term Development Plan (RPJPN 2005-2025)*.
- _____. 2009. *Jakarta Commitment: Aid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 Indonesia's Road Map to 2014*.
- _____. 2011. *Presidential Regulation No. 7 of 2011 on Foreign Loan Plan Needs 2010-2014*.
- JICA. 2007. *Priority Areas for JICA's Cooperation_Indonesia*.
- Kazuhisa Matsui. 2006.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Local-Head Election*.
- Ministry of Finance. 2011a. *Government Debt Profile (External Loans and Securities)*.
- _____. 2011b. *Government Debt Securities Management*.
- _____. 2011c. *National Debt Management Strategy 2010-2014*.
- OECD/DAC. 1991.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 _____. 2006.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ume 2,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 _____. 2007. *DAC Evaluation Quality Standards*.
- _____.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 Making Aid More Effective by 2010*.
- USAID. 2009. *USAID Indonesia Strategy 2009-2014: A Partnership for Prosperity*.

World Bank. 2009.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09-2012): Investing in Indonesia's Institutions.*

<웹사이트>

독일재건은행(KfW) http://www.kfw-entwicklungsbank.de/EN_Home/

미국국제개발처(USAID) <http://www.usaid.gov>

세계은행(WB) <http://www.worldbank.org>

아시아개발은행(ADB) <http://www.adb.org>

인도네시아 통계청 <http://dds.bps.go.id/eng/>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http://www.bappenas.go.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http://www.jica.go.jp/english>

호주개발청(AusAID) <http://www.ausaid.gov.au>

EDCF 실적통계 <http://www.edcfkorea.go.kr/index.jsp>

부록 1. 성과관리 틀(framework) 및 매트릭스(matrix) 샘플

1. AusAid의 대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의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일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발전되고 민주적이며 안전한 인도네시아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 • 최우선과제: 파트너십, 양성평등, 부패척결 	
중점 분야와 접근방법	<p>Pillar 1.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간 협력사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야 하며, 인력(Peer to Peer) 교류 방식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폭넓은 이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간개발지표가 낮은 수준인 빈곤지역으로의 원조는 성장의 장애요인들을 감소시키는 혁신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임 •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관리에 대한 협력을 증대 	
호주의 관련 주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sAID, 외교통상부, 재무부, 기후변화부, 환경·물·유산 및 예술부(DEWHA), 농무부, 농림수산부, 재정 및 규제완화부, 교육 고용 및 노동처 관계부, 국제농업연구센터, 통계청, 국세청, 준비은행, 증권투자위원회(ASIC), 감독관리국(APRA), 감사원(ANAO), 정부공무원위원회, 가족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부(FaHCSIA) 	
기대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관리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정책 개선과 경제 관리 강화 •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생산성 향상 저해요소 감소 	
파트너십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새로운 개발 원조 방법을 실시 - 인도네시아 시스템 내에서 원조 실행, 인도네시아 주요 기관들과 형평성과 투명성을 기초로 한 파트너십 구축, 인도네시아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술 원조와 인적교류 지원 • 수원국 정치 및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발굴 및 수행 방법 개선 • 인도네시아 거버넌스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공여기관과 협력 	
사업 수행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첫째, 경제 성장에 목표를 두고, 둘째, 높은 빈곤수준을 지닌 지역을 지원하며, 셋째,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 특히 Papua, 서부 Papua, 동·서부 Nusa Tenggara, Ache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 지역에 큰 파급 효과와 함께 상승효과를 일으키도록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SAID의 대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은 위에 언급한 5개의 중점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원조를 제공할 것임 - 분야별 세부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의 해당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 질 것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우선 분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va 지역의 이슬람 교육, 서부 및 중부 Kalimantan 지역의 삼림관리, 남부 및 중부 Sulawesi 지역의 농촌 생계 지원 등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상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점 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노력할 것임
중단 또는 개선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중단되거나 개선될 것임 -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한 채택 및 적용(정책 및 프로그램에 반영) - 국가전략목표에 기여 - 향상된 개발 성과를 도출을 위해 수요개발 및 시민참여를 촉진해야함 	
최우선 지원 분야의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 평등 분야 -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의 원칙 보장 필요 • 부패척결 - 정부 자금 사용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 부패 계획을 지지 • 기타 - 거버넌스(성인지예산의 시범도입 포함), 지역개발, 건강, HIV, 교육 	
성과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지원전략에 대한 평가가 호주의 원조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기반이 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스스로의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자료: AusAid (2008),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country strategy 2008-13.

2. AusAid의 대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의 사업성과 틀(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일부

부유한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운용
1. 천연자원 관리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이하와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측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전용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에 따른 국가적/지역 단위의 정책들 개발• 삼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을 국제적 기준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 REDD 시범지역 내에서 벌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킴(MDG)

자료: AusAid (2008),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country strategy 2008-13.

3. WB의 대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의 결과 매트릭스(Results Framework) 일부

Cross-cutting engagement area 1: 중앙 정부 기관과 시스템	
인도네시아 장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도네시아를 만들기 위해 거버넌스 강화 (중앙정부 시스템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관리능력 향상 등)
이슈와 장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예산 시스템의 문제 - 투입 중심적(input-based)¹⁾, 지나치게 세부적어서 유연하지 못함, 연간 주기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장기 프로젝트의 실시가 어려움
2012년까지의 개발 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책정절차를 '결과 중심적 절차'로 개선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치(baseline) - 단체, 세부 지출항목, 기능, 프로그램 및 활동을 기초로 예산을 분배하고, 총지출과 수익의 거시경제적 전망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 그러나 예산 편성절차는 엄격하게 연간 주기를 지키도록 되어있고, 향후 연도의 추정 예산을 언급하지 않음 목표 - 총량적 수준에서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분류(기관별, 지출유형별)에 따라 예산 배분 및 관리에 있어서 주요 단위인 측정 가능한 성과가 중심인 결과 중심적 프로그램 목표달성여부 측정자료: 연간 예산편성 관련 법률, 직원평가 등을 포함한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중기적 개발 성취 (milesto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까지 RPJM 2010-2015의 수정된 프로그램체계가 각 기관별로 측정가능한 결과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2012년까지 자동이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사전승인 없이 실행된 프로그램 안에서 지출 정부부처가 지출 단위, 활동 및 장소 별로 지출비중을 재조정할 수 있음 예산문서가 당기 예산연도 및 향후 2년동안의 추산액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예산예측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WB의 참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지원 진행: 정부 재정 및 수입관리 프로젝트(GFMRAP)³⁾; 제도개발 TF(네덜란드), GFMRAP TF (정책 및 인적자원 개발, PHRD)⁴⁾, 거버넌스 TF(네덜란드), PFM⁵⁾TFs(PHRD) 자금지원 계획: DPLs⁶⁾, PINTAR⁷⁾/GFMRAP II, STATCAP⁸⁾; PFM-MDTF⁹⁾

자료: World Bank (2009),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09-2012): Investing in Indonesia's Institutions

- 주: 1) 투입중심적 품목별 예산제도: 예산액을 지출 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것
 2) 결과중심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집행부서와 중앙예산기관은 성취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부서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자유재량을 부여하되, 그 성과 측정의 결과를 책임추궁과 연계하여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도모하는 것
 3) 정부 재정관리 및 수입관리 프로젝트(GFMRAP): Indonesia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venue Administration Project
 4) 정책 및 인적자원 개발(PHRD): Polic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5) 공공재정관리(PFM): Public Financial Management
 6) 개발정책차관(DPLs): Development Policy Loans
 7) 인도네시아 조세관리개혁 프로젝트(PINTAR): Project for Indonesian Tax Administration Reform
 8) 다국가적 통계 능력배양 프로그램(STATCAP): A Multi-country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Program
 9) 공공재정관리에 대한 고용과 성장에 관한 다자기금(PFM-MDT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Multi-Donor Trust Fund

부록 2. 현지 설문조사결과 분석 요약

현지 설문조사결과 분석 요약

1. 평가대상별 주요항목

CCSP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에 대한 CCSP의 적절성 개발파트너들과의 조화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제 달성에의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성주류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

2. 설문대상

CCSP		
No	성명	소속 기관
1	Kurniawah Ariadi	BAPPENAS, Asian Bilateral Funding
2	Priyanto Rohmatullah	BAPPENAS, Monitoring and Evaluation
3	Maurin Sitorus	Ministry of Finance
4	Don K. Marut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지원사업		
1	Aizirman Djusan	KEMKOMINFO
2	Diar Wahyu Indriyati, MARS	Ministry of Health
3	Priyanto Rohmatullah	BAPPENAS
4	Roy Tumbelaka	Polri, National Center of Criminal Information (PUSIKNAS)
5	Royke Durand	PPK
6	Suhadi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3. EDCF의 CCSP 설문조사 결과

A. 인도네시아에 대한 CCSP의 적절성

A.1. 수원국의 개발 수요와 전략에의 부합성

A.1.1. (수원국 개발 정책 및 전략과의 일치) EDCF의 대 인도네시아 CCSP가 인도네시아의 국가장기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전략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5%
2. 그렇다	50%
3. 보통이다	25%
4. 아니다	0%

A.1.2. (수원국 개발 정책 및 전략과의 일치) EDCF의 대 인도네시아 CCSP가 새롭게 도입된 인도네시아의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과 제2차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II 2010-2014)의 목표 및 세부목표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50%
2. 그렇다	25%
3. 보통이다	25%
4. 아니다	0%

A.1.3. (수원국 개발 수요와의 부합성) EDCF의 대 인도네시아 CCSP의 지원 목표와 우선지원 분야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구체적인 개발수요와 지원요청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5%
2. 그렇다	75%
3. 보통이다	0%
4. 아니다	0%

A.1.4. (EDCF 지원사업을 통해 가장 발전한 부문) EDCF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한 부문은 어디입니까?

아래 항목 중 세 개 이상 부문을 선택하여 1부터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 (1) 정보통신 (ICT) ()
- (2) 에너지 ()
- (3) 전기 ()
- (4) 수자원 개발 ()
- (5) 교통 ()
- (6) 보건 및 의료 서비스 ()
- (7) 환경 및 위생 ()
- (8) 인적 자원 개발 ()

기관명/ 기여순위	1	2	3	4
재무부	정보통신 (ICT)	교통	보건 및 의료	인적자원개발
BAPPENAS 양자외자국	정보통신 (ICT)	전기	수자원 개발	교통
INFID	인적자원개발	정보통신 (ICT)	환경 및 위생	수자원 개발
BAPPENAS 모니터링국	교통	전기	에너지	정보통신 (ICT)

A.1.5. (범교차분야 이슈의 주류화) EDCF의 대 인도네시아 CCSP에 성주류화 및 환경과 같은 범교차분야 이슈의 주류화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0%
2. 그렇다	0%
3. 보통이다	50%
4. 아니다	50%

A.2. 원조양식과 접근방법

A.2.1. 원조 양식과 프로그래밍 방법(programming methods)이 프로그램의 결과와 효과성을 보장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하다	0%
2. 적절하다	100%
3. 다소 부적절하다	0%
4. 매우 부적절하다	0%

A.2.2. 만약 위의 답이 1번이라면 EDCF가 시행한 모범적 원조양식이나 프로그래밍 방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A.2.3. 만약 위의 답이 4번이라면 EDCF의 원조양식이나 프로그래밍 방법에서 부적절한 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A.2.4. EDCF 프로그램의 주된 원조 양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중소기업 프로젝트 프로그램	62.5%
2.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	0%
3. 부문별 프로그램	0%
4. 프로그램 중심적 접근(PBAs) 프로그램	26.5%
5. 기타 (아래에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0%

A.3. 원조과정, 예산수립 그리고 전달 체계

A.3.1. EDCF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 간 전략적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협의를 위한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존재하십니까?

1. 그렇다: 정기적인 회의 존재	50%
2. 그렇다: 비정기적인 회의 존재	25%
3. 없다. 그러나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은 존재	0%
4. 없다	25%

A.3.2.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있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75%
2. 그렇다	0%
3. 낮다	0%
4. 매우 낮다	25%

A.3.3. 만약 위의 답이 1번이나 2번이라면 협의 및 대화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구분	지방정부	지역커뮤니티	NGO	타 공여기관	학계전문가	민간기업
1 사업발굴	0%	0%	0%	0%	0%	0%
2 F/S	50%	0%	0%	50%	50%	50%
3 타당성 조사	50%	0%	0%	100%	100%	0%
4 사업준비- 실시계획	50%	50%	0%	50%	0%	0%
5 사업실시	50%	50%	0%	50%	0%	0%
6 평가	50%	0%	0%	50%	50%	50%

(100%는 설문답변기관 모두 응답하였음을 의미함)

A.3.4.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대화 과정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유용하다	50%
2. 유용하다	50%
3. 별로 유용하지 않다	0%
4. 매우 유용하지 않다	0%

A.3.5. 입찰 및 조달과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67%
2. 그렇지 않다	33%

A.3.6. 위에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면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A.3.7. EDCF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전달체계가 원조 이행을 위한 순환적 절차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효율적이다	33%
2. 효율적이다	67%
3.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0%
4.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0%

A.3.8. 위 질문에 대한 답이 3이나 4인 경우, 향후 전략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A.3.9. EDCF의 진행과정과 전달체계가 투명하다고 인식되십니까?

1. 매우 투명하다	33%
2. 투명하다	67%
3. 별로 투명하지 않다	0%
4. 매우 투명하지 않다	0%

A.3.10. 위 질문에 대한 답이 3이나 4라면, 가장 연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없음>

A.3.11. 목표한 결과를 얻기 위해 경제적, 시간적 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하다	0%
2. 적절하다	100%
3. 보통이다	0%
4. 부적절하다	0%

A.3.12. KOICA의 무상원조와 EDCF의 유상원조의 이원적 원조체계 하에서 운영되는 EDCF 프로그램의 전달체계가 원조의 효과성과 제도적 효과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효율적이다	33%
2. 효율적이다	67%
3. 다소 비효율적이다	0%
4. 매우 비효율적이다	0%

A.3.13. 위 질문에 대한 답이 3이나 4라면 향후 전략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A.4. EDCF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원조 효과성과 영향

A.4.1. EDCF프로그램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공유되는 명확한 개발 목표, 세부 목표 및 실행지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33%
2. 그렇다	33%
3. 보통이다	33%
4. 그렇지 않다	0%

A.4.2. 대 인도네시아 EDCF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0%
2. 만족스럽다	50%
3. 만족스러운 편이다	50%
4.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0%
5. 불만족스럽다	0%
6. 매우 불만족스럽다	0%

A.4.3. 2006년에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의 양자 협력 및 개발 파트너십 증진 차원에서 EDCF 활동은 얼마나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이다	50%
2. 긍정적이다	50%
3. 보통이다	0%
4. 그렇지 않다	0%

A.4.4. EDCF 활동이 한국에 이미지와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1. 매우 긍정적	50%
2. 긍정적	25%
3. 중립적	25%
4. 부정적	0%
5. 매우 부정적	0%

A.4.5. EDCF의 성과들이 어느 정도로 지속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지속가능	75%
2. 지속가능	25%
3. 별로 지속가능하지 않음	0%
4. 매우 지속가능하지 않음	0%

B. 개발 파트너와의 조화

B.1. EDCF의 CCSP의 일관성

B.1.1. 인도네시아의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 일관성 측면에서 EDCF의 CCSP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	25%
2. 긍정적	50%
3. 중립적	25%
4. 부정적	0%
5. 매우 부정적	0%

B.1.2. EDCF의 CCSP의 장점이나 비교우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의 개발수요에 대한 반응성 (Responsiveness to the country's development needs)	25%
2. 주요 우선개발 부문 및 주제에 대한 전략적 집중 (Strategic concentration on key priority sectors/theme)	75%
3. 원조 시행과 성과중심 관리의 효과성 (Effectiveness of aid implementation and results-based management)	0%
4. 개별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성과와 시행의 효과성 (Effectiveness-Outcome/Performance of the individual project/program)	0%
5. 참여적 개발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배양 (Fostering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recipient's ownership)	0%
6. 타 개발 협력파트너와의 원조 조화 (Aid harmonization with other fellow development partners)	0%
7. 기타 (아래에 서술해주시오.)	0%

B.1.3. 위 질문에 대해 2번으로 답하셨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사회기반시설, 교통, 보건

B.1.4. EDCF의 CCSP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의 개발수요에 대한 반응의 부적절성 (Inadequacy in responding to the country's development needs)	0%
2. 구체적인 전략 영역에 대한 부문적 집중의 부재 (Missing the sectoral focus/concentration on specific strategic areas)	20%
3. 원조시행과 결과에 기초한 관리의 효과성 (Effectiveness of aid implementation and results-based management)	20%
4. 개별 프로젝트/프로그램의 결과와 시행의 효과성 (Effectiveness-Outcome/Performance of the individual project/program)	40%
5. 금융자원 충당의 부족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ppropriation)	20%
6. 참여적 개발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배양 (Fostering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recipient's ownership)	0%
7. 타 개발 파트너와의 원조 조화 (Aid harmonization with other fellow development partners)	0%
8. 기타 (아래에 상술해 주십시오.) (Others: please specify below)	0%

B.1.5. 위 질문에 대해 2번으로 답하셨다면, 향후 프로그램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이나 우선부문을 서술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B.2. 개발파트너와의 원조 조화

B.2.1. (국내 무상원조 기관과의 조화) EDCF의 프로그램은 KOICA가 시행하는 무상원조 및 기술원조 프로그램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0%
2. 만족스럽다	75%
3. 다소 불만족스럽다	25%
4. 불만족스럽다	0%

B.2.2. (타 공여국과의 조화) EDCF의 프로그램은 타 공여국들의 프로그램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0%
2. 만족스럽다	75%
3. 다소 불만족스럽다	0%
4. 불만족스럽다	25%

B.2.3. 위 질문에 대해 3이나 4번으로 답하셨다면, 향후 전략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나 제안을 서술해주시오.

- EDCF는 A4DES에 의한 공여국 간 조정활동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음

B.2.4. 타 개발파트너들에 비해 EDCF의 강점, 비교우위영역 혹은 한계는 무엇입니까? 만약 있다면 서술해주시오.

<답변 없음>

C.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제 달성에의 기여

C.1. 새천년 개발목표(MDGs)

C.1.1. EDCF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의 MDGs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기여하였다	25%
2. 기여하였다	50%
3. 보통이다	25%
4.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0%
5.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0%

C.1.2. 위 질문에 대해 1이나 2번으로 답했다면, EDCF 프로그램이 기여한 MDGs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주십시오.

1. 목표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0%
2.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14.3%
3. 목표 3: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 (Goal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0%
4. 목표4: 영유아 사망률 감소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14.3%
5. 목표 5: 모자보건 증진 (Goal5: Improve Maternal Health)	42.8%
6.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와 기타 질병 퇴치 (Goal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0%
7.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장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8.6%
8.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Goal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0%

C.2.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과 아크라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C.2.1. (파리 선언에의 부응성) EDCF는 인도네시아에서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 지표의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기여하였다	25%
2. 기여하였다	50%
3. 보통이다	25%
4.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0%
5.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0%

C.2.1.1. EDCF가 파리선언의 첫 번째 원칙인 ‘원조주체성(Ownership)’ 증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조주체성이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빈곤퇴치와 제도개선, 부패퇴치를 위해 자신들만의 전략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함)

1. 매우 긍정적	25%
2. 긍정적	50%
3. 중립적	25%
4. 다소 부정적	0%
5. 매우 부정적	0%

C.2.1.2. EDCF가 파리선언의 두 번째 원칙인 ‘원조일치(alignment)’의 증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조일치는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개발목표에 부합하면서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1. 매우 긍정적	0%
2. 긍정적	50%
3. 중립적	50%
4. 다소 부정적	0%
5. 매우 부정적	0%

C.2.1.3. EDCF가 파리선언의 세번째 원칙인 ‘원조조화(harmonization)’ 증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조조화는 공여국들이 원조 활동에 대한 공동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원조절차를 간소화하며 보다 효과적인 원조의 분업을 이행하는 것)

1. 매우 긍정적	0%
2. 긍정적	100%
3. 중립적	0%
4. 다소 부정적	0%
5. 매우 부정적	0%

C.2.1.4. 위 질문에 대해 1이나 2번으로 답하셨다면, EDCF와 타 공여국 간에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통의 계획과 절차의 이용 (Use of common arrangements or procedures)	67%
2. 현장 임무의 분석 공유 (Analysis share of field mission)	33%
3. 국가 분석 작업의 공유 (Analysis share of country analytic work)	0%

C.2.1.5. EDCF가 파리선언의 네번째 원칙인 ‘결과중심의 원조관리(managing for results)’의 증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중심의 원조 관리는 수원국과 공여국이 개발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측정하는 것)

1. 매우 긍정적	50%
2. 긍정적	0%
3. 중립적	50%
4. 다소 부정적	0%
5. 매우 부정적	0%

C.2.1.6. EDCF가 파리선언의 다섯번째 원칙인 ‘상호책임성 확보(Mutual Accountability)’ 증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책임성 확보는 공여기관들과 수원국들이 개발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

1. 매우 긍정적	25%
2. 긍정적	50%
3. 중립적	25%
4. 다소 부정적	0%
5. 매우 부정적	0%

C.2.2. (아크라행동계획에의 부응성) EDCF가 인도네시아에서 아크라행동계획의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	33%
2. 긍정적	67%
3. 중립적	0%
4. 다소 부정적	0%
5. 매우 부정적	0%

C.2.2.1. EDCF가 아크라행동계획의 첫 번째 지표인 ‘원조의 예측가능성과 수원국 시스템 활용’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조의 예측가능성은 공여국이 수원국들에게 향후 3~5년 동안의 수원국으로의 원조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수원국 시스템 활용은 원조전달에 있어 공여국의 시스템보다 수원국들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1. 매우 긍정적	0%
2. 긍정적	75%
3. 중립적	25%
4. 다소 부정적	0%
5. 매우 부정적	0%

C.2.2.2. EDCF가 아크라행동계획의 두번째 지표인 ‘공여조건(conditionality)의 개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여조건 개선은 공여국이 아닌 협력국 자신의 개발목표에 적합하게 원조금액을 이용하는 것)

1. 매우 긍정적	0%
2. 긍정적	50%
3. 중립적	50%
4. 다소 부정적	0%
5. 매우 부정적	0%

C.2.2.3. EDCF가 아크라행동계획의 세번째 지표인 ‘언타이드 원조(Untying)’ 증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에 어느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도록 공여국이 조달에 있어 제한조건을 완화하는 것)

1. 매우 긍정적	0%
2. 긍정적	25%
3. 중립적	50%
4. 다소 부정적	25%
5. 매우 부정적	0%

D. 종결 질의

D.1. EDCF의 향후 대 인도네시아 지원 활동을 위한 전략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십시오

- EDCF의 지원이 교육, 보건, 교통 분야에 계속 집중되어야 함
- EDCF의 유상원조가 인도네시아 개발우선부문인 보건의료, 교통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EDCF 대 인도네시아 지원전략은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지출체계와 부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2007년 이래로 중단된 몇 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실행되어야 함
- 젠더, 환경, MDGs, 인권 문제들을 중심으로 더욱 개방된 환경에서 시민 사회와의 협의가 확대되어야 함
- EDCF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 정보가 더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함

4. EDCF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 EDCF 사업에 대한 적절성

A.1. 수원국의 개발 수요와 전략에의 부합성

A.1.1. (수원국 개발 정책 및 전략과의 일치) EDCF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국가 장기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전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50%
2. 그렇다	17%
3. 보통이다	33%
4. 아니다	0%

A.1.2. (수원국 개발 수요와의 부합성) EDCF 사업의 개발 목표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선개발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33%
2. 그렇다	67%
3. 보통이다	0%
4. 아니다	0%

A.2. 사업발굴 및 형성, 사업수행절차의 적절성

A.2.1. (EDCF와 수원국과의 조율) EDCF 사업의 발굴과 형성 과정에 있어서 EDCF와 수원국 해당 부처간의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50%
2. 그렇다	50%
3. 보통이다	0%
4. 아니다	0%

A.2.2. 만약 위의 답이 3번이나 4번이라면 대 인도네시아 지원 사업발굴 형성시 EDCF와 수원국 해당 부처간의 원조 조율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A.2.3.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있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33%
2. 그렇다	67%
3. 보통이다	0%
4. 아니다	0%

A.2.4. 만약 위의 답이 1번이나 2번이라면 협의 및 대화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구분	지방정부	지역커뮤니티	NGO	타공여기관	학계전문가	민간기업
1 사업발굴	83%	17%	17%	17%	67%	0%
2 F/S	67%	0%	17%	17%	67%	33%
3 사업준비- 실시계획	100%	33%	17%	17%	67%	33%
4 사업실시	100%	17%	17%	17%	33%	67%
5 평가	67%	17%	33%	33%	33%	67%

(100%는 설문답변기관 모두 응답하였음을 의미함)

A.2.5.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대화 과정이 유익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60%
2. 그렇다	20%
3. 보통이다	0%
4. 아니다	0%
* 무응답	20%

A.2.6. 다양한 이슈들이 사업 형성 및 실시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젠더	환경	문화	지역주민
1. 매우 그렇다	0%	20%	20%	40%
2. 그렇다	100%	80%	40%	40%
3. 보통이다	0%	0%	0%	0%
4. 아니다	0%	0%	0%	0%
* 무응답	0%	0%	40%	20%

(100%는 설문답변기관 모두 응답하였음을 의미함)

A.2.7. EDCF 절차와 조달 시스템은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17%
2. 그렇다	66%
3. 보통이다	17%
4. 아니다	0%

A.2.8. 만약 위의 답이 3번이나 4번이라면, 가장 적합한 이유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답변 없음>

A.2.9. 조달/구매 절차가 투명하였다고 생각합니까?

1. 예	83%
2. 아니오	17%

A.2.10. 만약 위의 답이 아니오라면, 이유를 상술하여 주십시오.

- 필요 기자재가 공여국 기자재만으로 조달하도록 되어있음

A.2.11. 사업과 관련한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구분	F/S	시행계획	월별 리포트	모니터링	평가
1. 예	60%	60%	40%	80%	60%
2. 아니오	20%	0%	20%	20%	20%
* 무응답	20%	40%	40%	0%	20%

B. EDCF 사업에 대한 효과성

B.1. 사업목적 및 목표의 달성 여부

B.1.1. (구체적인 목표 수립) 당신과 연관되어 있는 EDCF 사업의 개발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합니까?

1. 매우 그렇다	33%
2. 그렇다	33%
3. 보통이다	33%
4. 그렇지 않다	0%

B.1.2. (계획된 목표의 달성) 개발 목표와 목적을 계획대로 달성하는데 있어 EDCF 사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이다	17%
2. 긍정적이다	83%
3. 다소 부정적이다	0%
4. 매우 부정적이다	0%

B.1.3. EDCF의 원조 형식에 따라 당신과 연관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은?

A) 시설의 건설

1. 매우 효과적이다	50%
2. 효과적이다	17%
3.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0%
4.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0%
* 무응답	33%

B) 장비의 공급

1. 매우 효과적이다	17%
2. 효과적이다	50%
3.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0%
4.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0%
* 무응답	33%

C)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1. 매우 효과적이다	0%
2. 효과적이다	67%
3.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0%
4.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0%
* 무응답	33%

D) 연수와 현장방문

1. 매우 효과적이다	17%
2. 효과적이다	50%
3.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17%
4.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0%
* 무응답	17%

B.2. 사업성과 및 기여분야

B.2.1.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의 주요 기여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경제적 이익과 수익을 창출 역량의 강화	83%
2. 사회복지와 보안의 향상	67%
3. 정책과 제도의 개선	50%
4. 기술적, 관리 능력의 획득	83%
5. 기타	17%

B.3. 원조 조달 시스템

B.3.1. 모니터링과 평가는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정기적	17%
2. 정기적	66%
3. 다소 비정기적	0%
4. 매우 비정기적	0%
* 무응답	17%

B.4. 사업미비점, 성공 및 실패요인

B.4.1. 여타 개발파트너들과 차별화된 EDCF 사업의 성공과 실패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술해 주십시오.

성공요인

- 모든 요인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의 책임 하에 있음
- EDCF의 엄격한 모니터링
- 컨설팅이 EDCF와 함께 쉽게 이루어짐
- 빠른 행정처리 과정
- 외채관리 운용 규정이 분명함
- 공급자 측의 완벽한 기술지도
-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지출구조와 부합한 EDCF 전략

실패요인

- 평가는 프로젝트 완공 후 가능한 빨리 수행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 EDCF 사무소는 실행기관에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지 못함
- 물품과 서비스 공급이 인도네시아의 조달규정에 충분히 입각해 이루어지지 않음

C. EDCF 사업의 효율성

C.1. 사업요소의 투입-산출 효과

C.1.1.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의 세부 투입요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0%
2. 그렇다	83%
3. 별로 그렇지 않다	17%
4. 매우 그렇지 않다	0%

C.1.2. 만약 위의 답이 3번이나 4번일 경우 개선을 위한 당신의 조언을 상술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C.1.3.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의 총예산과 각 예산의 항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0%
2. 그렇다	100%
3. 별로 그렇지 않다	0%
4. 매우 그렇지 않다	0%

C.1.4. 만약 위의 답이 3번이나 4번일 경우 개선을 위한 당신의 조언을 상술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C.1.5.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의 추진 일정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0%
2. 그렇다	50%
3. 별로 그렇지 않다	50%
4. 매우 그렇지 않다	0%

C.1.6. 만약 위의 답이 3번이나 4번일 경우 개선을 위한 당신의 조언을 상술해 주십시오.

- 아담말릭 및 칸도우병원 개선사업의 실행에서 느린 입찰, 승인 및 조달 절차에 기인한 지연이 있었음
- 2010년에 진행중인 모든 사업은 예정된 일정에 비해 모두 지연된 상태임

C.2. 예정된 사업의 집행

C.2.1. EDCF 사업 집행에 지체가 있었습니까?

1. 없다	60%
2. 있다 - 6개월	0%
3. 있다 - 12개월	20%
4. 있다 - 1~2년	0%
5. 있다 - 2년 이상	0%
6. 무응답	20%

C.2.2 만약 위의 답이 2번, 3번 또는 4번일 경우 지체 원인에 대한 의견과 개선을 위한 조언을 상술해 주십시오.

- 2010년도 분기별 모니터링 미팅(quarterly monitoring meeting) 결과, 모든 EDCF 사업이 위험상태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임

C.3. 원조제공체계 및 사업 집행, 조달의 효율성

C.3.1. 원조실행절차 주기에 있어서 EDCF 사업의 원조집행 체계와 절차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1. 매우 효율적	33%
2. 효율적	67%
3. 다소 비효율적	0%
4. 매우 비효율적	0%
5. 무응답	0%

C.3.2. 만약 위의 답이 3번이나 4번일 경우 개선을 위한 당신의 조언을 상술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C.3.3. 사업계획과 실제조달에 있어 실행상의 차이나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까?

1. 있음	17%
2. 보통	0%
3. 적음	67%
4. 해당사항없음	17%

C.3.4-1 EDCF의 실질적인 원조지출이 사업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17%
2. 그렇다	33%
3. 별로 그렇지 않다	50%
4. 전혀 그렇지 않다	0%
5. 무응답	0%

C.3.4-2 EDCF의 설비 조달과 전문가 파견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0%
2. 그렇다	50%
3. 별로 그렇지 않다	33%
4. 전혀 그렇지 않다	0%
5. 무응답	17%

C.3.5. 만약 위의 답이 3번이나 4번일 경우 개선을 위한 당신의 조언을 상술해 주십시오.

- 대부분 한국 컨설턴트가 EDCF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 컨설턴트의 역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 컨설턴트의 선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

C.4. 기술적 전문성 및 원조기관의 전문역량

C.4.1. EDCF 사업 인력의 기술적 전문성과 전문역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17%
2. 긍정적	83%
3. 다소 부정적	0%
4. 매우 부정적	0%

C.4.2. 만약 위의 답이 3번이나 4번일 경우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답변 없음>

C.5. 견해와 조언

C.5.1. EDCF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상술해 주십시오.

- 예산작성과 보고에 관한 명확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기술이전은 사업 완공 후 적어도 1년간 실행되어야 하며, 사업 관련 문서와 관련 파일도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D. EDCF 사업의 영향력

D.1.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력

D.1.1.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17%
2. 긍정적	67%
3. 다소 부정적	0%
4. 매우 부정적	0%
5. 무응답	17%

D.2. 지역사회개발 영향력

D.2.1.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17%
2. 긍정적	83%
3. 다소 부정적	0%
4. 매우 부정적	0%
5. 무응답	0%

D.3. 사회적인 결속, 윤리, 문화적 행태에 대한 영향

D.3.1.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사회적인 결속, 윤리, 문화적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17%
2. 긍정적	67%
3. 다소 부정적	17%
4. 매우 부정적	0%
5. 무응답	0%

D.4.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의 영향

D.4.1.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의 우호적 관계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50%
2. 긍정적	50%
3. 다소 부정적	0%
4. 매우 부정적	0%

D.4.2. EDCF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사업이 당신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1. 매우 긍정적	33%
2. 긍정적	67%
3. 다소 부정적	0%
4. 매우 부정적	0%

D.5. 견해와 조언

D.5.1. EDCF 사업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견해와 조언을 상술해 주십시오.

- 전체 사업비 중 수원국의 부담분이 감소되어야 함
- EDCF 지원조건에서 현재의 연 이자율보다 더 낮아야 함
- EDCF는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협력하도록 독려해야 함
- EDCF 본부와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소 간의 조정 및 협력이 강화되어 공식 피드백이 가능한 빨리 회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

E.1. 경제적 수익 및 사회적 편익의 지속적 창출 가능성

E.1.1.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의 경제적 수익의 지속적 창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	33%
2. 긍정적	67%
3. 다소 부정적	0%
4. 매우 부정적	0%
5. 무응답	0%

E.1.2.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의 사회적 편익의 지속적 창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	33%
2. 긍정적	67%
3. 다소 부정적	0%
4. 매우 부정적	0%
5. 무응답	0%

E.2. 재무적 지속가능성

E.2.1. 당신과 관련된 EDCF 사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	17%
2. 긍정적	67%
3. 다소 부정적	17%
4. 매우 부정적	0%
5. 무응답	0%

E.3. 기술, 경영적 지속가능성

E.3.1. 귀 기관과 관련한 EDCF 사업의 기술과 경영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	17%
2. 긍정적	67%
3. 다소 부정적	17%
4. 매우 부정적	0%
5. 무응답	0%

E.4.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지속적 지원 여부

E.4.1. 당신과 관련된 EDCF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지속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50%
2. 긍정적	50%
3. 다소 부정적	0%
4. 매우 부정적	0%
5. 무응답	0%

E.4.2. EDCF 사업의 완공 이후에도 당신은 개인적으로 사업운영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50%
2. 그렇다	17%
3. 별로 그렇지 않다	0%
4. 전혀 그렇지 않다	17%
5. 무응답	17%

E.5. 견해와 조언

E.5.1.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견해와 조언을 상술해 주십시오.

-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육, 훈련, 자격증 제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기존 EDCF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온 교훈을 이후의 다른 지원사업에 적용하여 성과 도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완공 후 2년 단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F. 성주류화(Cross Cutting) 분야 이슈의 주류화

F.1. 성주류화에 대한 고려

F.1.1. EDCF 사업의 형성 및 계획 시 성주류화에 대한 고려 수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0%
2. 긍정적	33%
3. 다소 부정적	50%
4. 부정적	17%
5. 무응답	0%

F.1.2. EDCF 사업을 실행하는데 성주류화에 대한 활동이 있었습니까?

1. 있다	33%
2. 없다	67%
3. 무응답	0%

F.1.3. 만약 위의 답이 1번일 경우 성주류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지표를 개선하는데 있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0%
2. 긍정적	17%
3. 보통이다	17%
4. 부정적	0%
5. 무응답	67%

F.1.4. 성주류화를 위한 EDCF의 노력에 대한 견해와 조언을 상술해 주십시오.

- EDCF 프로젝트의 계획, 수행, 평가 시 어떠한 성차별도 없었음
- 본 사업은 성주류화 이슈와 특별한 연관성이 없음

F.2. 환경에 대한 고려

F.2.1. EDCF 사업의 형성 및 계획 시 환경에 대한 고려 수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50%
2. 긍정적	33%
3. 다소 부정적	0%
4. 매우 부정적	0%
5. 무응답	17%

F.2.2. EDCF 사업을 실행하는데 환경보호에 대한 활동이 있었습니까?

1. 있다	33%
2. 없다	67%

F.2.3. 만약 위의 답이 1번일 경우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지표를 개선하는데 있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긍정적	17%
2. 긍정적	33%
3. 보통이다	0%
4. 부정적	0%
5. 무응답	50%

F.2.4. EDCF의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에 견해와 조언을 해 주십시오

- EDCF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부합한 환경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해야 함

G. 종결 질의

G.1. EDCF의 향후 대 인도네시아 지원 활동을 위한 전략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십시오

- EDCF는 전문적(전문기술) 지원에 힘써야 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인도네시아 관계부처와 조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EDCF 사업은 비구속성 원조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높은 경쟁력을 가진 제 3국의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함
- 과거 사업으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통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 사업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외에도 EDCF 사업의 절차 및 규정 들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함
- 사후관리는 사업 완공 후 적어도 3년간은 보장되어야 함

부록 3. 현지평가워크숍 주요 결과

가. 평가 워크숍 개요

- 일자 및 장소
 - 일자: 2011년 3월 4일 (금), 14:30~19:30
 - 장소: 닛코호텔 제이드룸
- 주제
 - Evaluation on EDCF Strategy and Projects for Indonesia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발제자/토론자
14.30~15.00	Registration	
15.00~15.10	Opening Ceremony - Opening Remark	Mr. Woon Chang Lee, Country Director EDCF Representative Office Indonesia
	- Congratulatory Remark	Mr. Widhanarko, Director of Evaluation, Accounting, and Settlement, Ministry of Finance
15.10~16.10	The 1st Session (Moderator: Dr. Rofikoh Rokhim, University of Indonesia)	
	Overall Assesment on Korea's EDCF Assistance and Strategy for Indonesia (15min)	Mr. Kyong Koo Lee, KDS
	Korea's EDCF Strategy for Indonesia (15min)	Mr. Kurniawan Ariadi, Head of Sub Director for Bilateral Foreign Funding, Bappenas
	Evaluation and Performance of Korean Projects' Implementation (15min)	Dr. Ir. Benny Setiawan MSc., Director for Utilization of Development Funding, Bappenas
	Discussion Comments (10min)	Dr. Timothy Babcock, Senior Consultant of CIDA Dr. Suraya Afiff, Head of the Center for Anthropological Study, University of Indonesia
	Q&A(5min)	
16.10~16.30	Coffee Break	
16.30~17.45	The 2nd Session (Moderator: Dr. Rofikoh Rokhim, University of Indonesia)	
	Overall Assessment on Korea's EDCF projects for Indonesia (15min)	Dr. Sung Il Bae, KDS

	Ex-post evaluation for Hospital Waste Water Treatment Plant Project (15min)	Dr. Seong Ho Ryu, KDS
	Korea's EDCF Projects for Indonesia Perceived by the Recipient Partners and Stakeholders (15min)	Dr. Angel Manembu, Local Consultant, KDS
	Discussion Comments (10min)	Dr. Suraya Afiff, Staff of Foreign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Health Ms. Siti Khoirun Nikmah, Program Officer INFID
	Q&A (5min)	
17.45~18.00	Wrap Up Session	Moderator
18.00~19.30	Dinner	

참석자 (총 60명)

- 인도네시아측: 정부기관 및 NGO, 국제기구 등 관계자
- 아측: 평가팀 및 EDCF 관계자

나. 평가 워크숍 발제 주요내용

1) 발제 1: Overall Assesment on Korea's EDCF Assistance and Strategy for Indonesia (발제자 이경구)

CCSP 및 사업수행절차 평가

- 한국의 ODA정책과 전략의 연계성, 인도네시아 개발수요와 전략과의 부합성, 원조조화, 국제규범에의 부응성 측면에서 적절성 평가
 - 대부분 적절하게 잘 반영되어 왔으나, Framework Arrangement의 합의 금액과 Rolling Plan에 등재된 사업 수에 비해 실제 승인은 적은 편
- 프로젝트 수행 기간 개선, 더 심도 있고 충분한 프로젝트 발굴 및 준비, 프로젝트의 예측가능성 증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지역공동체와 NGO 참여 증대 등이 필요

결론 및 제언

- 대 인도네시아 통합 국가지원전략 필요하며, 비교우위를 지닌 전략적 분야에 집중 필요
- Sector Wide Approach (SWAp) 나 Program Based Approach (PBA) 같은 보다 향상된 형태의 Aid Programming 필요

- 인도네시아 국가 시스템 활용 및 언타이드 방식의 원조 촉진 등 EDCF 수행방식의 개선

2) 발제 2: Korea's EDCF Strategy for Indonesia (발제자 Mr. Kurniawan Ariadi)

- 대 인도네시아 원조현황 (EDCF를 중심으로)
 - (공여국 비중) JICA(38.45% 51개 프로젝트 진행중) 1위, ADB(16.01%, 26개) 2위, 세계은행(14.29%, 27개) 3위, EDCF(0.23%, 6개)
 - (분야별 EDCF 프로젝트의 분야별 비율) 보건 (45%), 교통(24%), ICT(22%)
- EDCF 전략과 차관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약속 및 이행) Framework Agreement는 자금 지출의 예측가능성 및 유연성을 부여하였으나 높은 약속(Commitment) 금액에 비해 실제 집행은 낮고 느림
 - (Jakarta Commitment and Paris Declaration) EDCF 개발우선분야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우선순위와 일치하지만, 조달방식이 인도네시아 국가규정 및 타 공여기관과 완전히 일치·조화되지 않음
 - 프로젝트 준비과정의 개선과 함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각각의 발전의 정도 차이를 고려하는 한편, 양국간 양자협력의 확대 및 상호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가 필요함

3) 발제 3: Evaluation and Performance of Korean Projects' Implementation (발제자 Dr. Ir. Benny Setiawan)

- 한국의 EDCF 차관 패턴 및 문제점
 - EDCF 프로젝트의 총액은 2006년 이후 매년 두 배씩 증가 추세
 -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개의 진행중인 프로젝트 중 4개 프로젝트가 이행 지연

□ 'PP2/2006' 이전 인도네시아의 차관/프로젝트 시행시 문제점

- (정책적 측면) 명확한 해외차관 수원정책 부재, 포괄적인 국가채무관리 전략 부재, 기관간 협력 및 조정의 부재 및 빈약한 제도적 역량, 공여자 중심의 차관 협상 과정, 적은 규모 및 늦은 자금지출, 국가적 개발 목표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차관/프로젝트 지원
- (기술적 측면, 이행과정) 프로젝트 준비 미흡 (프로젝트 관리조직 및 관련기관 간 조정문제), 절차상 문제점(예산문서의 발급 및 프로젝트 관리자 임명)

□ 차관관리 개선을 위한 활동

- 국가적 수원정책 수립
- 지역별, 분야별 개발우선순위 및 MDGs와의 일치
- 정부기관간, 정부와 공여국간, 공여국간 협력과 조화
- 체계적인 준비절차의 도입을 통한 프로젝트 시작과정 개선
- 모니터링 및 평가 측면에서 조정기능 강화, 공여기관들과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 정부 규정 발표

4) 발제 4: Overall Assessment on Korea's EDCF projects for Indonesia (발제자 배성일)

□ 사업에 관한 예비평가 결과

- 적절성 : 매우 적절함 (CCSP의 두 가지 목표 및 중점분야에 부합)
- 효과성 : 매우 효과적 (인프라건설,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 IT 기술 전수)
- 효율성 : 다소 부정적 (9개 사업 중 7개 시행 연기, 2개 예산초과)
- 영향력 : 매우 긍정적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 사회경제적 영향력)
- 지속가능성 : 보통 (프로젝트 지속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범교차적 이슈 : 보통 (여성에게로의 각종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형성 단계에서의 여성 및 환경 고려 미흡)

결론 및 제언

- 수원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요인 고려 필요
- 지속가능성 개선 요구됨

5) 발제 5: Ex-post evaluation for Hospital Waste Water Treatment Plant Project (발제자 류성호)

사업에 관한 예비평가 결과

- 적절성 : 적절함 (병원폐수를 강으로 직접 배출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
- 효율성 : 매우 효율적 (수행 기간, 비용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
- 효과성 : 효과적 (프로젝트의 효과가 목적에 부합)
- 영향력 : 긍정적 (새로운 고용효과, 환경개선 등)
- 지속가능성 : 긍정적 (인력 및 제도적 지원 등 적절히 제공되고 있음)

제언

- 기술 지원 (처리 관리 방법, 설비 운용 및 보수 기술) 필요
- 설비 예비부품 공급 등 조달부분 개선
- 에너지 절약 전략 수립, 숙련기술자 고용 등 필요

6) 발제 6: Korea's EDCF Projects for Indonesia Perceived by the Recipient Partners and Stakeholders (발제자 Ms. Angel Manembu)

EDCF 프로젝트의 장점 및 단점

- 국가범죄정보센터, 국가정보통신교육원, 병원폐수처리시설 등은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시
- 반면, 예비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점, 기술적 문제 해결, 대용량 전력 필요, 느린 절차, 더 많은 현지 기업들의 참여방안 마련 필요 등을 지적

제언

- 단순한 원조 활동을 넘어서 인적자원개발, ICT산업발전,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입찰과정 참여 증진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 필요

- 예비 부품 공급과정 개선 및 부품 제공 업체 정보 공유 필요 (병원 폐수처리시설) 등
- 기타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IT 기술 활용 프로젝트 고려 요망
- 지역간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혜지역 선정기준 필요

부록 4. 현지컨설턴트 리포트

EDCF evaluation report from Indonesia consultant's point of view

Angel Manembu

1. Introduction

This is an evaluation report in looking at the recipient country and the country stakeholder' perceptions and was conducted for Korea EximBank who is in charged for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projects in Indonesia. This evaluation is implemented by a think-thank organization called 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KDS.

The scope of the evaluation project includes EDCF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nd Program and Projects (1987-2009) for Indonesia in the areas of relevance, effectiveness, efficiency, impact, sustainability, and cross-cutting issues (gender mainstreaming & environment).

Followings are the projects that were observed by the this evaluation and by the author

<Table 1> The list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Year	Project Title	Sector	Notes
1987~	Padang By- pass Project	Transport	
1991~	Mobile Training Unit's Development Project	Education	
1992~	Nature silk Spinning Industry Project	Foreign Investment	
1994~	Business and Commerce Education Development Project	Education	
1995~	Manado By-pass Project	Transport	v

1997~	Improvement of District Hospitals in South and East Kalimantan Project	Health	
1999~	Hospital Waste Water Treatment Plant Project	Water Supply and Sanitation	v
2000~	Improvement of District Hospitals in East Java Province Project	Health	
2004~	National Criminal Information Centre Development Project	Public Administration	v
2005~	Strengthening of Teaching Hospitals Project	Health	
2006~	Manado By-pass Project (Phase II)	Transport	
2006~	Batam e-government Project	Public Administration	v
2006~	National IC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Communication	v
2008~	Improvement of H. Adam Malik Hospital in Medan Project	Health	In preparation process
2008~	Upgrading of Prof. Dr. R.D. Kandou Hospital in Manado Project	Health	In preparation process
2009~	Development of Automation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ject	Communication	cancelled
2009~	Padang Bypass Capacity Expansion Project	Transport	

Note. v: the project that the author observed

From the above list, the author concentrates in assessing five projects only included the 2 sites of waste water projects by the Ministry of Health located in Jakarta, the Manado by pass road I by the Ministry of Public Works, the national centre of criminal information by the Indonesia National Police, and the ICT-Human Resources Development by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what kind of projects that are assessed, these are a short description of the five projects.

1) Waste Water Treatment Projects

EDCF fund has assisted 42 hospitals in Indonesia work with Ministry of health for biological waste water treatment project. The funding is used to buy equipments, to build a waste water treatment building, to train all involved parties in Korea and Indonesia. Locations that I visited are in Cipto Mangunkusumo hospital and Persahabatan hospital in Jakarta. The project has ended.

2) National Centre of Criminal Information

The funding is for Indonesia National Police to have a system of criminal data at national level. This system has assisted 169 points among 5000 points that can collect criminal data all over Indonesia. The funding is included the data system, IT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equipments and the training to implement that include the consultants who provide the training. The phase one of this project has finished in 2009.

3) ICT Centre

The funding is to build ICT centre, to select consultant and implement the assistance, build a training centre, included training to Korea. The consultant develops a training curriculum with Universitas Islam Negeri (Moslem State University) staff. The project is a cooperation with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he project ends in 2009.

4) Manado By pass project I

It is an infrastructure project to develop a highway in Manado. This highway is a short cut from North Manado to go to South Manado without passing Manado.

5) E government in Batam

In an attempt to increase competitiveness and attract more investors as well as to coordinate with efforts to transform government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the Government of Indonesia decided to establish an e-government system for Batam Island. Over a course of 2 years, the Batam government was provided

with consultation services, application software, fellowship training, IT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IT Centre construction. The project has finished in 2009.

Methodology

The methodology is based on a qualitative approach. It is a combination of asking the respondents as the beneficiaries and stakeholders of the projects, field visit, analysis of questionnaires filled in from stakeholders, also analysis of written data consists of reports, presentation, and newspapers. In addition, the discussions and presentations during the workshop are an added value of the findings.

2. FINDINGS

RELEVANCE

Relevance and consistency with Korea's other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strategies on Indonesia

According to Mr Kennedy Simanjuntak, Director of Bilateral Cooperation BAPPENAS in his 2009 presentation stated that the strengths of KOICAs is complimentary with EDCF, it is also mentioned by Mr Iwan Kurniawan, Deputy Director Bilateral Cooperation BAPPENAS, stated that EDCF and KOICAs in some instances have an in line policies. In the contrary to JICA, he added that the JICA grant goes to one direction and the loan goes to a different direction.

KOICA's Four (4) Priority Sectors:

(1) Industry&energy, (2) ICT, (3) Governance and government reform, and (4)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orestry development

And EDCF priority resources included waste and water treatment in hospitals, ICT and procurement of materials, infrastructure such as buildings and roads. The similarities of KOICAs and EDCF both has projects on ICT Centre development included training buildings, equipments such as computers also both

ICT projects have trained government officials in Korea and the staff who went to Korea had similar opinions that the training in Korea was very beneficial and useful.

The difference is KOICA works with bureaucratic reform which is Indonesia number one main agenda, but EDCF does not. KOICA works with Forestry sector in environment focus and EDCF has more projects CAIC with Ministry of Health.

Both entities work with the same institution such as BAPPENAS, PU, Kominf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inance. Such as in Kominfo, the person who is KOICA's counterpart is also EDCF counterpart. However, the degree on both organizations, EDCF and KOICA, cooperation can be improved by sharing strategy, information and lessons. This will also help Indonesia bureaucrats who often will not differenti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organizations, such as happened with JICA and JBIG in the past.

Alignment and consistency with Indonesia's development strategies and needs

Alignment with Long term Development Plan

Indonesia Long term Development Plan mission is to achieve Indonesia that is self reliant, advanced, just and prosperous. 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all development projects would contribute to Indonesia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Long Term Development Plan since it is quite a broad vision. In particular, the EDCF projects has some degrees to support the Indonesia long term development planning/Rencana Pembangunan Jangka Panjang Indonesia. The capacity building aspect will contribute to Indonesia more self-reliant, the IT system will assist Indonesia as an advanced country. With these two aspects can lead to prosperous Indonesia and up to a degree to Just Indonesia.

Alignment with Middle Term Development Plan (2010-2014) (BAPPENAS, 2010:24)

Compare to Indonesia Middle Term Development Plan that aims at the greater consolidation of the reform of Indonesia in all fields by emphasizing endeavors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ncluding the promotion of capacity building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competitiveness.

It is fair to say that the EDCF projects contribute to the aspect of increasing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especially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IT projects in national police, waste water treatment in 40 hospitals, IT Center and e government projects in Batam do provide capacity building in science and technology up to degree. Also the road and other infrastructure projects would lead to economic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economic competitiveness. However, there are no measurable indicators.

Five national development agendas in Middle Term Development Plan

For realizing the vision and mission of national development in 2010-2014, five National development agendas have been determined for 2009-2014, namely:

- Agenda I :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d Welfare of the People
- Agenda II : Enhancement of Good Governance
- Agenda III : Strengthening of the Pillars of Democracy
- Agenda IV : Enforcement of the Law and Eradication of Corruption
- Agenda V : Development that is Inclusive and Just

(BAPPENAS, 2010:37)

If we look at these five agendas above, the EDCF projects mostly related to agenda 1 that is increased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d welfare of the people. However, there is no connection with the other four agenda, since mostly welfare projects deal with Economic infrastructure, social infrastructure - hospital, sewage treatment, and vocational training also information technology. The EDCF direction in 2010 has two other thematic focus consists of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infrastructure, the Indonesia target is stated as

- a) Construction of the Trans Sumatra, Java, Kalimantan, Sulawesi, West Nusa Tenggara, East Nusa Tenggara, and Papua infrastructure. Reaching a length of 19,370 km by 2014.

- b)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inter-mode and inter-island transportation network,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ystem and Multi-mode Transportation Blueprint. Completed in 2014
 - c)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the Optic Fiber Network in Eastern Part of Indonesia Completed before 2013.
 - d) Repairing the transportation system and network in four big cities (Jakarta, Bandung, Surabaya, and Medan) Completed in 2014.
- **None of the EDC projects related to this above infrastructure targets**, even though at the moment there is a Manado by pass road and Padang by pass road project.

Based on Government Regulation PP 7/10 2010 on loan and grants

- In the future eligible activities criteria for loan is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s, innovative, high benefit, pro growth-pro job, pro poor, decrease regional disparity, ability to transfer knowledge-The question is how EDCF is going to formulate the future projects to comply to criteria?

Reasonability of the procedures and methods applied across the cycle of aid programm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ccording to many parties interviewed that the EDCF procedures are very long. For example, the national center for criminal information of Indonesia police project has taken around 13 years from planning to ending of phase one project.

This is one reason why tha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since the persons in charge have already moved to other sections or retired such as in health and education sectors.

There are no sufficient communication mechanism between current EDCF office in Indonesia and the line ministries. For exampl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ill contact EDCF in Seoul since they do not know whether there is an EDCF representative in Jakarta. This will affect a good process should be.

But, for BAPPENAS at Bilateral Funding Directorate stated that they have regular communication with EDCF representative in Jakarta, but this communic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at the same degree with other directorates. However, they hope that the EDCF can spend more time for their appraisal since they compare JICA did a project appraisal for two weeks to one month and EDCF only did for five days.

Harmonization with other donor agencies and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standards and agenda

EDCF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bilateral agency such as JICA, since they meet quite often and they also exchange information such as Indonesia current regulations. However, other donor agencies such as The World Bank and Aus Aid and perhaps the Asian Development Bank have never been built into a synergic cooperation; bearing into mind, that it is only one person in the EDCF project in Indonesia and one secretary.

According to BAPPENAS Directorate of Funding Utilization said that the EDCF representative has not attended the donors meeting yet. In addition, BAPPENAS has the Aid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Secretariat (A4Des), the secretariat aims to improve donor effectiveness such as stated in Jakarta commitment. The EDCF has not joined the donor meeting in the secretariat yet.

Contributions towards MDGs

In relation to MDGs, it can be said it is not very significant the contribution towards MDGs and the projects did not have performance indicators nor analysis on what goals of MDGs that is going to be supported and the reasons why and what are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s.

Exceptionally, the Waste water treatment projects is related to MDGs number 7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treating biological waste of the hospitals and in this way contributing to better quality of water around the neighbourhood. It can be said it has some relation to maternal, infant, and children mortality of MDGs goals but not significant; since the locations of high incidents of maternal, infant

and children mortality in Indonesia are located in rural areas and not in the location of district or town hospitals.

The Middle Term Plans have put a greater emphasis o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f Indonesia **MDG 1** – The proportion on of people having per capita income of less than USD 1.00 a day has declined from 20.6 percent in 1990 to 5.9 percent in 2008. But in 2010, the poverty rate is 13,4 % or about 31 million people are poor. From that amount 2/3 is in rural areas.

Indonesia Representative for MDG, Nina Muluk Djuwita stated that from 1990-2010, poverty Indonesia is only fallen around 1%. Moreover, in the MDGs report (2010) stated that there are three goals that Indonesia is not going to achieve, they are maternal mortality, HIV/AIDS and forest coverage.

WWTP projects are related to MDGs even though it was not designed to decrease maternal mortality but it contributes to ground water healthiness and this can have a positive contribution for maternal and infant also children mortality. However, the question is for the future, how can EDCF projects are designed to assist Indonesia especially on the MDGs that Indonesia is not on track is a challenge. Further, since most of the poor are in rural areas, how EDCF projects can have a positive impact for these areas.

At the moment all EDCF projects mostly are located in Java and the also has projects in Manado which are all located in big cities and a province which has a high fiscal capacity. Even though, EDCF cannot create projects by its own since Government of Indonesia who decides where the location is, however EDCF might negotiate on that matter. In comparison Aus aid loan policy has clearly stated that they will fu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on the eastern part of Indonesia the areas that is lack behind compare than other areas in Indonesia.

Relation to International Agreement and Agenda

Based on the Paris Declaration Survey indicators, items to be measure included

For oper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flows of aid aligned on national

priorities have been stated in previous pages that EDCF has a moderate significant relevance and aligned towards Indonesia development priorities.

The ratio of disbursement is poor since it is only 21% of loan that has been disbursed.

Use of country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procurement system are poor because all procurement and financial system of EDCF still use the donor system.

Aid is untied- EDCF still a tied aid- it is using a donor country system. Almost all of the contractors are Koreans and this is different compare to other donor agencies

How much **aid is program based?** EDCF has none program based approach.

Percentage of donor coordinated mission for EDCF is 0% since the mission is by EDCF itself. In regards of the KDS evaluation, the mission is not a joint mission with the government but the evaluation workshop is a joint activity. This is a good start.

Bearing into mind, in EDCF Guidelines on evaluation stated that a joint evaluation is one method of evaluation. It has not been implemented in Indonesia yet, however the Evaluation workshop is one step forward since two BAPPENAS line agencies, provide their critical analysis and almost all line ministries who are the beneficiaries attended the workshop. I have not seen the same workshop that involves the beneficiaries of the projects in the World Bank evaluation process that I know, even though it is an evaluation of grant projects.

Nevertheless, EDCF has room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fulfill the Paris Declaration Agreements that are discussed above.

Effectiveness

The capacity building is effective for WWTP and ICT and included BIDA project staff. All these staff stated that they provided rate between 4~5 to the

quality and usefulness of the training, for 1 is very bad and 5 is very good quality. The project with the Indonesia police is a different story. They think that the length of training is not sufficient and the consultants do ‘half-hearted’ training. For BIDA project, the capacity building needs to be enhanced since each participant of the training has different capacity. It means that one person needs more time than the other. The Manado by pass project has no training.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based on participants opinion

“The training in Korea is very good, good material and good teacher. If it is from 1 to 5 and 5 is very good, Korea training is between 4 and 4.5”
(Dimas Anindityo&Indira,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aff)

The Waste water treatment projects that we visited are still functioning even though the project has finished in 2009, this has proven that the approach and the results are effective. More importantly, in Waste Water treatment project such as in RS Cipto Mangunkusumo, Jakarta, the WWTP made in Korea becomes a standard when they built other WWTP. In the Indonesia police office, the system becomes the only system of gathering the criminal data in the police and the division can provide the most accurate data compare to other division.

Comments on the effectiveness of WWTP projects

“WWTP has supported RSCM to manage the biological waste in ICU, surgery, Emergency, Laboratory, Radiology.
The system is easy to operate.
Now, the RSCM hospital has a standard on how to manage water waste”
(Ms Zulfia Maharani (head sanitation unit RSCM), Ms Roosdiana I Wahyu (head of monitoring of environmental in Sanitation unit RSCM))

The ICT project has just started and they have plans on how to run the training centre. The Moslem university staff and the contractor staff have designed a curriculum for the training center. This follow up by the users is considered as

an effective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e government Batam project is questionable. The system that they have shown us on e government is an intranet system on internal office administration. Of course this system will speed the administration process but intranet system has been applied since 10 years ago in Indonesia. Indonesia does not need a loan only for this kind of system. We have not seen the e government is practiced in increasing public services such as in the port and airport. The e e ding paid by the project is sufficiently big but not a good quality, since the walls are wet an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floor that might lead to an accident if they do not fix it. The library has some books however, we did not see any system in place and no people attend the library and there is no sign in front of the building that there is a library. Actually the building looks like almost no function.

One issue of effectiveness is **language**. BAPPENAS complaint about the procurement guidelines, but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aff stated that the EDCF guidelines are clear and can be downloaded in the EDCF website. It is true, that all the loan information are on the web such as proposal form for EDCF loan, procurement of works, procurements of goods, selection of consultants etc can be downloaded at http://www.edcfkorea.go.kr/eng/documents/list.jsp?st_code=6&nd_code=1&ssec_no=541.

The question is how would the officials know that these informations are available in EDCF web? Maybe a **brochure** of EDCF in bahasa Indonesia and statement what information is available in the EDCF web can help.

Other issue raised by the BAPPENAS is how the EDCF can fund a framework of achieving something rather than provide funding for project by project. The framework approach is already raised in EDCF annual report 2009.

Issue of difficulties of spare parts are raised by the WWTP and ICT also the Criminal Data projects included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that is difficult to find the spare parts in Indonesia. The

action they did was to ask a technician in workshops on how to fix them. For the police, they asked whether it can be differentiate equipments at national and district level since for example the national police office can afford to buy ink for laser printer but it is not the case for police office at district office level who has limited budget.

Other concerns from the WWTP projects such as the WWT equipment has a lot of mud and it is difficult to manage, it is also difficult to find suitable land, sensor of COD are broken, ammonia and phosphate are high and most importantly they do not know who they can contact if they have technical problems.

Efficiency

The EDCF projects have taken along time to process, the disbursement is in **poor performance** according to BAPPENAS and this will cause inefficiency of the projects. For this reason, EDCF needs to find out in more details on how to speed the proces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In 2010, the disbursement is only 21% the lowest among other agencies and EDCF has only six projects.

If we look at '**value for money**' at qualitative way, It can be said that at the concept level the WWTP projects, the Criminal Information Center project, the ICT, and the road projects have a **good value of money**, if we compare the amount of loan and the output of projects with some notes for improvement. For WWTP projects, it needs to assess the projects in other locations not only projects in big ci of . Since we receive comments from the hospitals that there are hospitals that ts fnot know the project and hospital that said they have never received the guideliSin on how to operate the equipment. In addi oon, the head oneyanitation unit in Cipto s tgunkusumo hospital Jakarta went to do evaluation with the cts, it needhealth and found other n some needheas the WWTP ts fnot run well. But, who from EDCF projects will check them? This is one issue that was raised by the discussion with Ausaid that the agencies who provide loan need to check the quality of the work (minutes meeting with Ausaid, 2011).

Impact

Some middle term impact can be seen such as for the police it has made the unit become reliable on data accuracy and become a standard system. The WWTP projects can make a Persahabatan hospital become a green hospital. The road projects helped residents of North Sulawesi can have better and easier also faster access.

This is the statement of the head unit of the police

*"The best system in POLRI to collect criminal data
Compare to other division in POLRI, we provide the most accurate data
Our data can go to all regional Police Offices also to President
It supports Law of Police 2002 that it is an obligation to have an
information center for criminal data. This system helps us to collect, analyse
criminal data
We will make the system as a national system"*
(BrigJen Roy Tumbelaka, Head of National Center for Criminal Information)

*"We become a green hospital. Environmental Department tttning participants,
ITB and many students every month came to see our WWT. We are proud of
it". (Mr. Nasir, head of sanitation unit, Persahabatan hospital)*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means that the institution will continue to use the intervention with their own resources and with sufficient ability. The WWTP projects that we visited in Persahabatan and Cipto hospitals in Jakarta are and will be sustainable since the hospitals themselves pay the maintenance, they have already had human resources who were trained and now train others. The hospitals management provide a strong support for the continuity of WWT project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sustainability.

Similarly, the police project will be sustainable since they have already felt the benefit of the project and the project continues after the project finish since the

institution allocate budget for that.

The road project in Manado is still in use and will be there but maintenance of the road is still an issue, since there is no sign on what activities can do and cannot do. Also, since there is no capacity building, making a road with the quality standard similar to Manado by pass project is still a daunting task for Bina Marga and their contractors.

Batam e government project seems will be sustainable since it has received financial gain from the port and airport and also from national budget.

Other issues of sustainability raised by projects implementers are availability of spare parts since they found difficulties in looking for similar spareparts. In the future, if EDCF projects wants to be sustainable, this issues need to be seriously taken into consideration. Moreover, issues of equipments since there many IT projects, and by the time the IT system can be not up to date and can influence the continuity on what are they going to do if the computers and the system created become old fashioned?

Joint evaluation was suggested by BAPPENAS and this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next evaluation. It would be good if the design of evaluation is agreed by Koexim and BAPPENAS. Since joint evaluation is stated in EDCF Guidelines of Evaluation section. Joint evaluation will have a positive impact to sustainability, since the findings can be discussed together especially the follow up. In addition, it would be easier for Koexim to contact line ministries via BAPPENAS in conducting the evaluation and they can have an evaluation workshop to discuss issues and filled in the questionnaires at the same time.

Gender mainstreaming and environment: indigenous peoples issues in Indonesia

- Gender mainstreaming principles have not been formulated yet in the design of EDCF projects. Gender principles will look at on participation, benefits, impacts and opportunity to make decision for both women and men. It would be good if each project formulation is designed by using gender ar aysis in order to avoid gender bias in the projects

implementation and impacts. **The gender responsiveness can be applied to** training participants to Korea, ICT trainer and trainees, and hopefully gender issues included in training material. Also for the criminal data projects the question is would the police deal with women and children trafficking issues if they can get the data from the network?

- EDCF has to comply with the environmental standard by the government and for this purpose EDCF has an environmental guideline even though the guideline has not been in English and not in the web site yet.
- When I visit the Manado by pass road I, the road has a drainage system, also sides of the roads are build in consideration to avoid soil erosion. 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the quality of the road is better compare to the road that is built by the local government. Comments from the head of sector of Manado by pass II said that the width of the drainage is less compare to Duloduo-Kotamobagu road that is built by Korean as well. The NGO aamovs 1, Didi Koleangan (per n.communication, 2011), who concerned on environment said that the area is hilly areas of Menado and a water catchment areas for Menado. With the road development, it makes an open access for people to get the soils of the sideways of the road by digging hilly areas. In some parts, these activities build roads for their trucks to get the soils. However, they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road drainage system when they built their roads and the water cannot flow in this drainage system since they build a small road pass the drainage system. As a result of all these developments, the landscape of the areas is changed.

Comparisons with Other donors

The table 1 shows that the EDCF loan amount is about 0.23% of total foreign loan in Indonesia compares to JICA 38.45%. JICA has the highest number of loan in Indonesia followed by ADB (16.01%) and the World Bank(14.09%). Other loans are from Export Credit (13, 09%), other bilateral (12.62%) and other multilateral (5.31%).

Table 2. Comparisons among donors on loan in Indonesia, 2010

Lender	Loan Amount(million US \$)	Percentage	Undisbursed Amount	Percentage	Number of Projects
ADB	1,404.80	16.01%	1,653.34	46.51%	28
World Bank	4,023.56	14.29%	1,216.84	30,24%	27
JICA	9,694.78	38.45%	5,601.96	57,78%	51
EDCF	162.41	0.23%	143.57	88.39%	6
Other Bilateral	1,525.79	12.62%	737.82	48.35%	18
Other Multilateral	539.42	5.31%	337.14	62.5%	15
Export Credit	3,316.87	13.09%	1,402.42	42.28%	34
Total	20,667.63	100%	10,093.09		177

Source: Directorate for Utilisation Funding BAPPENAS, 2010

Looking at performance of disbursement, the World Bank is the best since it is only 30.24% has not been disbursed followed by export credit (42.28%), the ADB (46.09%), other bilateral donors(48.35%), JICA (57.78%), other multilateral donors 62.5%. Korea has the highest undisbursed loan which is 88.39% and it manages only 6 projects compare to JICA of 51 projects.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 Transparency

The EDCF website has a description about EDCF, EDCF procedures, activities, publications and documents also classification of evaluation including what are the advantages of EDCF loan compare to others plus annual reports up to 2009. In relation of transparency, EDCF has a policy in transparency, even though it is not in English. The evaluation mechanism for EDCF is almost similar to JICA, the only issue is number of people who do the evaluation. For EDCF, only one staff and in Seoul, monitoring and evaluation section has five staff only for all EDCF projects all over the world amounted to approximately KRW 5.9 trillion for 231 projects in 47 countries (EDCF, 2009:6).

Also, many reports are still in Korean and this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support transparency policy.

In JICA website we can also find similar information on procedures of loans find the loan contracts, evaluation reports and other information. JICA website can be read in other languages included French and Spanish also Indonesian. JICA has a special web site on Indonesia and in Indonesia language, it has description of each project in the web that EDCF does not have. Also there are more reports can be downloaded includ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reports and contract documents.

- Participation

In relation to participation, there is no stakeholder consultation for design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of the projects. The evaluation by KDS has started involving the stakeholder in the evaluation. This is a positive direction, since I am not sure whether the World Bank and ADB would ask an NGO such as INFID to provide comments in the workshop. It is a good practice.

Compare to JICA, they have annual meeting which they invite all stakeholders to discuss about the progress of the projects. This can be a good example. Participation is important especially to thoseportawill be impacted by the projects. osepexample a gooroad projects need to involve land owners and also marginal communities since they will be the parties that might suffer the most.

- Accountability

In relation to accountability, EDCF needs to have a good communication mechanism, in order people can ask queries that they have in relation to the projects. It is not very clear so far. For example, hospitals staff do not know who to ask if they have difficulties in WWTP projects. But the Menkominfo staff used to ask EDCF Tokyo and not more than two days they will get a response. The latter has shown how EDCF be accountable to the clients and they appreciated these responses.

- Indigenous Peoples Issues in Indonesia

Implementation of indigenous peoples concern and consideration of impact are

one area of good governance principles stated above EDCF has a statement related to the indigenous peoples in its environmental guidelines. Howev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in practise since Indonesia has more than 350 different traditional groups (It is called 'masyarakat adat' in Indonesia) and they are protected under the International declar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lso ILO Convention 169 on Indigenous Peoples Rights that Indonesia has ratified. All the masyarakat adat rights to land and resources must be respected and serious efforts must be made to obtain to implement a process of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Consultations must be made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m in advance in a language, manner and form that are accepted and understandable of the 'masyarakat adat concern'. An organization of Indonesia indigenous peoples such as AMAN (Aliansi Masyarakat Adat Nusantara) can be one source of asking advice. JICA, World Bank and ADB have clear guidelines on above issues that EDCF can learn in more details from it especially on how to implement them in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roads and dams.

3. RECOMMENDATIONS

From stakeholders

Followings are recommendations from stakeholders that were interviewed and from the workshop

From BAPPENAS

- 1) Improvement of procedure and mechanism for project preparation . Putting the cooperation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respecting to commitments of the two governments
- 2) **Strengthening readiness criteria** on detail implementation plan (activity, financing, procurement); Performance indicator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Land acquisition and resettlement plan.
- 3) Improving appraisal process: Deepening the process; More involvement of the project executing agency. Refining procurement procedure, Applying country

system; Harmonizing with other lender guidelines.

- 4) Strengthening coordination in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joint monitoring and evaluation with development partners (CPPR, CPRM, ODA Loan Promotion, etc.)
- 5) Issuance of Government Regulation à PP No. 2 Tahun 2006 and Permeneg PPN/BAPPENAS No. 005 Tahun 2006; Permenkeu No. 52 and No. 53 Tahun 2006 Establishment *country borrowing strategy* and synchronization with development priorities (sectoral & regional) and MDG's goals

From WWTP implementers the recommendations are:

- 1) Provide a digital monitoring system
- 2) At concept level, a project should identify first whether the spare parts are available in Indonesia. (similar issues to Police, Ministry of Communicat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projects)
- 3) They need a contact person that they can ask if they experience difficulties in running the WWT machineries and equipments.

From ICT project staff,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uggests:

- 1) Equipment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or Bahasa Indonesia
- 2) They would like to know who they can contact for EDCF Indonesia since they always contact EDCF Korea.
- 3) If EDCF can lower the counterpart budget allocation for a proposed project, it will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aspect.
- 4) They recommend that more Indonesia companies in the bidding process.
- 5) **Do not act as charity**, but develop human resources for a period of time, support by regulations and how to make ICT industry bigger

From National Criminal Information Centre project the recommendations are

- 1) They hope the process for phase two and three can be at one phase and can proceed in a near future.
- 2) Differentiate equipment for national and district levels since their budget are different. The national level can afford more compare to the district level.
- 3) Spare parts are also difficult to find.

- 4) They want to have a different contractor for phase two and three since the current contractor does not satisfy them.
- 5) **Institution beneficiaries' has to involve in contractor selection** for the next phase.

From Batam e government project

- 1) They want to continue the project and hope for a direct contract with Postdata Company.

From Manado by pass project, the recommendations are the followings:

- 1) The head of Public Works in Manado hopes that there are trainings for local contractors and not only actorn company implement the project but work together with Indonesian company.
- 2) From an NGO suggests that the preparation of bypass projects can involve more stakeholders participation included NGOs who work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The projects need also to anticipate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bypass road that is located in hilly areas and agreed on whom responsible to maintain the road.

From INFID, the recommendations included

- 1) Continue to develop projects aimed at ensuring human development through knowledge sharing
- 2) Promote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on rural agriculture
- 3) Hold regular dialogues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and affected communities
- 4) Remain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campaigns through green projects such as in the development of public transport
- 5) Develop safeguard standards that guarantee the upholding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gender sensitive and improve the socio-economic condition of communities affected by project development

Recommendation from the author

- 1) Maintain good practices such as the trainings in Korea are valued highly by the training participants. Communication with BAPPENAS (Bilateral

Funding Directorate) and donors like JICA have already established good communications. Evaluation such as done by KDS need to be continued on issues of beneficiaries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since this will increase EDCF accountability. There are many good stories to tell from current projects, these stories need to be documented since it would be beneficial for Korea image.

- 2) Improve EDCF communication strategy on firstly how they deal with beneficiaries of the projects, stakeholders and EDCF main counterpart ministries. Six monthly meeting would improve the situation. A brochure would be of assistance,

Secondly, EDCF can have an Indonesia EDCF website which explains the projects in English and Bahasa Indonesia such as JICA does. The website can be enhanced by putting information such as what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also gender responsiveness principles included more evaluation reports.

Thirdly, EDCF needs to join donors working groups such A4Des and other donor meetings related to loan in Indonesia.

Fourthly, EDCF needs to pay attention on the language of things such as machineries guidelines and ensure the language is in English or Bahasa Indonesia.

Fifthly, EDCF needs to find out on why the procurement of projects process has taken a very long time. Sixthly, I agree with Ausaid that donors should monitor quality of loan projects implementation. Seventhly, EDCF can work with INFID for good governance guidelines and work with AMAN for social and indigenous peoples considerations. Eighthly, in order to do better process has taken, EDCF Indonesia needs to employ more staff and then learn from a KOICA on how they have Indonesia staff that can assist with many issues related to projects.

- 3) The proposed EDCF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e projects need to ensure on how to benefit the rural areas where most Indonesia poor are located. The agriculture projects needs to incorporate Korea lessons o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 4) Technical issues such as procurement problems need to be sorted out. A working group can be formed and discuss this issues from time to time to find better ways.
- 5) Capacity building for road infrastructure is needed, thus road projects needs to have a capacity building to Public Works sector staff and also contractors such as the other loan projects.
- 6) E-government in Batam project cannot be seen that the project benefits the public services also the Batam people since the system they show is not a new system. However, since we spend only a short time, this is hard to decide. The recommendation that it needs crystal clear examples on how the e-government system benefits the public services and the Batam people before it can be continued.
- 7) Consideration for future projects to provide IT technology for **Indonesia as an archipelago** to increase public services (based on PP10/2010)
- 8) **Assist WWTP projects in replication** to other hospitals in Indonesia if the health Ministry agreed.
- 9) EDCF needs location selection criteria in order to avoid disparity of development among regions- combine well established and least established areas.
- 10) Choose projects that are related to maternal mortality, HIV/AIDS,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and forest coverage in future loan projects since these are goals in MDGs that Indonesia is not going to achieve in 2014. The project should have specific and measurable indicators that will contribute to Indonesia achievement of MDGs.